



2

주 제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2 호

(루계 제 604 호)



◆◆◆◆◆◆◆◆◆◆

## 차 례

◆◆◆◆◆◆◆◆◆◆

축원의 한마음 .....	4
광장의 교향곡 .....	5
최전선에 나서자 .....	14
어데가나 함께 있으리 (외 1 편).....	15
추억은 앞에도 있다 .....	15
아흔아홉가지 축시법.....	16
백두산은 우리 고향 .....	17
혈연 .....	18
새벽의 첫 노래가 되어다오 .....	19
사랑의 약속 .....	20
명언해설 .....	26
백두는 말한다.....	27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위대한 령도자의 형상.....	28
그 영상 우리르며.....	32
2월과 함께 더욱 간절해지는 인민의 소원.....	33
나는 긍지높은 세대 .....	35
영원한 충신의 모습 .....	36
혁명문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주시려 .....	37
금강문 열어놓고 .....	38

어머님 계시는 마음의 고향집 .....	39
기적 .....	39
운계령 할머니 .....	40
내 어머님을 생각함은 .....	48
친위전사의 참된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대한 빛나는 형상 .....	49
감자꽃 필 무렵 .....	54
삶의 푸른 언덕에서 부르는 심장의 노래 .....	65
병사의 숨결 .....	69
나는 자랐다 .....	77
마치를 높이 들고 .....	78
우리의 려장은 가벼워서 좋다 .....	78
아들애의 그림을 놓고 .....	79

## 축원의 한마음

김휘조

2월의 명절  
환희로운 이 봄날  
아버이장군님께서 달려갑니다  
전사들의 한마음 축원의 마음

세상 가장 위대한  
우리 당의 총비서동지  
주체의 념으로  
인생의 밝은 빛을 안겨주시며  
해빛밝은 앞길을 펼쳐주신분  
장군님 계시여 푸르기도 한  
그 하늘을 이고 달려갑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일심의 대가정을 꾸려주신분  
무적의 강군을 튼튼히 다지시여  
사회주의 요람을 지켜주신분  
상상이나 할수 있으리까  
장군님 아니시면  
우리 사는 락원의 저 거리  
따뜻이 내리는 저 봄빛을  
창가에 흐르는 노래소리를

영웅이신 장군님께로 달려갑니다  
위인이신 장군님께로 달려갑니다  
청신한 아침이슬 머금고  
꽃으로 핀 우리 마음  
장군님 계시여  
산악과도 같은 신념을 안고 달려갑니다

장군님을 총비서로 추대하던 나날에  
해돋이 바다처럼 설레이던 저 거리  
밝은 불빛을 안고  
가슴속 소중한 소원

금시 천만열매로 주렁지는듯  
다정한 이야기로 잠못들던  
그밤의 감격을 안고

아 떨어저선 못살 아버지  
그리워 꿈에도 찾는 스승  
부르며 우러르며  
축원의 꽃바구니를 안고 달려갑니다

가장 경이롭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상한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장군님은 력사가 높이 받드신분  
세기가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따르며 인민의 락원을 얻고  
우러르며 꿈도 행복도 찾은 우리  
장군님 뜻을 안고 새로운 비약의 강행군을  
다그쳐  
일터마다 더 세찬  
혁신의 불꽃을 일으키리라  
불타는 마음들이 달려갑니다

인민을 위해 탄생하신  
인민의 아들  
장군님은 인류를 위해 할일도 많으신분  
그 어깨 언제나 무거우신분

다함이 있으리까 안녕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꽃이 되어  
간절한 소원 꽃향기 되어  
달려갑니다 장군님께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 광장의 교향곡

최성진

극장은 봄빛이 질어가는 모란봉의 푸른숲에 싸여있었다. 현대감보다도 고색이 나는 극장이었다. 건물의 수직을 강조하는 원형기둥들과 단조로운 부각장식들이 그러한 느낌을 자아냈다.

사실 극장은 수도 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들중의 하나였다. 해방전에는 이곳에 일본놈들이 지어놓은 초라한 절간이 하나 있어 얼굴이 좀스럽게 생긴 왜중이 때없이 두드리는 목탁소리만이 궁상스레 울려나왔었다. 일본놈들이 망하고 해방이 되자 인민의 첫 극장이 여기에 일떠서 새 조선의 노래가 울리기 시작했다. 극장은 그때로부터 수많은 사변들을 겪으며 자기의 영광을 새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평양에 현대적인 극장들과 초고층살림집들, 세계에 자랑할만한 시대의 거창한 기념비들이 수풀처럼 일떠서서 모란봉숲속에 옛모습 그대로 서있는 차그마한 극장은 사람들의 눈길밖으로 점차 밀려나는듯했다.

그러한 극장이 오늘은 걱정 of 분위기에 떠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향악단 연주회를 보내주시려 극장으로 나오신다는 전갈이 온것이였다.

교향악단 책임일군 류성혁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최전연부대들과 구분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계시였기때문이었다. 서해의 외진 섬초소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텔레비존을 통해 봐오던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였다. 이 근래에 와서 출창 최전연에 나가계시는 그이이시였다. 바로 류성혁은 바위투성이 위험한 길을 밟으시며 방어축성물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앞에서 가슴이 얼마나 조여들었던가! 그것은 적함들이 가까이에서 싸다니는 위험한곳이었다. 그이께서 최전연시찰을 하루빨리 끝내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여 잠시나마 휴식을 하시며 려독을 푸시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류성혁은 며칠전에 경애하는 그이의 현지시찰로정을 따라 취재를 나갔다는 한 작가친구를 만났었다. 그때 류성혁은 길거리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보게 류동무, 동무나 나나 일을 더 잘해야겠네. 우리 장군님께서 최전연을 현지시찰하시는 소식을 알리는 공식보도를 그저 무심히 들어서는 절대로 안돼. 장군님께서 지금 어떤 <고난의 행군>을 하고계시는지 아나? 한공기의 강낭죽으

로 때식을 치르시며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가고계시네. 그뿐인줄 아나. 장군님께서 동삼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종일 야외에서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보내주시느라 발을 얼구시였다면 자넨 그걸 선뜻 믿겠나? 하지만 그건 사실이네! 장군님께서 그러시고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여 그곳 부대지휘관들조차도 모르고있었지. 장군님께서 부대를 떠나오신 다음에야 동행했던 몇몇 일군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말을 못했더구만!》

류성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혁명의 간고성을 절감했다. 정말이지 지금 우리 조국은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헤쳐나가고있는것인가! 원썬들이 사회주의보루로 솟아있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없애보려고 그 어느때 보다는 발악적으로 도전해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인민의 삶의 요람인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몸소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것이였다. 인민의 운명이 걸려있는 오늘의 대결전이 얼마나 간고했으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런 일을 다 겪으시였으랴싶었다. 류성혁은 외따른 숲속의 극장무대를 지키고 앉아 연주활동을 하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생각되어 죄스러웠다. 더구나 악단에서는 불철주야로 긴장한 행군을 하고계시는 그이께 새로 형상한 작품들을 지도받자고 이 며칠사이에만도 여러편이나 록음하여 올리였다. 그 작품들이 **김정일**동지의 사색과 휴식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였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도 있었지만 작가의 말을 듣고보니 한초한 초가 천금같은 그이의 시간을 짜내자고 한 자신들의 처사가 너무나 철없는것으로만 생각되었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성의가 담겨진 그 록음테프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여 어느 중간단위 일군의 책상우에 묵어있거나 아니면 문진들의 더미에 싸여 서류장속에 들어가 사장되어버린것만 같아 서운한 감도 바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악단의 연주회를 직접 보내주시려 극장에까지 찾아나오신다고 하지 않는가! 그이께서 최전연에서 돌아오시여 휴식은 언제 하셨단말인가! 더우기 그이께서는 이 며칠사이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진행된 중요 국가행사들로 하여 얼마나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였으랴. 4월 25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전

선에서 전선으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 오신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결사옹위의 맹세를 다진 대오들이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며 승리거리를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 끝없이 이어진 대오들은 그길로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향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양의 빛발을 뿌리시어 더욱 찬란히 빛나는 4월의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수령님 키워주신 철의 대오들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룩해갈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복을 받으며 정예의 무력이 기념궁전광장을 굽이쳐갈 때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번뜩이였다. 그리고 총창을 번쩍이며 나아가는 군인들도 걱정 of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열병식이 있는 그 다음날에도 휴식을 못하시고 조선인민군녀성구분대군인들의 포식탄사격훈련을 지도해주시였다. 오늘은 4월 27일이다. 그러니 그이께서는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극장을 찾아주시는것이 아닌가!

그이를 맞이하기 위하여 극장앞에 나와 대기하고있는 문화예술부안의 책임일군들과 평양 시내 여러 예술단체들에서 모여온 일군들도 모두 이런 똑같은 생각으로 하여 흥분되어있었다.

날은 일요일이요 좋은 봄날이였다. 저녁녘의 커다란 태양은 불덩어리처럼 이글거리며 모란봉을 노을빛으로 물들이는데 극장둘레를 따라 구름처럼 피여오른 정향나무꽃이 진한 향기를 풍기였다. 까만 피치로 윤나게 포장한 마당 한가운데의 분수못에서는 하얀 물줄기가 솟구쳐오르며 허공에 명주필같은 안개를 날리였다. 물안개는 분수둘레를 따라 손에 손잡고 돌아가는 소년소녀들의 조각상우에 떨어져내려 무수한 방울로 맺히였다. 포동포동하게 젖살이 오른 행복동이들도 최전연에서 돌아오신 그이를 맞이하여 환희의 원무를 추는듯했다.

뽕양게 내리는 물보라속의 행복동이들을 보느라니 류성혁은 문득 자신이 것처럼 크나큰 행복에 떠받들려있던 때가 생각났다. 그런 때가 있었다.

군복을 입고 예술활동을 하던 그 시절이였다. 군부대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군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류성혁이네가 출연하는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병사들의 땀내가 나는 공연의 매 프로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잘한다고, 군인정신이 넘쳐나서 좋다고 하시던 그이께서는 합창지휘자에게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류성혁에게서 남다른 음악적재능을 찾아보신것이였다. 공연이 끝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을 축하해주시면서 류성혁이도 만나주시였다. 젊은 상위 류성혁이 음악계의 재사로 알려진 유명한 지휘자의 동생이라는것을 아시고 그이께

서는 더욱 기뻐하시였다. 동무는 형처럼 음악으로 당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류성혁은 그이의 관심과 사랑속에 보람찬 예술활동을 하며 성장해왔다. 음악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그의 형이 뜻밖의 일로 사망하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게 베푸시던 사랑까지도 류성혁에게 돌려주시였다. 하여 류성혁은 누구보다도 위인의 사랑을 한가슴에 받아안고 복무의 나날을 예술적재능과 찬탄의 꽃다발로 장식할수 있었으며 오늘은 나라의 음악계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의 주인이 되여 그이를 다시금 모시게 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붉은 해발에 싸여 극장앞마당으로 들어섰다.

류성혁은 처음에 그 어떤 국가적인 관례행사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이께서 예술부문을 지도하시려 극장들에 나오실 때에는 수행인원들도 별로 없이 나오시는 경우가 드문 한것이여서 이 조용하고 따뜻한 봄날의 저녁에는 더욱 그러하실것만 같은 생각에 잠겨있었던것인데 뜻밖에도 당과 국가의 요직에 있는 간부들을 대동하시어 나오신것이였다. 류성혁은 정말 무엇때문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신 시기에 그것도 고품의 옛극장을 찾아주시는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어쨌든 오늘의 연주회가 보통연주회가 아닌것만은 틀림없었다.

류성혁은 어깨가 무거워왔다. 그러지 않아도 교향악단으로 말하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태어나 성장해온 예술집단이였다. 그이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울리시던 70년대초에 벌써 음악부문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3관편성의 교향악단을 무어주시였으며 민족악기에 의한 배합관현악이라는 독특한 우리 식의 대연주집단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안아오시던 그 시기를 회고하실 때마다 우리 혁명은 노래와 함께 시작되었고 노래와 함께 전진해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시곤하시였다.

류성혁은 그이를 모시고 진행하는 오늘의 연주회를 자그마한 실수나 손색도 없이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굳히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자 마중나와있는 일군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그러시다가 류성혁을 알아보시고 미소를 지어보이시였다. 《군복을 입고있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구만!》 그이께서는 이마가 흰칠하게 벗어지고 체소해진 류성혁을 보시면서 젊은 시절의 뽕뽕하던 그의 모습을 상기하신것 같았다.

정력이 넘쳐나는 그이의 활달하신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옵게 되자 류성혁은 갑자기 눈앞이 뿌얘지면서 목구멍이 짝 메어버렸다. 이제 그이를



뭇게 되면 울리리라고 마음속으로 몇번이나 외워두었던 인사말들은 자기도 모르게 짱그리 잊어버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최전연초소들을 찾아 넘고넘으셨을 높고 험한 령들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 어떤 <고난의 행군>을 하고계시는지 아나?》하던 작가친구의 갈린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는것이였다. 류성혁은 어느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발에 눈길이가는것을 의식하자 소스라쳐 놀라며 정신을 차리었다.

《장군님!》 류성혁은 목구멍을 메우며 솟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간신히 누르며 입을 열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장군님을 모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류성혁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요즘 동무네가 록음해서 올려온것들을 다 들어보았는데 음악도 좋고 연주자들의 기량상태도 그만하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류성혁은 창황중에도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 많은 곡들을 다 들어보셨단말인가? 방금 최전연에서 돌아오시지 않았는가. 언제 그 많은 시간을 내셨단말인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놀라는 류성혁의 기름해진 얼굴을 바라보시며 의미있는 미소를 지어보이시었다. 오늘 류동무의 음악을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류성혁의 이마에는 행복의 혈조가 붉게 내비치었다. 군복을 입고 예술창조활동을 하던 흥안의 시절이 되돌아온듯했다. 음악형상에 들어가서는 요구성이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그것이 정확한 음감과 폭넓은 지식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누구든지 맞서기 두려워하는 류성혁에게 있어서 지나간 젊은 시절은 모두 부러워할만큼 화려했다. 지금의 류성혁이 어느모로 보나 빈틈없이 다듬어진 예술가로서의 체취에 조직적수완을 겸비한 조용한 일꾼이라면 그때에는 음악적환상이 남다른 천부의 재능에 왕성한 정력으로 하여 창조의 무한한 세계를 두려움 모르고 헤쳐나가는 열정의 젊은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젊은 류성혁의 음악적재능과 함께 그가 진할줄 모르는 정력으로 놀랍게도 진실하게 펼쳐나가는 환상의 세계, 사람들의 가슴속에 밝은 빛을 가득 채워줄줄 아는 예술의 세계를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지금 따뜻하고 친근한 리해의 미소로 류성혁의 가슴속에 그러한 정회의 금선을 튕겨주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물보라가 시원스레 날리는 분수대며 주변풍경을 한번 둘러보시고나서 인차 극장안으로 향하시었다. 열려져있는 출입문을 향해 정면의 화강암층계로 다가가시던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원형기둥들에 떠받들

려있는 처마우에 눈길을 보내시었다. 그이의 눈길은 처마우의 부각장식에 한동안 멎어있었다. 그이의 표정은 승엄했다.

류성혁은 극장으로 출근하며 매일과 같이 보곤하여 이제는 무심히 스쳐지나는데 습관된 그 부각장식이 일생을 보고 또 보아도 무심히 스쳐보지말아야 할 공화국의 기발이며 국장이라는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는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보면 여기 평양에 현대적인 극장은 많아도 공화국의 상징인 기발과 국장을 정면에 새겨넣은 예술극장은 여기밖에 없는것이였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구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부각장식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한순간 생각에 잠기시다가 《마흔아홉해라...》라고 나직이 뇌이시었다. 그렇다. 여기서 공화국창건이 선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울려퍼지고 새 조국의 람홍색기발이 처음으로 솟아올라 9월의 태양아래 나뭇기던 그날을 생각하시며 반세기 가까운 세월의 년륜을 마음속으로 세어보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외장재가 눈비에 많이 퇴색했으나 옛모양 그대로인 극장외부를 감회깊은 눈길로 둘러보시다가 다시금 걸음을 옮기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맞이하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던 극장안은 어느사이엔가 조용해졌다. 장내는 소리없이 끊어번지는 환희와 격정의 숨결만이 뜨겁게 느껴졌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연 시작을 앞두고 극장내부를 둘러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생각하시는듯하다가 류성혁에게 공연을 시작하자고 하시었다.

이윽하여 조명등의 강렬한 빛을 받으며 눈부신 조선옷차림의 소개자가 나와 인사를 하고 이어 악사들로 들어찬 무대우로 지휘자가 등장하였다.

류성혁은 기다리던 순간이고 악단의 구성상태나 기량형편을 봐도 지금이 전성기라고 속으로 은근히 자부해왔지만 정작 공연립박에 이르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것은 연주자들이 무대우에 올라가 수천의 눈길을 한몸에 받으면서 몇초후면 시작될 연주를 앞두고 체험하게 되는 흥분상태와 비슷한것이였다. 그는 지금 최대의 긴장속에 있을 무대우의 연주자들을 한사람한사람 지켜보았다.

그들은 실상 나라의 음악계가 아끼는 재능있는 연주자들이였다. 그들중 어느 누구를 짚어 독주 무대에 내놓는다고 해도 빠지는데가 없을것이였다. 하지만 매 연주자들의 기량수준 그자체가 공연의 기본성과를 좌우하는것도 아니였다. 일단 공연에 들어가면 연주자들은 팽정해져야 하며 관현악이란 하나의 세계에 자신을 완전히 용해시켜야 한다. 관현악이란 각이한 악기군들의 조화로 온 울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체와도 같다. 개별적인 어느 한 연주가 흥분하여

한순간의 자그마한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음악이라는 유기체는 죽음을 면할수 없게 된다. 흥분이란 오직 청중에게 전달되는 감정으로만 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대우에서 연주하는 배우들은 팽팽하게 자신을 다잡을때 수천의 인간들을 감동시키는 불덩어리같은 예술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류성혁은 한생의 음악활동으로 더득한 교훈과 굳어진 관념으로 무대경험이 어린 신진연주자들의 무대심장을 키워주곤했다.

그런데 류성혁에게는 지금 신진연주자들은 물론 경험있는 오랜 연주자들까지도 너무 흥분하고 있는것 같이 느껴졌다. 그것은 객석의 청중들로서는 전혀 느낄수 없는것이였다. 오직 연주자들을 자신처럼 알고있는 류성혁이만이 느낄수 있는 것이였다. 흥분을 억제하느라 내심 애쓰는 굳어진 자세, 긴장한 눈길, 피부의 긴장, 숨결의 소리 없는 파동... 정말 연주과정에 어느 누가 하나의 실수라도 한다면 어찌라 하는 생각에 류성혁은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의 이러한 심리상태는 지휘자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지휘봉을 들어 연주자들의 시선을 한점에 집중시키는 순간에 끝났다. 연주가 시작되였다.

서주는 안정감있게 조용히 시작되였다. 약음기를 거쳐 울려나오는 트럼페트의 예리한 울림이 고요해진 장내를 서서히 울리였다. 그것은 아득한 밤하늘에 새겨지는 시와도 같았다. 아니, 그것은 해빛을 받아 빨강계 타는 기발이였다. 천리수해의 한끝에서부터 가까와오는 빨간점이였다. 호른의 은은한 저음이 트럼페트의 강렬한 고음을 감싸안으면서 밀림의 장엄한 정서를 펼치였다. 밀림의 바다는 설레인다! 설레인다! 현악기들이 서서히 설레이며 차츰 환상의 공간을 눈물로, 격정으로 채웠다. 밀림의 장설우를 행군해가는 투사들의 대오, 우등불 타오르는 밤하늘... 두고온 고향을 그리는 투사들의 마음인가, 저대의 부드러운 울림이 추억을 불러오는데 첼로가 깊은 사색의 세계에로 청중을 이끌어간다. 화고트며 클라리네트, 목관과 금관, 타악기의 각이한 울림이 분산음을 이루는듯하면서도 미묘한 화음을 이룬다. 콘트라바스의 무게있는 저음이 투사들의 넓을 기폭처럼 감싸안는다. 장내는 조국애의 뜨거운 숨결로 끓어번지였다.

음악은 돌연 변조되였다. 무대우의 악기군들이 일제히 노호했다. 눈보라가 울부짖는것이였다. 태고연한 밀림이 설레이는 소리, 천리수해를 휩쓸어가는 눈보라소리, 구만리장천의 얼어붙은 대기를 깨치며 타래쳐오르는 광풍의 회오리소리, 폭풍을 안고 노호하는 군마들의 호응소리... 붉은 기발이 나뭇긴다. 기발은 퍼덕이며 눈보라속을 전진해간다. 트롬본의 박력있는 울림, 트럼페트의 예리한 대위선률, 사색의 세계를 펼쳐놓던 첼로며 비올라의 울림은 장엄한 색조로 변했다. 그것

은 백두의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투사들의 불굴의 의지의 거센 분출이였다.

연주자들의 지나친 흥분상태를 두고 우려했던것은 공연한것이였다. 오히려 그 흥분상태가 연주에서 놀라운 기적을 낳고있지 않는가! 인간의 지혜와 환상의 힘이란 참으로 거대하다. 얼마나 훌륭한 음향을, 그 조화로움을 창조하고있는가!

류성혁은 자기가 그렇게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연주자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새삼스런 눈길로 바라보았다. 모든 연주자들이 지휘자와 한몸이 되어 숨쉬고있다. 녀은 합쳐져 하나의 피줄로 흐르고있다. 이보다 더 완결된 유기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휘자의 지휘봉이 힘있는 박자를 그으며 끝점에 이르러서는 파르르 떨린다. 그것은 한계점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감정의 억제이다. 지휘자가 흥분한것이다. 무대우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관악기들이 일제히 노호한다. 지휘자의 왼손이 각이한 도형을 그으며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가운데 현악기들쪽으로 향해지는 순간 청중이 미처 알아차릴새 없이 손바닥으로 상상속의 그 무엇을 부드럽고도 재빠르게 살짝 누른다.

그러면 현악기들의 감칠맛있는 소리가 장내에 가득 살아난다. 지휘자의 한번의 손짓, 그의 눈길의 언어, 표정의 변화, 몸동작, 그의 숨결의 하나하나, 지어 그의 피부의 떨림과 색조의 미세한 변화가 담고있는 의미까지도 매 연주자들에게 놀랍고도 정확히 전달되면서 음악이란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눈앞에 펼쳐놓는것이였다.

《잘하누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으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미 음악은 끝났으며 지휘자도 지휘대에서 내려오고 음악의 여운만이 청중의 가슴속에 울리고있는 감동에 젖은 정적의 짧은 한순간이였다. 《잘해!》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였다.

후더운 이슬이 류성혁의 눈곱에 피여올랐다. 그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박수갈채가 쏟아져나왔다. 감동으로 하여 자기를 잊고있던 청중의 감정이 드디어 폭발한것이였다. 환희의 순간을 농칠세라 촬영기의 렌즈들이 부지런히 번쩍거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요란한 박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중의 아낌없는 축하에 답례를 보내고있는 지휘자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 오래전부터 아끼시며 키워오신 지휘자였다. 관현악지휘에서는 제일 경험이 많고 음악에 대한 감각과 조예가 깊은 지휘자라고 할수 있었다.

《저 장호지휘자가 이제는 나이가 많겠는데 늙어보이지도 않고 열정도 여전하구만!》

《장군님, 래년이면 장호동무의 예순이 됩니다.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젊은 지휘자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저 동무자신도 숨질



때까지 무대우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장호동무지!》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를 대견해하시는 눈길로 바라보시며 박수를 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인사를 올리는 지휘자의 두눈이 번쩍하다. 온 장내가 박수소리로 끓어번지는속에서도 그는 자기 몸에 와닿는 위인의 따뜻한 온길과 그이의 육성을 분명 느낀것 같았다. 그는 흐느끼고있는것이였다.

《70년대부터 연주생활을 해오는 동무들이 몇이나 되오?》 김정일 동지께서 류성혁에게 물으시었다.

《열한명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동무들이 없어졌구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못내 서운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연주가들을 한사람한사람 돌리보시다가 《열한명이라...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해온 오랜 연주가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장내에는 새로운 곡목의 연주를 앞두고 다시금 정적이 깃들었다.

저음악기들의 은은한 선율이 울리었다. 붉은 조명이 무대우를 어슴푸레하게 비치었다. 배경에는 연기에 싸인 초가마울이 나타났다. 푸른 방죽 아래 흘러가는 시내들, 전야너머 야산기슭에 오봇이 들어앉은 농가들... 《내 고향의 정든 집》이였다. 봄이면 꽃속에, 가을이면 황금열매속에 묻혀있던 고향, 추억도 많은 정은 고향집은 원썬들의 폭격에 불타버리고 고향의 아들은 복수를 다지며 싸움에 나섰다. 관현악이 설레었다. 음악은 싸움에 나선 전사의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펼쳐보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등받이에 몸을 일으키고 출근 무대우로 시선을 보내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위세계를 잊고계신듯했다. 그이의 표정은 예리하고도 변화무쌍했다. 그이의 눈빛은 무한한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데가 하면 서리발같은 증오로 번뜩이기도 했다. 그이의 사색은 지금 고향과 조국, 혁명에 대한 깊은 세계에 닿아있었다. 음악의 주인공, 싸움터로 나가는 전사의 모습이 그이의 눈앞에 떠올랐다. 자기의 키보다 한뼘은 더 큰 보병총을 멘 전사이다. 부혁을 틀어쥔 손에는 힘줄이 뻗치었다. 몇해전까지만하여도 고향의 앞내가에서 동무들과 소꿉놀이애나 취해있었을 애 어린 나이의 동그랗고 까만 얼굴, 랑볼에 패이군하는 보조개...

김정일 동지께서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시었다. 안변청년발전소 100리물길굴안에서 얼핏 만났던 그 전사가 아닌가! 그 전사가 얼굴이 동그랗고 랑볼에 보조개가 패이군했다. 그 전사가 음악의 주인공이 되어 보병총을 멘 전쟁시기 병사의 모습으로 눈앞에 떠오르다니! 자기의 키보다 더 큰

보병총을 멘 모습으로... 하긴 전쟁시기에도 그렇게 나 어린 전사들이야 얼마나 많았던가!

그이께서는 지나온 전쟁의 나날에 만나보신적이 있는 전사들을 추억하시었다. 최고사령부에서 그리고 불타버린 도시와 마을과 싸움터를 지나가시다가 만나보시였던 전사들이었다. 그러자 그이의 눈앞에는 폭격에 불타버린 도시가 문득 떠올랐다. 어슬막의 도시였다. 모조리 무너지고 불타버리어 앙상한 폐허로 된 도시였다.

그때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 도시를 지나가고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김정일 동지께서도 가슴이 아프시여 차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방금 폭격에 무너져내린듯 연기가 피여오르는 아파트의 잔해가 가까이 있는 길우에 전선으로 나가던 포탄차 한대가 서있었다. 거기에서 절절한 그 무엇이 느껴지는 예리한 선물이 날아왔다. 하모니카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를 세우게 하시었다.

방금 타입은듯한 새 군복이 몸에 붙지 않아 별로 훌륭해보이는 애 어린 전사가 운전수 없는 포탄차우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다가 놀라서 일어나 내려왔다. 서투른 제식동작으로 인사를 올리는 전사에게로 수령님께서 다가가시었다.

《운전수는 어디 갔나?》 수령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시었다.

《물을 길러 갔습니다.》 목소리마저 애되었다.

《그때... 언제 입대했나?》

《한주일전에 입대했습니다.》

《고향은 어딘가?》

《평양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계시나?》

《...》

전사는 고개를 떨구고 머뭇거리었다.

《잘못되었나?》

《그렇습니다. 폭격통에 집이...》

《음-》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쓰러나시는듯 피로운 표정을 지으시었다. 한참만에야 수령님께서는 애써 걱정을 녹였하시었다.

《하모니카를 잘 부누만. 음악을 좋아하나?》

《...》

《잘 싸우라구. 미국놈들을 쳐엎애구 평양에서 우리 만나자구!》

최고사령부 야전차는 포탄차결을 떠나 다시금 어두워오는 길을 달리었다.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뇌이시었다.

《어리구만! 너무 어린 나이에 싸움터에 나섰구만! 하지만 잘 싸울거요. 가슴속에 폭탄보다 더 위력한 신념의 노래를 안고 복수전에 나섰거든! 신념의 노래를 말이요!》

수령님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인민군전사들을 무한히 격동

시키는 놀라운 소식이 싸우는 고지들에 퍼져갔다.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 군무자예술축전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평양으로 부르셨다는 소식이였다. 달아오른 바위에 육박전의 총창을 갈던 전사들이, 습격의 길을 떠나기 위해 멸적의 총탄을 재우던 전사들이 화선악기들을 안고 평양으로 달려왔다. 인류전쟁사에 류례없는 예술축전을 위해 모란봉지하극장이 일떠섰다.

그날 평양은 적기들의 맹폭격속에 있었다. 폭음, 지심을 뒤흔드는 폭음… 솟구치는 불기둥, 불의 바다… 집들이 무너지고 가장집물들이 불타고 땅이 통채로 지글지글 끓어올랐다. 하늘을 까맣게 덮으며 날아온 원추의 비행기들이 줄폭탄을 내리부으며 미친듯이 돌아치는데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지상의 폭음을 짓누르며 울려퍼져갔다.

무대우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흘러가고있다. 연기속에 싸인 초가마을, 연기아래로 흘러가는 고향의 시내물… 관현악이 흐느낀다. 가슴속에 복수를 다진 주인공들을 장엄한 결전으로 부르코 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날의 무대를 보시는것만 같으시였다. 지금 무대우에서 연주하는 그들 모두가 그날의 화선음악가들처럼 생각되시였다. 눈굽이 뜨거우시였다. 음악이란 그런것이지. 승리를 확인하는 노래, 신념의 그 노래를 안고 전사들은 싸움의 고지로 달려갔고 침략자들을 죽음의 함정골에 처박지 않았던가. 그 노래와 함께 미제를 때려눕힌 영웅전사들이 승리의 축포가 오르는 열병식광장으로 달려오지 않았던가! 음악이란 그런것이다. 그런데…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색을 중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음감을 자극하는 불안한 소리를 느끼신것이였다. 그것은 무대를 꼭 채운 연주가들이 저마끔 울리는 관현악의 폭넓고 복잡한 음향의 세계에 끼여든 형체가 분명치 않은 하나의 운모조각같은것이였다. 그 운모조각같은 파렬음때문에 관현악이란 조화로운이 깨어져 나가는것만 같은 불안감이 드시였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조금전부터 비로소 느끼시는것이 아니였다. 저기 먼 최전연에서부터 느끼시던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날도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고계시였다. 전선중부를 떠나 전선서부의 대련합부대를 찾아가시는 길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여 잠시나마 휴식하실것을 바라는 수행일군들의 청원을 가버이 뿌리치시고 길을 떠나신것이였다. 소술한 바람이 일고 눈가루가 날리는 험한 고개길을 오를 때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없이 앉아 마음을 조이고있는 차안의 장령들에게 《동무들, 피곤하지 않소? 내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록음을 틀어놓으시였다. 그것은 류성혁이네 교향악단에서

록음하여 올려보낸것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평양의 집무실에서 시간을 낼수 없으시여 최전연시찰의 길에 가지고 나오신것이였다. 야전차는 구배가 심한 아득한 령길을 기운차게 뚝아오르는 데 차안에서는 교향곡이 울려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향륜을 잡으신채 음악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바로 그때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름답고 힘있는 음악선률사이로 튀어나오는 불안정한 파렬음을 처음으로 느끼신것이였다. 그러했던것이 지금은 차츰 형체가 명백해지는것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대의 자감상태에서 주인공의 비장한 심리를 체험하며 격양되어있는 연주가들의 연주자세며 동작들을 농침없이 주시하시였다. 무대를 채운 수많은 악기군들이 저마끔 울리는 진폭이 큰 음향들의 잘 숙련된 화음속에서 개별적인 악기들의 소리를 하나하나 가려내어 들어보시였다. 연주자세들도 좋다. 소리들은 더없이 기쁘시다. 하긴 품들여 자래운 연주집단이 아닌가! 판록있는 오랜 연주가들, 갓 대학을 나왔을 애젊은 신진연주가들… 하나같이 좋은 소리를 내고있다. 죽관악기들의 소리가 좋아졌다. 저 바이올린수는 자기 파트를 잘 끌고가는군. 확신성있게 활을 그어가는 자세… 연주가란 무대에 나서면 저렇게 자신을 확신해야 한다. 소리는 또 얼마나 멋들어진것인가!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하고, 기백이 있으면서도 승엄하고… 저 바이올린수는 지금 인간이 언어로 다 표현할수 없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세계를 자기의 음악으로 표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대에서 잠깐 눈길을 떼시여 전성을 향하시다가 다시금 무대에 주의를 집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탁자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시였다. 푹푹푹…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불만족해하신다! 류성혁은 얼굴이 컴컴하게 죽어들었다. 최전연현지시찰의 먼길에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극장을 찾으신 그이께 이제 뭐란말인가! 나라의 연주음악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을 맡겨주신 그이의 믿음에 보답은 못할망정 심려를 끼쳐드리다니!

류성혁은 조금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왔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오는것인지는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장대를 쨍쨍 울리는 관악기들의 요란한 소리가 그의 마음속 불안을 키질하는듯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도 류성혁의 그러한 심리상태를 들여다보신듯했다. 그이께서는 교향곡의 마지막악장이 끝나자 선참 박수를 보내시며

역시 모두가 연주를 훌륭하게 한다고 너그럽게 말씀하시였다. 류성혁은 그제야 초긴장상태에서 풀려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불안은 끈질기게

남아있으면서 차츰 자라기만 했다. 속이 바질바질타고 등골이 축축해왔다.

그는 어쩔수 없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표정을 알려고 애썼다. 류성혁은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왔다. 무엇인가가 그이의 예리한 음감을 자극해드리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이께서는 방금 전에도 모든 연주가들이 훌륭한 연주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류성혁은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기만 하고 도무지 생각을 정리해볼수가 없었다.

류성혁의 불안과 위구는 바이올린독주가 끝나고 다시 관현악으로 곡목이 바뀌었을 때 확정적인것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담배연기를 연하게 피워올리시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시지 않는가! 벌써 두번째였다.

한순간 류성혁의 눈앞에는 취재길에서 돌아온 작가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까맣게 탄 커다란 얼굴에 노기를 띄우고 류성혁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자네 그게 뭔가!》 하고 그가 질책하는것만 같았다. 그러지 류성혁은 눈물이 콧구멍으로 흘러나왔다. 그는 오열과도 같은 흐느낌이 터져나오려 하는것을 가까스로 잡았다.

류성혁이 고민하거나 말거나 풍년가을의 환희를 형상하는 새납소리, 저대소리, 금관악기들의 소리가 장내를 진감했다. 그는 지금까지 흘러온 공연과정을 돌이켜보았다. 매 악장들을, 매 소절들을 재음미해보았다. 음악의 속도, 소리의 색깔, 음정. 끝내 아무것도 생각해낼수 없었다. 사교력은 어디론가 다 빠져달아나고 갑자기 머리속이 텅 비어버린것만 같았다. 푹푹푹... 음악의 흐름을 타고 들려오는 그 류다른 소리가 류성혁의 가슴속에 우뢰소리처럼 울리었다. 그는 심장이 다 쏠아들어 없어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언제 공연이 끝났는지 알지 못했다.

객석에 불이 켜졌다.

류성혁은 죄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했다. 객석으로 전파된 무거운 공기는 무대우에까지 퍼져갔다. 모두가 굳어져버리어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내의 무거운 공기를 감촉하시자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극장 잔향이 좀 긴것 같구만.》

《...?》

잔향이란 건물안의 벽들에 음향이 반사되면서 일어나는 뒤울림을 말한다. 류성혁은 그이께서 왜 잔향에 관심을 두시는것인지 아직은 이해가 가지않으면서도 무엇인가 알릴듯말듯한 반디불같은것이 머리속을 배회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해진 극장안을 둘러보시다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극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확실히 동무네 관현

악은 고음과 저음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음악편곡도 잘했고 연주가들의 기량도 나무랄데가 없는데말입니다. 현악기소리가 약하고 금관소리만 지내 살아납니다. 동무네한테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극장의 잔향관계로 해서 음향의 부조화현상이 일어나고있단말입니다.》

류성혁은 그제야 눈앞이 번쩍 트이였다. 장내를 울리는 금관악기소리가 불안을 키질하던 조금전의 일이 생각났다. 지금도 그 소리가 주위공간을 꽉 채우며 울리는것 같다. 화로를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것을 가려보지 못하다니! 악단에 머리 큰 대가들이 수두룩하지 않는가. 한생을 음악과 함께 살아오는 전문가들이 훑고 또 훑어보면서 발견해낼수 없었던것을...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단말인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렇게도 미세한 부조화를 가려내시고 그것이 극장의 잔향관계로 오는것임을 그렇게도 명철하게 꿰뚫어보시다니! 그래, 그렇게도 미세한 부조화를, 저 무한대의 하늘에 빛나는 수억만개 별들중에 하나의 작은 별자리와 같은 그렇게 미세한 파생음들... 어쩌면 그이께서 대뜸 가려내실수 있을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두 긴장하여 굳어져버린 무대우의 연주가들에게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그이의 밝고 정이 배인 쾌활한 음성이 조용해진 장내를 울리었다.

《내 그동안 동무들이 보고싶었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고있다가 오늘에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대신 나는 최전연에 나가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동무들이 록음하여 보내준 음악을 들곤하였습니다. 달리는 차안에서 피곤을 느끼다가도 동무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힘을 얻곤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해별이 되어 일어불었던 공기를 한순간에 녹이였다. 밝은 기운이 장내에 확산되면서 드디어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그런데 류성혁은 가슴이 찢어졌다. 눈앞에는 야전차가 일으키는 뽀얀 눈구름이 떠올랐다. 조국의 동서해를 이으며 달려가는 야전차... 얼음깎린 돌벼렁길을 달려가는 야전차 야전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밝은 안색을 하시고 극장내부를 한번 돌아보자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불편한 의자들사이를 지나 뒤쪽으로 걸어나가시었다. 중앙홀이 내려다보이는 계단위에 나서시여 홀안의 여러곳을 감회깊은 눈길로 둘러보시었다.

그곳은 커다란 수정무리등이 은은한 빛을 뿌리며 아늑한 감을 자아내는 홀이였다. 그이의 눈길은 붉은 주단을 깔아놓은 아득한 층계에 한동안 멎어있었다.

《수령님께서 이 극장에 처음으로 나오신것이 47년도일것입니다. 그때엔 저런 고급주단이나 무

리등 같은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계단도 천연석재가 아니라 나무로 되어있었고 천정에는 수정무리등대신 백열등이 걸려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런데서 우리 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시었고 인민이 창조한 예술도 보아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극장이 개건된 다음에도 자주 이곳을 찾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우리 극장을 200여차례나 찾으시여 리용하신 좌석이 2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류성혁이 그리로 안내해드리었다.

그곳은 험소하기 그지없는 발콘이었다. 사적의 자에는 눈같이 하얀 석우개가 썩어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승엄한 표정을 지으시고 한동안 사적의자앞에서 움직일줄 모르시었다. 아직도 의자에는 수령님의 체취가 따듯이 배여있는것만 같아 가슴이 뜨거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극장에 나오시여 인민의 소박한 예술을 보아주시며 잘한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일들이 떠오르시었다. 그 날에 인민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던 노래들이 생각나시었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였다. 안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을 반대하여 쏘라닥거리었고 밖에서는 수정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이 압력을 가해오고있었다.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공화국전쟁소동은 더 말할것도 없었다. 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인민이 부르는 수령의 노래가 온갖 원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힘차게 울려퍼졌다. 그래, 노래로 원썬들을 처이긴 우리 인민이지. 그런데 지금도 원썬들은 날뛰고있다. 수령님의 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를 없애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하여 지금 우리 인민이 얼마나 간고한 시련을 겪으며 사회주의를 지켜가고있는것인가! 가슴아픈 희생도 많다...

《200여차례라...》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온화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이 불편한 발콘좌석을 200여차례나 리용하셨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동무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시여 그렇게도 바쁘신 몸으로 자주 극장에 나오신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이 창조하는 음악과 예술을 통하여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며 우리 당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의 곱힘없는 의지를 보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노래가 진정으로 혁명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예술로 되게 해주시기 위해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시련이 중첩될수록 시간을 내시여 극장에 나오시곤하신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흘러온 우리 음악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의 권세있는자들과 돈많은 부르조아지들은 음악을 한갓 오락의 수단으로 여기고 혁명의 원썬들은 썩어빠

진 날라리음악으로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켜버리려 하지만 우리의 음악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동무들도 우리 혁명의 첫기슭에 울리던 혁명가요가 어떤 역할을 놀았는지 모르지 않을것입니다. 돈없는 노동자 망치매고 나오고 땅없는 농민은 호미들고 나오라는 그 소박한 한편의 노래로 수백수천만의 인민을 혁명으로 끌기시켰습니다. 그 노래와 함께 대오는 망치고 자라나 혁명의 장엄한 대하를 이루며 흘러왔습니다. 음악의 힘이 그렇듯 거대한것이여서 김형직선생님께서도 음악을 사랑하시었고 수령님께서도 음악을 사랑하시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지나온 력사는 노래와 함께 승리해온 력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동무들, 노래란 곧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음악은 마땅히 그 한편한편이 자기 당, 자기 수령을 믿고 전체 인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모든 곤난을 뚫고나가는 벽찬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며 수천만 인민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부르는 진군가로, 우리 혁명의 보폭을 더해주는 행진곡으로 울려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음악에는 단 하나의 잡음이나 불협화음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속에서부터 정화되어 나오는 신비의 음향이다. 그것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윤활유와도 같은 것이다. 하여 인류는 자기 발생의 려명기로부터 음악과 함께 살아왔다. 생존을 위한 로동속에서 원시음악을 창조한 인류의 조상들은 노래로 고달픈 자신들을 위로했다. 슬픔을 안은 인간도 노래에서 위안을 얻었다. 아기들은 자장가를 들으며 요람속에 잠들었고 병사들은 군가를 부르며 전장으로 나갔다. 노래를 들으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다. 음악은 근로하는 인민이 처음으로 창조했고 그 인민의 향유물이였다. 력사의 오랜 수난기를 거쳐오면서 인민은 음악마저 빼앗겼다. 음악은 인민을 등진 특권층들과 돈많은 놈들을 위한 향락물로 되였다. 종교의 소유물로도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도구로 되여 사람들을 색정과 염세, 영탄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음악아닌 음악도 있다. 위대한 혁명가정이 싸움에 나서며 음악과 인연을 맺던 그때부터 인민은 음악을 되찾았다. 인민은 음악의 영원한 주인이 되였다. 음악은 자주적인 삶을 위한 인간들의 투쟁의 무기로 되였다. 바로 그러한 음악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버리어 혁명하는 인민의 손에 쥐여주시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음악가이시다! 우리의 모든 음악가들의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하는 시대의 음악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계시는 그렇듯 전무후무한 위대한 음악가이시기에 빛의 무한한 세계에 떠다니는 하나의 먼지알갱이와 같은 악상의 그 미세한 부조화를 그리도 명철하게



깨물어보신것이다. 그이가 아니라면 정녕 어느 예술의 대가가… 그렇다. 그런데 작은 먼지알갱이같은 그것때문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최전연시찰의 겹쌍인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극장에 나오시였던말인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음향박사들을 데려다가 극장의 음향조건을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안을 만들어야겠다고 하시였다. 《보시오. 저렇게 나무의자를 놓았으니 음향이 반사되지 않겠는가. 저 나무의자들대신 만수대의사당처럼 스펀지고무를 넣은 고급 포의자로 전부 교체하고 객석의 뒤벽도 흡음벽으로 해야겠소. 그렇게 해서 수령님의 자옥이 어려있는 이 극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이 울려나오게 합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극장밖으로 나오시였다. 밖에는 벌써 저녁어스름이 깃들고있었다. 고요가 내려앉은 마당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하얀 분수가 솟구쳐 오르고있었다.

류성혁은 이제 극장을 떠나가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꼭 아뢰고싶은 간절한 기원이 있었다. 그는 가슴속에 짝 차오르는 걱정을 누르며 귀염둥이 소년소녀들의 원무를 바라보고계시는 그이께로 다가갔다.

《장군님!》했으나 끝내 목이 꺾 메여버리였다.

왜서인지 금시 울음이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어서 말하오.》 하시며 **김정일**동지께서 그를 돌아보시였다.

《장군님!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극장의 음향조건도 개선하고 진정으로 혁명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시대의 음악을 창조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음악에 대하여 들려주신 말씀의 깊은 뜻을 저희들은 일생 심장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서 어찌 장군님께서까지 그런 길을 걸으신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 강낭죽 한공기로 때식을 치르시며 동삼에 … 밭을… 일구…》

가슴속 깊은곳에서 터져나오던 그의 말이 푹 끊어졌다. 일군들은 뜻밖의 일에 모두 굳어져버렸다.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주변을 휩쓸어간듯했다. 주위공기마저 화끈 달아올랐다. 정적이 흘렀다.

**김정일**동지께서도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다가 《<고난의 행군>이란말이지…》라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물보라가 내리는 허공을 향해 손바닥을 활짝 펴시였다. 물보라는 그의 손에 보양게 내려앉았다. 그이께서는 산뜻한 쾌감을 느끼시였다. 그러자 문득 물방울이 팔렁팔렁 떨어지는 지하물길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무릎을 치는 지하수, 가도가도 끝없는 100리물길굴, 어둠을 밝히며 활활 타오르는 화불, 물

길굴을 따라 랑옆으로 끝없이 늘어선 화불의 대렬… **김정일**동지께서는 거기에 서있는 나 어린 전사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배고프지 않나? 집생각도 나고.》

《장군님, 배고프지 않습니다. 집생각도…》

《허어- 전사동문 최고사령관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구만.》

《…》

《내가 다 알아. 그래 일이 힘들 때면 어떻게들 하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전사들이 안변청년발전소를 보란듯이 건설해놓았다. 그리고 그러한 전사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찾으시였던 1211고지나 대덕산에도, 판문점이나 오성산에도, 서해의 바람사나운 섬초소에도 있었다. 조국의 어느 초소애나 그러한 전사들은 있을것이다. 전쟁시기나 다름없이 오늘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전사들은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시련을 헤쳐나가고있다. 과연 이런 인민, 이런 전사들을 원썬들이 당해낼수 있단말인가!

《동무들, 그렇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을 향해 돌아서시며 탁 트인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린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보다 더한 시련이 겹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자랑스러운 인민입니다.

그 어떤 적들도 이런 인민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승리가 오고있소! 이제는 우리가 여봐라! 하고 큰소리치며 통장을 부를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단말이요!》 만리대공을 쨍쨍 울리는 우뢰와 같은

음성에 사람들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의 심중에서 태동하는 거대한 그 무엇이 찌릿이 감득되면서 해방기의 장쾌한 흐름이 눈앞에 떠오르는것이였다. 얼음산이 꺼져내리고 눈석이가 시작된다. 승리가 오고있다. 험난한 고난의 행군길을 인민과 함께 걸어오신 그의 거룩한 자옥을 따라 또다시 위대한 승리가 오고있다! 지금은 축복의 꽃보라인양 활날리는 파스한 물안개에 젖어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저 옷자락에 시련의 눈비는 얼마나 내렸고 전선길우에서 맞으신 찬바람은 얼마나 스며들었으랴. 가슴들이 들먹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원한 미소를 지으시며 류성혁을 찾으시였다.

《류동무는 음악가로서 생각되는것이 없소? 허허… 이것보오. 이제 이 어려운 행군을 끝내는 날 수령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 승리의 날에도, 멀지 않아 다가올 조국통일의 날에도 우리는 금

수산기념궁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오! 승리의 열병식도 크게 하고... 그러니 승리의 광장에 올릴 대교향곡을 만들어보오! 승리의 교향곡을 말이요. 내가 오늘 동무에게 그 과업을 줍니다!》

류성혁은 하마트면 그이의 품에 와락 안겨들어 사나이의 울음을 터뜨릴번하였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위대한 력사의 자욱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순간의 휴식마저 미루시고 여기 모란봉 숲속의 사연깊은 극장을 찾아주신 그 깊은 뜻이 비로소 헤아려졌다.

류성혁의 가슴속에 짝 차오른 걱정은 끝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후두둑 떨어졌다. 그는 더는 자신을 건잡지 못하고 흑-하고 흐느꼈다.

《장군님, 알았습니다!》 류성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올리었다. 그 순간 류성혁의 흐려오는 망

막으로는 해빛에 반짝이는 아득한 광장이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복의 미소가 해빛이 되어 쏟아져내리는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이었다. 승리자들의 대오가 광장을 굽이쳐가고있었다. 수백수천만의 대오는 축복의 광장, 승리의 광장을 지나 아득히 뻗어간 대로를 따라 행진해갔다. 척척... 조국이며, 앞으로! 고난과 시련의 바다너머 저기 앞에 찬란한 미래가 오고있다. 가까이... 가까이... 류성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갑자기 그는 가슴속 깊은곳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그것은 장엄한 서주였다. 새 교향곡의 탄생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인차 푸른 잎새들에 묻힌 모란봉의 공원길을 내리어 승리거리쪽으로 달려갔다. 이 저녁, 그이께서 또 어느 전선을 찾아 떠나시는것인가?

## 최전선에 나서자

정준기

알섬은 동해바다 멀리  
최전연에 있는 섬  
코앞에서 적들의 군함들이  
이발을 갈듯이 흰물결 썰어대며  
때없이 돌아치는곳

조국의 바다와 땅을 지켜  
우리의 초병들이 하루 24 시간  
어느 한초도 경각성을 늦추지 않는곳

력사적인 그날은 파도 사나웠다  
전쟁도발을 노리는 원썬들이  
《독수리》날개 퍼덕질에 환장이 되어  
미친듯이 비행기 날리며 기승을 부렸다  
다치면 터질듯이 팽팽한  
살벌한 공기 섬으로 밀려왔다

아 그러한 최전연 머나먼 섬  
놈들의 분별없는 광기 휘몰아치는 그러한 때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곳까지 가실줄이야  
그 누가 생각할수 있었으랴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우리의 장군님께서 섬으로 나가신 날  
온 조선이 경탄하고 감동에 휩싸였다  
세계가 놀랐다

섬의 초병들도 감격의 눈물속에  
거세찬 해일도 짓누를 신심을 받아안았다  
전군이 사기충천했다  
전민이 기세충천했다

아 그토록 엄혹한 때에  
그이께서 먼바다 최전연에 나가셨다  
가장 위험한 초소의 진지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이께서는 결연히 나가시었다

놈들의 기도 한손에 틀어쥐시고  
놈들의 망상 발밑에 짓밟고 서신 장군님  
불굴의 기상 무비의 담력에  
원썬들은 기가 질려 헤덤비고  
전국엔 행군의 발구름소리 높아졌다

장군님의 최전연 시찰은  
전민을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모든 부문 최전선에 나서라 추동했다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 전선에서 한몸을 내대고  
최전연에 나서자 신심도 드높았다

우리모두 세찬 바람 부는 최전연에  
거연히 서계시는 장군님의 기록한 영상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기고  
언제나 시련의 파도 헤치며 나아가리라



## 어데가나 함께 있으리 외 1 편

서봉제

주추들도 우리가 고이고  
벽체도 우리가 쌓았건만  
백두밀영답사숙영각이며  
오늘은 내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어버이수령님 기쁘시여  
더없이 기쁘시여 오르시고  
그리도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내리신  
하얀 대리석의 키낮은 층계  
오늘은 내 선듯 밟을수가 없구나

거울같은 유리문에 마주서면  
친히 나무손잡이를 여시던  
인자하신 그 모습 어려오고  
윤기도는 복도에 들어서면  
만면에 넘치시던 그 미소 넘쳐있는 집

저기 온돌방의 침대의 높이  
《마안산》모포의 두터이도  
하나하나 헤아리신 어버이사랑  
답사자식당의 키낮은 의자에 앉으시여선  
천정에 새긴 나무문양도 세심히 살피시며  
기쁨속에 잠기시던 우리 수령님!

아, 어찌 알았랴  
모질은 백두의 설한풍 맞받아  
얼어드는 물탈도 우등불로 녹이며

돌격대원 우리가 일떠세운 바로 그 집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줄...

온 한해 겨울  
건설장을 파묻는 눈보라속에서도  
마음속에 꿈처럼 바라던 소원  
영광의 이날을 맞아  
백두밀림에 끝없이 파도치던 환희여

밀림우에 추녀를 올린  
백두밀영답사숙영각을 배경으로  
고생 많았던 돌격대원 우리와 함께  
어버이수령님 기념사진을 찍자하실 때  
어찌하여 엄한의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던  
우리의 가슴가슴 그토록 뜨거웁에 들먹였던가

잊지 않으리 어데가나 함께 있으리  
그날의 걱정 밀림이 받아안고  
그날의 환희 천만심장이 새겨안고  
백두밀림에 솟아있는 답사자들의 사랑의 집이여

아, 영광이여라 행복이여라  
해빛밝은 이 땅우에선  
평범한 로동의 나날에 세운 창조물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손길아래  
어버이수령님을 기쁨으로 우리러모신  
영원한 기념물로 빛나고있구나!

## 추억은 앞에도 있다

때로는 우리 구름속에 묻히여  
모래알로도 보이지 않았다  
때로는 우리 광풍에 말리워  
자기 하나를 지탱치도 못했다

백두천상의 때아닌 폭우에  
온몸이 물주머니 될 때도  
오히려 통쾌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절벽을 허물며 함마를 휘둘렀다

바위를 물어뜯는 폭풍에  
운반식사의 밥버치를 날려보내고  
나어린 대대의 취사원처녀가  
발을 구르며 눈물을 삼킬 때도  
우리는 백두산부석우에서 출판을 벌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기여보내신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

성스러운 이 친필글발 새기던 향도봉에  
우리의 기쁨이 어리고

시련의 눈물도 어리고  
량만의 노래도 함께 어리어  
눈굽 찢릿이 바라보는 이 마음

수월히는 보낼수 없는 생  
세상에 없는 백두산에 기념비를 세워가며  
백두에서 맞고보낸 눈과 비  
백두에서 이겨낸 폭풍과 우뢰  
백두에서 키워낸 대바르고 굳센  
잊지 못할 성장의 그 나이가  
추억의 끝없는 머나먼 바다로 나를 이끌며  
더 힘찬 노를 저어가려니

오, 추억이란  
정녕 추억이란  
지나간 나날의 회상만이 아니구나  
참답게 빛내인 인생의 한구간은  
끝없이 마주오는 미래의 새 추억을  
투쟁의 앞뜨락에서 먼저 자래우고있구나!

-백두산의 향도봉에서-

## 아흔아홉가지 축시법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은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지략으로 일찍부터 적들의 모략책동을 걸음마다 산산이 짓부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군사의 영재이시다.

천변만화, 림기응변의 지략, 로숙하면서도 추상같은 혁명적원칙성과 우주와 같이 광대한 도량을

지니신 **김정일**장군님의 령장의 풍모에 대해서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있다.

그가운데서 축시법과 관련한 한가지 전설을 소개한다.

### 파산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어느해 이른봄에 있는 일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해마다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리지만 언제 한번 씨원한 성과를 거둔적이 없었다.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함선이 침몰되고 뜻하지 않은 폭발사고가 나는 등 꼬리를 들고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고는 미제와 남조선괴뢰군부우두머리들의 큰 골치거리였다.

그리하여 놈들의 사령부에서는 몇달전부터 현대적인 전자계산기들과 《능력있는 군사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만전을 기한 놈들은 이해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크게 떠들어대었다.

그런데 군사연습은 처음부터 실패를 거듭하였다.

1월말부터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서부터 여러 습격편대들이 남조선에 날아들어 공화국북반부의 중요대상에 대한 기습타격연습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비행기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습격기편대들이 왜 오지 않는가?》

사령부에서는 불같은 독촉을 했으나 저쪽에서는 짜증을 냈다.

《아직 날자가 되지 않았는데 왜 떠나라는가? 훈련계획을 자꾸만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가?》

《뭐라구? 훈련계획을 바꾸었다구? 오늘 21일 10시 30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있지 않는가?》

《오늘이 며칠인가? 19일이 아닌가?》

《뭐? 19일이라구?》

사령부에서는 어이가 없었다. 일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지역 해외침략기지들에서 핵적재 《에프-16》 전투폭격기들과 《에이-6》 습격기, 《에이브이-8》 수직리착륙기들이 군사분계선지역상공에서 복침을 가상한 지상목표타격연습을 벌리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연습은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그런가하면 이보다 늦어오게 되어있는 병력과 전투장비와 작전물자들을 실은 대형수송기들은 작전지역에 훨씬 먼저 기동하여 명령을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웠다.

연습은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합동군사연습사령부 우두머리들은 미칠지경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또 불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광주일대 상공에서 공중급유연습을 하던 여러대의 비행기들이 추락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일인즉 이렇게 된 것이었다.

이날 12시경. 판도로부터 끌어들인 《케이씨-135》 급유기들이 광주일대상공에 날아올라 미제7

항공군소속 《에프-16》기 여러 편대들에 공중급유하는 실전연습을 벌리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급유를 받아야 할 《에프-16》기 편대들은 오전 10시경에 광주상공에 날아올랐는데 《케이씨-135》급유기들은 오후 3시에야 날아오른 것이었다.

사령부에서는 이 사고들을 두고 장교들을 닦아 세웠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불부는 소리를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군사연습 계획대로 정확한 시간에 리륙하였다고 뻔대는 것이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행기의 추락으로 일어난 산불이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일대의 산림을 재더미로 만들었는가 하면 낮에 뜰 비행기가 야간비행을 하다가 송전선에 걸려 땅바닥에 곤두박치었고 도하작전연습에 동원된 배가 뒤집혀 모두 물귀신이 되고말았다.

이해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개판이 되고말았다. 놈들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그 원인을 명백히 알고있었다.

남조선의 한 로인은 《축지법을 쓰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술법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에 하는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축시법으로 시간을 혼란시켜 군사연습을 뒤죽박죽이 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이었는데 백두광명성에서 떨어진 별찌 하나가 눈부신 빛을 뿌리며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상공을 날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후 미군과 괴뢰군 장교들속에서는 시간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축시법으로 시간을 빠르게도 하고 뜨게도 했다는 것이다. 합동군사연습은 문자 그대로 여러 지역의 무력들이 시간을 맞추어 기동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시간이 혼란되었으니 란장판이 벌어질것은 뻔한 일이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합동군사연습이 있기 전날 축구공만한 인공위성이 태평양상공에 떠있었는데 그것이 조회를 부렸다는 것이다. 그 신기한 인공위성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띄우신것인데 그것이 축시법을 썼다고 하였다. 그러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번에는 시간을 빠르게도 하고 뜨게도 하는 술법을 쓰신 것이었다.

## 가사

# 백두산은 우리 고향

김봉운

어머님 모습으로 유정하여라  
아버님 기상담아 장엄하여라  
천지의 맑은 샘물 젖줄기로 마시며  
천출명장 솟아오른 백두산은 우리 고향  
아 장엄한 백두산  
아 정다운 우리 고향

눈덮인 밀림속은 포근하여라  
비바람 눈보라도 따스하여라  
혁명의 장검높이 천만대적 죽치며

조국광복 봉화올린 백두산은 우리 고향  
아 장엄한 백두산  
아 정다운 우리 고향

호랑이 노호소리 변함없어라  
신념의 붉은 기발 백승빛나라  
먹구름 모진 광풍 용암으로 태우며  
대를 이어 안아지킬 백두산은 우리 고향  
아 장엄한 백두산  
아 정다운 우리 고향



## 혈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광장 건설에 동원되었던 인민군군인들이 임무를 끝내고 부대로 돌아가는 전날 밤이었다.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서면서 평양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와오자 군인건설자들은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다. 자기들의 몸가짜이 계시면서 그토록 뜨거운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못살것만 같았던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고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갈 때마다 공사장에 친히 나오시여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로력적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해를 맞는 설날아침에도 병사들이 미처 설인사를 드리기도전에 이른 새벽 현장을 찾으시여 새해를 축하해주시고 남방파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물들도 보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안겨주신 사랑이 적은것만 같으시여 자신의 이름으로 친히 감사까지 안겨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한여름에는 단고기가 인삼복용에 못지 않다고 하시며 단고기를 먹이도록 배려해주시고 손수 급식량을 늘이도록 해주시였으며 평양국수도 먹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금수산기념궁전광장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군인들이 큰일을 했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해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겠는가고 하시며 금수산기념궁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금수산기념궁전 공사에 동원되어 일한 영예를 길이 전하라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건설참가증도 안겨주시고 평양 시내에 가족친척이 있는 동무들에게는 친척방문도 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이 나날에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장군님께서 하루가 멀다하게 현장에 나오시여 늘 함께 계셨지만 잠시라도 헤어지면 어련애들처럼 그 품이 그리워 잠들지 못하고 모태

기군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우려하던 그날이 왔다.

건설임무를 끝낸 그들에게 철수명령이 떨어졌던것이다.

그날밤 그들은 모두가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꼬박 새웠다.

이제 날이 밝으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어떤 동무들은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고 어떤 동무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기도 하였다.

어떤 병사들은 《검은 머리 백발이 된다 한들 내 어찌 그 은정 잊을수 있으랴.》라고 자작시를 지으며 눈물을 펴구었고 또 어떤 병사는 《장군님 그리는 마음》이라는 즉흥시를 걱정예 사무쳐 읊기도 하였다.

한쪽에서는 손풍금이 울리고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축원의 노래를 부를 때면  
자애론 그 영상 안겨오네  
그 품에 효성을 다해가며  
충성의 노래 부르리  
...

이렇게 그들은 《그 품 떠나 못살아》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한밤을 지새웠다.

새날이 밝아오자 군인건설자들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하며 아버지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또 축원하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모두가 《그 품 떠나 못살아》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노래를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였는지 평양을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함께 울고야말았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이렇게 금수산기념궁전 광장공사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이 장군님곁을 떠나는것이 아쉽고 섭섭하여 한밤을 지새며 노래 《그 품 떠나 못살아》를 불렀고 평양을 떠날 때도 모두가 울면서 《그 품 떠나 못살

아》를 부르며 떠나갔다는 보고를 드렸을 때였다.  
《알고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떠나보내고나니 웬 일인지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멀리 떠나간 사랑하는 전사들을 그려보시는지 이윽도록 말씀이 없으시더니 드디어 말문을 여시었다.

《어쩐지 그들이 자꾸만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는구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마도 자신과 군대는 혈연의 관계이기때문에 그런것 같다고 하시면서 낮으나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혈연이란 피로써 맺어지고 이어졌다는 말인데 피로써 이어진 정과 사랑은 가를래야 가를수도 없고 뗄래야 뗄수 없지.》

《혈연》

일군은 그이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그렇소. 나와 군대는 혈연의 관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형의 피로 맺어지고 이어진 관계라는거요.》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형의

피로 융합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할수 없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이 비록 오늘 떠나갔지만 그들이 조국땅 그 어느 초소에 있건 자신의 마음은 병사들의 곁에 있으며 자신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주체형의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

일군은 뜨거운 걱정이 치밀어오르는것을 어찌 할수 없었다.

그렇다.

군대는 물론 온 나라 인민과 경애하는 장군님 사이는 주체형의 피로 맺어지고 이어진 혈연의 관계, 사상도 지향도 하나, 운명도 미래도 하나인 혼연일체의 관계이다.

인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을 꿈결에도 못잊어 그리워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친아버이의 심정으로 온 나라 인민모두에게 뜨거운 사람을 베풀어주시며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혈연의 관계.

오늘 세계에 불패의 위력 떨치며 세상사람들을 정탄시키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과 우리 인민 사이의 이러한 혈연적관계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 새벽의 첫 노래가 되여다오

류동호

맑고 깨끗하고 싱싱한  
첫새벽이 밝아오면  
나의 시여 너는  
그 새벽의 첫 종다리노래가 되여다오

새롭고 희망차고 열렬한  
그 새벽의 하늘에  
나의 시여 너는  
첫 나팔소리가 되여다오

피는 꽃이 향기로운 봄날에도  
눈바람이 사나운 겨울에도  
나의 시여 너는  
언제나 아침노을처럼 불타는  
열정의 붉은기가 되여다오

우리 장군님

인민의 단잠을 지켜주시다  
제일 먼저 맞으시는 새벽  
그이 그리도 사랑하시기에  
내 한생의 사랑이 된 새벽

한없이 뜨겁고 열렬하고  
창창한 희망으로 아름다운 새벽  
태양의 열정을 안으신  
그이의 빛발을 안고 숨결을 안고  
나의 시여 나래치라

나에게 노래를 배워준 은인에게  
단 한줄기 기쁨의 빛이라도  
제일 먼저 드리고싶거니  
나의 뉘 나의 삶 나의 모든것이여  
새벽의 첫 노래가 되여다오  
영원한 태양의 노래가 되여다오

## 사랑의 약속

리석

이 나라 그 어디에 가서  
그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그들이 가슴에 안고있는  
가장 소중한것 무엇인가를

화려한 설맞이공연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도  
충을 데고 초소를 지켜선  
일당백병사들에게도

세차게 돌아가는 발전기앞에서  
조국에 열과 빛을 더해주는 발전공에게도  
저 풍요한 들판을 가꾸는  
처녀들에게도 물어보라

그러면 하나같이  
뜨겁게 말해주리라  
경애하는 장군님과 한 약속이 있어  
그날을 안고 산다고

아, 사람마다  
우리 장군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한식술로 함께 사는 내 나라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고싶은 그이와  
허물없이 한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을 안아  
삶은 위훈으로 아름답고  
우리 사는 세월속에  
사랑의 전설도 많아라

### 1. 편지

날과 달을 이으며  
전선 중부와 동부  
서부와 섬초소를 시찰하시고  
이제는 평양으로 돌아오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굽이 많고 령높은 전선길에  
흔들리는 차안에서  
그이의 피로인들 얼마나 쌓여있으랴  
온몸에 배여있는 로고인들 얼마나 많으시랴

하건만  
그이는 야전용가방을 펼치시고  
한장의 두툼한 봉투를 꺼내드시여라  
겉봉을 여시고 꺼내드신 편지  
글씨도 콩알처럼 굵은  
평범한 로동자들의 글씨

누가 보내였을가  
어디서 어느곳에서  
저리도 사연많은 이야기  
경애하는 장군님께  
편지로 올렸을가

장군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먼 북방 김철의 용해공들의 편지일가  
아니면 금골의 지하막장  
4.5갱 광부들의 간절한 소원일가

아니면 청산벌과 숙천벌 농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담긴  
편지일가

한장 또 한장  
그리고 세심히 읽어보시는  
우리 장군님

알길 없으랴  
생각도 깊으시고  
마음도 무거우신듯  
보시던 첫장을 또다시 보시여라

창밖으로는 눈덮인 산발들이  
지나가고 또 다가오고  
쌀쌀한 찬바람이  
야전차 문틈으로 스며드는데

그이께서는  
편지의 구절구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듯  
읽으시고 또 읽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라

이렇게 우리 장군님  
사색깊으신 마음을 싣고



야전차는 령을 넘고 굽이를 돌아  
어느덧 평양을 가까이하고있는데

앞에 뻗어간 두갈래길  
갈림길에 이르시자  
조용히 말씀하시는 장군님  
-운전사동무  
강동방향으로 갑시다

?  
운전사도  
동행한 일군도  
뒤따라오던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도  
무슨 영문인지 사연몰라 어리둥절?

강동지구 그곳에는  
급하게 가셔야 할 일도 없고  
더우기 거기엔 병사들의 초소도 없는데  
무슨 사연일가?무슨 까닭일가?

## 2. 약속

어제나 오실가  
저제나 오실가  
기다리고기다리는 강동땅

...  
얼마나 기다리던 시각이었던가  
몇해전 소문도 없이  
공장에 오시였을 때  
구내길도 다 걸어보시고  
패인 도량을 건너  
로동자들의 살림집에도 들리시어  
세간살이도 의논해주시며  
한것을 보내신 장군님

바래워드리기 위하여 따라나선  
공장당비서 조명식에게 하시던 뜨거운 말씀  
-비서동무, 그사이에 일을 많이 했소  
그런 본때로 이번에  
로동자들의 살림집과 편의시설들을  
본때있게 제껴보오

-장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담찬 대답을 들으시며  
두손으로 허리를 가볍게 짚으시고  
점도록 공장 뒤산기슭을 보시며 하신  
장군님의 말씀

-저 산기슭에  
이 고장에 흔한 건재로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2~3층짜리 살림집들을 멋있게 지어보시오  
저 기슭을 따라가면서 말이요  
장군님 가리키시는 산기슭  
양지바른 산기슭  
-아마 그러면 로동자들이 좋아할것ियो

-알았습니다  
장군님

아, 세상에 믿음이면 이보다 큰 믿음  
그 어디에 있으랴  
파업이면 이보다 더 영예로운 파업  
어디에 있으랴  
두눈 습벽이며 결심을 굳히는 사람  
어이 조명식이만이더냐

-동무들이 새집들이하는 날에  
꼭 다시 오겠소  
당비서 조명식이며  
로력영웅 임덕성이며  
그리고 바래우러 나온 일군들의 손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던  
우리 장군님

-그러면 동무들이 나와 약속했습니다  
호탕하게 웃으시며 떠나시던  
그 잊을수 없던 날이어

그때로부터  
날과 달이 흘렀어라  
우리 장군님 송고한 뜻 받들어  
높낮은 산기슭을 따라  
2~3층짜리 아담한 살림집들이  
뜨는 해 솟는 달을 마주향해 이마를 쳐들고  
《은정원》에선 피곤을 푸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살림집들과 공장을 이어주는  
강복판으로는 마치 하늘중천에 떠있는  
구름다리 서로 손잡은듯  
그대로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있어라

변모된 이 은정마을에  
우리 장군님 모시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은정원》에서 묵으시며  
천리전선시찰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를 푸시면

아, 얼마나 좋으시랴

아이들도  
어른들도  
아낙네들도  
생각은 한뫼으로 흘러라  
이제나 오실가  
저제나 오실가  
하지만  
생각은 달랐어라  
당비서 조명식과  
로력영웅 임덕성은

새해 첫날부터 한해가 저물도록  
온 한해동안  
전선에서 전선을 이어가시며  
시찰의 길을 걷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로고  
병사들을 찾아  
세찬 바람도  
내리는 눈비도  
협한 바다길도 헤치시며  
서해의 외진 섬초소까지 찾으신  
우리 장군님

천백가지의 일들이  
그이의 결론을 기다려  
언제나 바쁘신 그이의 시간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심중

바쁘신 장군님을  
제고장에 모시게 하자고 한 그 생각  
파연 옳은 처사인가  
아니면 그날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지나친 욕심이 아니던가

우리가 나라의 짐을 다 걸머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지 못할지언정  
제 욕심만 차렸으니  
이 얼마나 경망스럽고 죄스러운 일인가

오, 지나온 세월이여 우리 물어보자  
령도자를 몸가까이에 모셔야만 충신이던가  
항일의 7련대장 오중흡동지는  
항일의 나날  
우리 수령님과 가까이에 있는 날보다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있을 날

더 많지 않았더나

오중흡련대장은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있었어도  
언제나 사령부의 방패가 되었어라

천리밖에 만리밖에 있어도  
그 마음과 마음은 성벽이 되어  
혁명의 사령부를 지켰더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곳에  
언제나 서있을 김책동지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언제나 복잡한 경제전선의 침단에 서있었던가  
아니면 군사대학을 나와서 한몫 내대고  
전선사령부에 있었던가

아,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자고  
우리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구호와 만세를 불렀던가  
그래 우리 마음이  
정녕 오중흡련대장의 마음이 되었느냐  
우리 자세가  
정녕 김책동지의 자세가 되었더나

아니여라 아니여라  
오중흡련대장은 한생을  
언제나 사령부와 멀리 떨어진곳에서도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켰어라  
김책동지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장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곳에서  
한생을 묵묵히 바치며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렸어라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란 무엇인가  
속깊은 조명식과 임덕성의 그 마음  
어느새 알았는가  
저마다 자책하며 뉘우치던  
은정마을사람들

새로 일떠선 마을풍경 사진으로 찍어  
편지와 함께  
우리 장군님께 올리자고  
그러면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저마다 진심을 터놓아라

그러면 우리 장군님  
약속을 지킨 우리들을

잊지 않으실것이라고  
그러면  
온 한해 천리전선을 시찰하시느라  
피곤에 겹쌓인 장군님  
피로와 로고를 순간이나마 풀어드릴것이라고

그날밤  
온 마을이 잠들지 못하였어라  
날이 샅녁까지  
당위원회 사무실에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더라

### 3. 은혜로운 품

그 언제 찬바람 불었던가  
이따금 목덜미로 스며들던  
쌀쌀한 기운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한점 두점 흰눈꽃이 떨어지는데  
야전차는 낮익은 강동마을어귀에 들어서라

오붓한 골짜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의 동음소리  
지나가는 객렬차의 기적소리  
차창에 비친 공장의 우람찬 모습  
《은정원》의 하얀 대리석기둥은  
두팔 벌리며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는듯

기쁘신 마음으로  
새로 일떠선 마을풍경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장군님  
-옛날 저 대박산엔 바람이 어찌나 불었던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하오  
동무들 보시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오늘은  
여기 강동의 로동계급들이  
천지개벽을 가져왔소

얼마나 뜻깊고 숭엄한 사연 안고있는 고장인가  
민족의 시조 단군이 묻혀있어서만 아니여라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뜻이  
저 봉화산 산발마다에 깃들어있고  
우리 수령님 어리실 때의 그 이야기  
전설처럼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있는  
유서깊은 땅!

이 땅에 다락발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이 땅에 기계공업의 전변을 수놓아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 뜨겁게 어려있는 땅!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오는

아름다운 풍경이여!

천천히 달리는 야전차  
문득 소리없이 멎었어라  
마주 향해 자박자박 걸어오는 아이결에 와서

어찌된 일인가  
얼굴에 눈물자욱 어려있고  
아직도 흐느끼며 《분김》을 새기지 못하는듯  
들먹거리는 일곱살가량의 소녀

아마도 응석을 부리려다  
어머니의 꾸지람 들었는지?  
아니면 욕심부리다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는지?

차에서 내리시는 장군님  
아이에게 물으시여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길가에서 우느냐  
학생이 올면 되느냐고  
책가방도 다정히 바로 메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맑은 눈을 굴리다  
밝게 피어나는 웃음  
나어린 마음에서 피어나는 환희의 웃음

그 언제 울었던가싶이  
또랑또랑 울리는 소녀의 인사  
대견하신티 머리를 쓰다듬어주실 때  
허물없이 옷자락에 매여달리며  
무릅없이 터놓는 소녀의 마음

-아버지장군님께서  
새집들이 하는 날에 오시겠다고 하신것을  
우리 할아버지랑 당비서아버지랑  
오시지 말라고 편지를 했다고 해서...

-응 그래  
그래서 분해서 울었던말이야?  
고개를 끄덕이는 소녀를 두손으로 안아주시며  
다시금 웃으시는 장군님

-그래 너의 할아버진 나쁜 할아버지구나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진 영웅할아버지입니다

-그래  
영웅할아버지란말이지...

순간 그이께서는 생각을 더듬어보시여라  
 이 마을에 영웅할아버지라면  
 몇해전 자신께서 공장에 오시었을 때  
 공장일은 절대로 걱정마시라고  
 건강에 류의해달라고  
 그rido 간절하게 말씀올리던  
 그 인상깊은 임덕성영웅이리라

약속을 지켰으니  
 귀중하신 몸  
 바쁘신 몸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공장에 오시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며  
 당비서와 함께 편지를 쓴  
 그 아바이여라

자애에 넘치신 사랑으로  
 소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시여라  
 -애야 걱정말아라  
 이제 네가 학교에 갔다오면  
 아마 장군이 마을에 왔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될게다

그 말씀에  
 처녀애는 너무 좋아  
 인사올리는것도 잊다가  
 저쯤 갔다가 다시 뛰어와 인사하고는  
 달음질쳐라

-보시오  
 동무들, 우리가 오늘 아니왔더라면  
 어쩔번했소  
 자라나는 아이들의 저 밝은 얼굴과  
 빛나는 눈빛들을 흐리게 한다면  
 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소  
 우리가 낮에 밤을 이어  
 전선길을 다니는 목적도 바로  
 아이들과 인민들의 행복을 꽃피워주고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자라나는 아이들의 머리우에  
 한점의 구름이 가리워질세라  
 인민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허전한 자리가  
 있을세라 그rido 세세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품이어

아, 그 사랑의 품  
 얼마나 은혜롭고 따사로운것인가  
 그 품에 이 땅의 천만의 병사들이 안겨있고  
 그 품속에 이 땅의

아이들이 안겨있고  
 온 나라가 안겨있거니  
 수원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생각  
 밀물처럼 차올랐어라

#### 4. 가장 바쁘신 날에

가장 바쁜 날이더라  
 한해에도 마지막 이달은  
 직장은 직장마다  
 공장은 공장마다  
 이해 계획을 결속하고  
 새해 생산준비로 드바빠라

농장은 농장마다  
 한해농사를 마감하고  
 새해농사차비로 분주히 서두르는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설달보름날

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리전선길의 그 로고, 그 피로를 다 미루시고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오신단말인가

우리 장군님의 일본일초에  
 조선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고  
 온 나라 진군속도가 달려있는데

세계 사회주의재생의 숨결이  
 지구우에서 벌어지는 오만가지의 일들을  
 가려내시고 정리해내시고 정립해나가시는  
 그렇듯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건만

우리가 그렇듯 귀중하신  
 장군님의 시간을 축내었으니  
 아, 이 얼마나 면목이 없고  
 의리가 없는가

자책으로 모대기는  
 조명식, 임덕성...  
 강동의 마음

-장군님 저희들의 욕심 지나쳤습니다  
 바쁘신 장군님의 귀중한 시간을 축낸 우리들을...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울먹이는 조명식  
 목이 메여 더는 말하지 못하는 임덕성

마중나온 일꾼들이 드리는 인사에  
환하게 웃으시며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주시면서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

-나에게 가장 바쁜 시간은  
인민을 위한 시간이요  
이것을 떼놓고 나에게  
무슨 바쁜 일이 있겠소  
동무들이 나를 걱정하여  
오지 말라고 하기때문에 기어이 왔소  
나는 동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심부름군이고 시중군일따름이요

아,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장군님 계시거니  
장군님은 우리의 행복  
장군님은 우리 삶의 전부

-동무들이 나를 위하는 그 마음  
그 진정과 순결한 량심 앞에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는  
큰 충격과 고무를 받았소  
하시며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깨끗이 다듬어 쌓은  
눈부신 화강석석축  
마치 틈이 없는 성벽인듯  
강우에 떠있는 멋있는 구름다리  
선녀들이 무지개타고 금방이라도 내릴듯

아늑한 골짜기는  
금강산계곡인가  
산기슭을 따라 줄지어 키다툼하여 나란히 선  
모양고운 살림집들  
솟는해 뜨는달을 마중하여  
이마를 쳐들고 웃는듯  
마치 어느 한 휴양소의 휴양객이런듯

아 행복이 층층이 쌓여서  
행복의 산을 이룬듯  
아름다운 산촌의 그 풍경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환하게 웃으시여라

-당비서동무  
나와 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전선길에서 쌓인 피곤이 다 풀린것 같다시며  
동행한 수원들을 둘러보시여라

-동무들

우리가 전선을 시찰하는 목적도  
인민들의 행복을 꽃피우고 지켜주자는것이  
아니겠소

하시며 구름다리 건너  
올바자 곱게 두른 임덕성의 집앞에 서시여라

-비서동무  
꽃고추맛을 알고있소?  
-예?  
뜻밖의 물으심에 영문을 몰라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조명식

-집집마다 가지고있는 이 러발에  
고추를 심으면 좋을것입니다  
입맛이 당기지 않을 땐  
그 맛이란 별맛입니다

순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하고  
저 무지개구름다리처럼 뚝뚝 떠있는 조명식

또다시 깊이 자책하여라  
아, 내 언제면 당일군의  
구실을 다할수 있으랴  
그래가지고서도  
장군님과 한 약속을 다 지켰다고  
그이께 편지를 올렸으니  
장군님 바라시는 당일군이 되려면  
아직 멀었음을

아, 약속  
세상에 약속이란 말 그 언제부터 생겨났던가  
어찌 약속이란 상대와 미리 정한 다짐만이라  
신념과 량심으로, 의리로 지켜지지 못한  
그것이 무슨 참약속이라

약속이란 상대와 한 언약만이라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전선시찰의 길에서  
하신 마음속의 약속과 약속이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 활짝 꽃피우시려  
약속하고 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약속이여  
여기에 향도의 해빛 눈부신  
조선의 창창한 앞길이 펼쳐져있거니

오, 순간이여  
력사의 순간이여 우리 기억해두자

우리 당 력사에서 12월은  
가장 준엄한 달이었고  
가장 영광넘친 달이었다

설한풍이 휘몰아치던 항일혈전의 그날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나라의 안팎의 정세가 살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천리마시대의 서곡을 펼친  
그때도 12월이었다

오늘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가장 악랄한 고립, 압살, 봉쇄와  
회오리치는 황색바람을 뚫고  
강행군을 다그치고있거니

아 항일대전의 12월로부터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일떠서던 12월의  
그 준엄한 언덕과 언덕을 헤쳐넘어  
우리 당 력사에서 빛나는 승리만을 안아온 12월!

아, 이런 세월을 넘고넘어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서  
승리의 자욱을 힘차게 내디디고있어라

온 조국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이로 모시고 한식술이 되어  
혼연일체의 대가정이 되어  
키다툼하여 찬란한 미래에로 줄달음쳐가는  
마음과 마음이어

이 나라 모든 마음과 량심들이  
혼연일체의 금성철벽을  
성새로 높이높이 쌓고있어라  
이 성벽을 무너뜨릴자  
이 세상에 없어라

×

이 나라의 평범한고장 강동  
여기에서 뻗어간  
이 나라 산발들과 무성한 숲들은  
해빛넘치는 푸른 하늘밑에서  
숨쉬여 설레여라

이 땅 그 어디에서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옹위하는  
무적필승의 대오  
오중흠7련대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룬 내 조국이어

우리 장군님 언제나 인민들을 생각하시고  
인민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장군님 계시여  
투지도 만만하고 배심도 든든하거니  
이 혼연일체의 녀으로  
꼭 덮인 나의 조국이어

그 무엇으로 갈라놓을수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이 혼연일체의 성새속에서  
아 주체의 나의 조국은  
금성철벽의 요새로 높이 솟았어라

## 명언해설

###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인간의 기쁨가운데서 가장 크고 값높은 기쁨은 바라던것을 얻거나 행복을 누리는데보다 그것을 창조하는데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누구나 다 바라던것을 얻거나 행복을 누리게 될 때 기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것, 행복은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지거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피라는 노력을 들여 창조한 결과이다. 창조야말로 사람들이 바라

### 김정일

던것을 실현시켜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다. 창조를 떠나서 향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원래 창조의 기쁨을 느끼는것은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투쟁하고 창조하는것보다 더 크고 고상한 기쁨은 없는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창조하는 투쟁속에서 기쁨을 찾고 삶을 빛내어나가야 한다.



# 백두는 말한다

신흥국

깨끗한 흰눈, 천지의 푸른물  
주저와 동요와 비겁을 용서치 않는  
설악의 천둥소리와 노호하는 폭풍  
슬기와 예지와 령감을 부르는  
령룡한 무지개와 자옥한 안개자락...

진정 그것을 다 닳는다는것은  
불가능이었어라 인간에게는  
수수천년을 솟아 곱힘없는  
백두의 웅지를 다 받들수 없어  
인간의 고고성은 여기에 울리지 못했던가

허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만것을  
백두에 오직 한분이 태어나시였어라  
력사의 속망을 안으시고  
탄생의 고고성을 봄우뢰로 터치신분

천고의 밀림이 파도쳐설레이고  
하늘에선 억만송이 눈꽃들이  
축복의 꽃보라로 뿌려졌도다  
소백수 맑은 물은 삼천리강산에  
서리꽃을 피우며 흐르고흘렀도다

오, 어찌 백두의 열광의 축복이 없이  
위대한 생이  
그대의 가슴에 첫자옥 짊을수 있었으랴  
그이는 불붙는 열정과 불굴의 노력으로  
위대한 정신을 창조하셨고  
티없는 사랑과 굳세인 믿음으로  
이 땅의 길들을 빠짐없이 걸으시며  
인민을 만나시고 인민을 보살폈나니  
서리치는 담력과 배짱 앞에  
전률한 무리들은 누구였던가

그이는  
천년만년을 앞지르는 선견지명으로  
인민의 세상을 력사에 우뚝 받들어올리시고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다져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태양이 되셨나니  
그이를 우러러 인민이 살고  
그이를 따라 우리 혁명의 기관차는  
오늘도 간이역이 없이 목적지로 폭풍치며  
질주하노라

그이만 계시면  
만사가 다 잘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인민은 부르노라  
력사는 받드노라  
그이는 회세의 위인 **김정일**장군!  
하늘이 내신 백두산형의 장군!

그렇노라 장군은  
백두를 닳은 백두의 장군  
허나 장군을 높이 받들어 백두는  
인민의 마음속에  
인류의 가슴속에  
태양의 산으로 빛나고  
혁명의 성지로 빛발치도다  
지닌 뜻과 영광은 하늘에 닿아  
해와 별에 닿아  
백두산은 세계의 백두산으로 발돋움하였나니

함박눈이 송이송이 춤추며 내리던 그날  
백두산장군은 오시여  
귀틀집사립문 트락에 들어서시며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겸허히 말씀하실 때  
격정에 잠긴 백두는  
그만에야 가슴풀고 웨쳤어라  
-장군이시여  
옛적부터 명산의 명인이라 하였지만  
명인은 명산을 키웠도다  
나를 키운 유일무이의 태양성이시여

##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위대한 령도자의 형상

김경희

백두의 첫기슭에서 닦을 올린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력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향하여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받들어 모신 오늘의 력사적시대는 우리 작가들에게 주체혁명위업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하는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작가, 혁명의 나팔수들인 우리 작가들은 충효의 열정을 뜨겁게 불태우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형상을 창조하는 새 시대의 문학은 그이의 심오한 철학세계를 반영하는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

문학발전의 새로운 높이는 무엇보다도 그 문학이 담고있는 철학세계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문학이 무엇보다먼저 관심하여야 할 문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문제가 위대한 령도자의 심오하고 원대한 철학세계를 밝혀내는 문제이다.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력사의 새 시대를 개척해나가실 위대한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며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에 의하여 우리 시대의 본질적면모와 그 특징이 심오히 밝혀지고있으며 그 곧바른 진로가 명백히 제시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빛나게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가시는 철학사상의 대가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구절구절마다에는 심오한 철학사상이 담겨져있으며 장군님의 사색과 활동 전과정은 특출한 철학적세계로 빛나고있다. 그이의 심오한 철학세계를 반영한 문학을 창조하는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시대 문학의 참된

가치가 있으며 본질적특징이 있다. 또한 여기에 우리 시대문학을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학으로 되게 하는 근본담보가 있다.

문학작품에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을 반영하며 철학성을 구현하는 근본방도는 생활의 심오한 본질을 체현한 무게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형상으로 꽃피우는데 있다. 철학적으로 무게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은 생활반영의 리성적심도를 높이며 위인의 비범하고 특출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시대와 력사의 향도자, 창조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에 맞게 그려낼수 있는 근본방도이다.

문학작품의 종자는 시대를 주도하는 지도사상, 지도리념의 생활적인 구현이다. 시대를 향도하는 철학적리념으로 구체적인 생활을 조명할 때 철학적인 종자를 발견할수 있으며 철학적인 종자를 발견하였을 때 시대사상을 예술적으로 구현할수 있다. 작가가 의의있는 종자를 발견하였다는것은 시대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을 지침으로, 빛발로 삼아 생활과 투쟁의 새로운 의미, 본질적 의미를 독창적으로 밝혀내었다는것을 말한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가치있는 종자를 심고 그것을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꽃피움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 창조에서 빛나는 폐지들을 수놓아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룩하신 품모를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을 줄거리로 하여 품위있게 형상한 총서형식의 장편소설들은 물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생활단면을 통하여 장군님의 위인상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는 작품들에서도 철학적인 알맹이를 발견적으로 심고 가꾸기 위한 작가적노력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인 《새벽노을》(조선문학 1997. 2호 리희남), 《인민의 이름으로》(조선문학 1996. 10호 김형지)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단편소설 《새벽노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이킬수 없는 상실의 아픔속에 계시던 주체83년 8월 몸소 해외동포 손원태선생의 여든돛생일연회를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사실을 소재로 하여 생의 아름다움과 그 영원성의 의미를 새롭게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학적사색을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은 또한 그이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혁명의 앞길에 새로운 새벽노을, 보다 휘황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주고있다는 뜻깊은 사상을 무게있게 밝혀내고있다.

소설이 그려보여주고있는 생활은 우리 독자들

에게 있어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작가가 그 생활이 체현하고있는 심오한 의미를 우리 시대의 높이에서 사색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풍모를 손색없이 밝혀냄으로써 만사람의 지성을 새롭게 깨우치고 그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릴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마디 말씀, 한갈피의 사색, 하나의 활동에도 민족과 인류의 운명이 좌우되는 심오한 사상이 있고 수억만년을 두고 모색해온 문제에 해답을 주는 심오하고 풍만한 리서적탐구가 집약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모든 크고작은 작품들은 철학적심도와 무게가 있는 종자를 잡고 새로운 철학세계를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품들중에는 생활소재를 현상적으로 옮겨놓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것들이 적지 않다. 생활을 외부적으로, 현상적으로밖에 보지 못하여 그 의미를 상식적인것 이상으로 밝혀내지 못하며 형상 수단과 수법을 생활진행과정의 소개수단으로밖에 써먹지 못하는 작품들이 아직도 있다. 이런 작품들에는 레외없이 철학적인 알맹이가 없으며 새로운 철학세계가 없다.

최근에 발표된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주제 단편소설들중에서 적지 않은 작품들이 덕성실기수준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한것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 일군들이 합의한 공장설계와 시공정형을 료해하시다가 인민들의 주택지구에 미칠 영향을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시였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 독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다가 녀성해안포병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이 담긴 약크림을 보내주시였다는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새로 달고 생활환경을 묘사적인 언어문장으로 소개한다고 하여 작품이 되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에 바쳐지는 문학이 심오하고 무게있는 철학적알맹이를 심고 가꾸기 위하여서는 주체혁명의 새로운 높이에서 시대와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고들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철학적인 사색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끊임없이 미래에로 미래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창조적인 사색, 정지와 담보를 모르는 사색이다. 장군님께서는 력사발전의 첨단에 서시여 그 전진에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새라새로운 사상과 전략전술들을 밝히신다.

우리의 일부 작품들이 새로운 철학세계를 펼치지 못하는것은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의도를 제때에 자기의것으로 만들지 못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이미 상식으로 된 지나간 시기의 견해, 관점, 안목으로 생활을 재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에는 새로운 철학세계를 발견할수 없다.

시대를 향도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학적사색의 속도, 그 폭과 높이에 자신을 따라세우며 그이께서 밝히시는 위대한 시상을 탐구의 등불로 삼아 시대를 투시할 때만이 철학적인 무게가 있는 새로운 종자를 발견할수 있으며 자기의 작품에 새로운 철학세계를 펼칠수 있다.

작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작품들에서 새로운 철학세계를 펼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시대적의미를 안고있는 생활을 볼줄 알아야 하며 거기에서 격동적이며 전환적인 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줄 알아야 한다.

작가들은 탐구적인 안목을 바로 오늘의 현실에 견주어야 하며 거기에서 새 시대의 막을수 없는 전진의 새로운 싹을 보아야 하며 나날이 커가는 거세찬 동음을 들을줄 알아야 한다.

오늘의 현실에서 어제와 오늘날 보고 미래를 볼줄 모르는 작가, 미래를 심고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풍모를 보아내지 못하는 작가는 어느때에 가서도 새 시대의 문학을 창조해낼수 없다.

우리의 작품들은 마땅히 오늘의 현실을 놓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격조높이, 열정적으로 구가하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은 웅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운 로작을 집필하여 내놓으신 사실을 여러편의 소설들에서 다루고있으나 그것을 새 시대의 도래와 그 전진의 추동력과 련관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현실인식, 불면불휴의 로고, 헌신성과만 결부시키고있다. 사회주의재생운동을 형상하면서도 장군님의 로작을 학습하고 저들의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머무르고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는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반혁명과의 무자비한 결산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풀먹는 짐승을 많이 기르며 버섯재배를 잘하기 위한 사업, 룡구와 수영을 장려하는 사업 등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관철으로 호소하는 모든 사업들에 새 시대의 숨결이 깃들어있고 보다 휘황한 래일이 솟고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의 우리 당 정책과 우리 인민의 실천투쟁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시대적문제를 파악할 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새 시대를 정당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시대적높이에서 형상할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형상을 창조하는 새 시대의 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풍모를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통하여 다면적으로

폭넓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의 비범한 풍모를 생활을 통하여 폭넓게 형상하는것은 수령형상문학의 본성적 요구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알고 장군님을 따라배워 사색도 실천도 장군님처럼 하게 될 때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완성된다.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이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모든 면에서 위대하고 비범하고 숭고하다. 인류력사는 그 어느때에도 우리의 장군님처럼 사상에서도 령도에서도 인품에서도 완전무결한 위인을 모셔본 일이 없다. 장군님의 위대성을 어느 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밝혀보여주며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풍부한 생활적사실들을 통하여 감동깊게 형상하는것은 인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념원이다.

새 시대의 문학이 참으로 새로운것, 창조적인것으로 되자면 시대를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풍모를 새로운 폭과 깊이로써 풍만하게 형상해내야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풍만하게 폭넓게 형상하는 여기에 우리 시대 문학전반을 생활이 있고 성격이 있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풍부한 생활을 통하여 다면적으로 형상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수 있으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설정하는것이다.

위인의 비범한 풍모는 인간관계속에서 나타나며 위인의 숭고한 생활도 인간관계속에서 펼쳐진다.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생활도 성격도 생각할수 없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의 속성, 그 위대성은 태양자체에 대한 고립적인 연구만으로써는 이해할수 없다. 태양의 위대성과 그 무궁한 은혜는 태양의 빛발이 가닿는 우주만물과의 관계속에서만 충분히 인식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의 위인적풍모를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살았으며 살게 될 수억만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할 때, 세계의 각이한 나라와 민족과 정당과 사회적집단의 인물들과의 다양한 관계속에서 고찰할 때에만 옳바로 밝혀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훌륭히 모신 성과작들의 경험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단편소설 《인민의 이름으로》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할데 대한 정령이 아버지수령님의 비준을 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발표되게 된 력사적사실의 숭고한 의미를 감동깊이 형상해낼수 있는것은 장군님의 풍모를 직접 체험하는 인물을 부주적으로 설정하였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장군님의 직접적인 기본상대인물로 부주적급을 설정한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소

설은 형상생리의 요구에 맞게 이 문제를 대담하게 해결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생활을 원만히 그리고 실감있게 그려낼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상대인물,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탐구하지 못하면 작품의 형상이 류형화, 도식화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이 기정사실화, 격식화된다.

위대한 장군님과 등장인물의 관계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생활적으로 구체화, 다양화되어야 한다. 각이한 사상의식수준과 서로 다른 경력, 직업, 성미, 기질을 가진 인물들로 상대인물, 시점적인 인물들이 설정되면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형상을 폭넓게, 감동깊게 형상할수 있다.

이와 함께 등장인물들이 형상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의 역할을 다양화,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등장인물이 너무나도 단순한 목적자, 전달자로 되고있는것이 문제이다. 수동적이며 객관적인 목적자는 위인의 풍모를 깊이 알수 없으며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감동적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인물들은 위인적풍모의 적극적인 체험자로 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체험자로 된다는것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독자적인 인생관과 신념, 의지와 지향, 감정과 정서를 가진 인간으로서 자기의 사회적리상을 실현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과정에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새롭게 알고 완성하며 자기 활동의 방향각을 옳바로 세우며 생활과 투쟁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인물을 순수 실무적인 전달자의 관계에서 설정하여서는 의의가 없다.

우리 작품들에서 실무적인 전달자의 인물설정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바 하나는 경제기술적문제에서 주관적인 견해를 가졌다가 고치는 인물들의 설정이며 다른 하나는 장군님과 관련한 이야기를 엮어나가기 위하여 등장하기도 하고 퇴장하기도 하는 인물의 설정이다. 전자는 독자들이 보아도 뻔한 문제를 모르고있다가 장군님의 가르침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깨닫는 인물로서 대체로 지성이 느껴지지 않는 인물들이며 후자는 이름 석자는 있으나 아무런 개성도 없는 인물들이다. 작품들은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감격과 경탄과 자책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비범한 풍모를 돋구는데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며 독자들의 감동도 자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과 운명적으로 련결되어있으면서 개성적으로, 독자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며 그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간들을 설정함으로써만 우리 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창조할수 있을것이며 독창성있는 형상의 세계를 끊임없이



개척해나갈수 있을것이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들어선 우리 문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하고 비범한 내면세계를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위인의 위대성은 무엇보다 사상정신세계의 위대성, 내면세계의 위대성에 있다. 꼭질많은 인류사의 교훈을 속속들이 다 헤아리시고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미래사회를 설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옹바로 그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을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더 깊이 알고저 하는것은 장군님 한분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들은 장군님의 생각에서 오늘의 격변하는 현실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려고 하며 자기들의 래일의 운명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싶어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본질적특성인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관계를 옹게 밝히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사회의 근본특징은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과 인민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흠모와 존경, 기대와 신뢰, 사랑과 헌신은 모두 장군님의 마음에 대한 혈연적인 리해와 공감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문학이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낼수록 장군님과 우리 인민은 혈육의 정으로 더욱 가까와질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체험을 토로하신 말씀은 지금도 만사람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던 때 몸소 시운전하는 궤도전차에 오르신 장군님을 알아본 수도시민들은 일시에 환호성을 터치며 물밀듯이 달려왔다. 크나큰 격동에 휩싸인 그들은 울고웃으며 두손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궤도전차를 따라 그냥그냥 달리였다.

깊은 감동에 휩싸이시여 환호하는 그들에게 계속 손을 흔들어 답례를 보내신 장군님께서는 후에 그들의 눈빛에서 큰 감동을 받으시였다고, 그들에게 먹을것도 제대로 못먹이었는데 그렇게 환호하며 따라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것처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서 끝까지 혁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였다고 하시며 목메어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이시며 속마음이다. 우리 작가들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심정, 이러한 내면세계를 볼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진실하게 묘사할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의 내면세계형상에서는 무엇보다 장군님의 비범한 사색의 세계를 잘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백전백승하시는 혁명활동의 비결, 그 원천은 비범한 사색에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사색가, 철학가형의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혁명의 하루하루는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정력적인 사색으로 일관되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은 아득한 태고로부터 공산주의 먼 미래까지, 한 평범한 인간의 생활로부터 민족과 인류의 운명까지 순간에 헤아리시며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는 무한대한 폭과 눈부신 속도를 가진 사색이며 복잡하게 얽히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오만가지 현상의 갈피들을 단숨에 갈라내시며 그 속내를 밝혀내시는 가장 심오하고 예리하며 투철한 사색이다.

우리 문학은 장군님의 비범한 사색을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그이의 빛나는 예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구체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하며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의 비결을 심도있게 밝혀내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세계형상에서는 웃음도 많으시고 눈물도 많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정세계, 감정정서세계를 잘 그리는데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 소설들에서는 최근에 위대한 장군님의 정서적체험세계를 그리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보이고 있다.

단편소설 《어머니의 노래》는 생활에 발을 붙이고 학창시절의 동무와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체험하시는 장군님의 사랑, 동정, 슬픔, 분격 등의 감정을 색깔이 있고 내용있게 잘 그리고있다. 장군님의 정서적체험세계를 그리는 어머니님, 이 세상 모든 귀중한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노래의 창작과정과 결부시켜 굴곡있고 변화있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을 눈물겨운 감동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숭고한 정서를 받아안을수 있게 한것은 이 작품의 남다른 성과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정서세계는 단편소설 《새벽노을》에서도 품위있게 잘 형상되고있다. 장군님께서는 그림 《송학도》를 보시며 《내가 보건대 달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장수가 달밤을 지향한다는게 좀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달보다 새벽노을이 더 의미심장할것 같습니다. 벼차구, 아름답구...》라고 말씀하시며 그림을 고쳐그리도록 하신다. 소설은 이와 같이 구체적인 계기들에서 장군님의 심중에 환기되는 감정의 실마리들을 생생하게 다루어 보여주고있으며 작품 전반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영생축원의 숭고한 감정이 세차게 굽이치게 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내심세계를 형상함에 있어서 우리 문학은 오늘의 현실과 관련되어있는 장군님의 사색과 정서와 체험을 그리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새 시대를 개척하시며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에 받아안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 정서를 깊이있게 밝혀내야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하는 우리 문학이 자기의 참다운 본분을 다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형상하는데서는 심리묘사의 수단과 수법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근래에 와서 우리 문학은 위인의 내면세계묘사에서 3자적인 외적관찰과 직관적인 전달에 머무르고있던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심리분석, 주정토로, 환상, 회상, 꿈, 외형묘사, 초상묘사, 환경묘사 등 보다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수단, 수법을 활발히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며 더욱 발전, 세련시켜야 할 측면이다. 우리는 이미 있던 수단, 수법들의 형상적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킬뿐아니라 위대한 인간의 비범한 내면세계를 형상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수법과 기교들을 적극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주체혁명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한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형상하는 문학은 환희와 랑만,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는 문학, 밝고 희망차고 락천적이며 약동적인 인간과 생활이 살아숨쉬는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

환희와 랑만, 열정과 기백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궁지와 영광, 신심과 락관에 넘쳐 비약의 나래를 펴는 새 시대의 근본특징이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창조되던 1930년대가 그러하였으며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해방된 강산에 울려 퍼지던 새 조국 건설의 시기가 그러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누리를 진감하는 오늘의 현실은 바로 그때처럼 만사람의 심장을 환희와 랑만으로 설레게 하고 열정과 기백으로 높뛰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모시는 문학은 이러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밝고 희망찬 생활, 락천적이며 약동적인 성격을 그려냄으로써 우리 시대 문학의 정서적색갈을 새로운 방향으로 힘있게 주도하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문학은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할 과제를 안고있다.

우리의 문학은 아직도 회고하고 추억하고 총화하고 자책하는 인간형상을 그리는데만 머물러있다. 물론 그러한 형상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전진과 비약을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의 문학은 아름답게 공상하고 희망차게 설계하며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명랑하게 락관하는 형상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풍만하게 창조해야 한다.

그러자면 전반적으로 생활을 밝게 그려야 한다. 생활도 환희롭고 희망찬것으로, 성격도 명랑하고 락천적인것으로 선택하고 묘사하며 휘황한 목표와 빛나는 성공을 내다보는 인간의 형상을 기본으로 그려내야 한다.

이와 함께 형상의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 형상의 속도감을 높이는것은 정적인것을 싫어하고 약동적이며 전진적인것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미에도 맞는것이며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시대의 특징에도 맞는것이다.

구성과 묘사, 언어와 문장에서도 밝고 열정적인 양상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향에서 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수억만년 흘러온 인류의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자주위업이 완성될 새 시대의 새벽을 맞이하고있다. 영광찬란한 김정일시대는 우리 작가들에게 진군의 기발을 더 높이 올리고 승리의 행진곡을 더 세차게 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창조에서부터 새 시대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문학발전의 새로운 양양을 안아오자.

## 그 영상 우러르며

제이 은그위라

동트는 이른아침에도  
당신의 친절한 그 미소 그리고  
별들이 반짝이는 깊은 밤에도  
당신의 자애론 그 영상 그러롭니다

우리 비록 당신의 따뜻한 품 멀리 떨어졌어도  
그 품을 그리는 마음 심장에 차넘칩니다  
어느때 어디서나 당신을 우러르는  
깊고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속에

당신의 그 영상 안고 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빛내여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 어떤 설한품 몰아쳐도  
대를 이어 당신께 충성할것을  
우리는 심장으로 맹세합니다

(필자는 잠비아사람임)



## 2월과 함께 더욱 간절해지는 인민의 소원

이 땅에 2월이 왔다.

백두광명성을 맞이한 력사의 환호성이 백두밀림을 진감하던 그날로부터 천여섯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며 찾아온 2월이다.

승업한 감정과 불같은 충정, 뜨거운 흙모의 마음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2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감격을 안고 맞이하는 올해의 2월.

이 시각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0돐을 맞으시며 손수 지으신 불멸의 송시를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금 되새겨본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르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싯둑인가  
문무총호 겸비하니 모두가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송시의 구절구절을 읊어가느라하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백두산마루에 솟아 빛을 뿌리는 정일봉의 정기와 기상, 푸르려 굽이치는 소백수의 호호탕탕한 기백으로 력사의 새 시대, 인간중심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이 황홀하게 안겨온다.

인류지성의 절정에서 찬란한 빛을 뿌리는 비범한 예지, 인민을 이끄시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탁월한 령도력, 만민의 가슴을 뜨겁게 덥혀주는 뜨거운 인간애와 광복의 덕망, 이것은 오직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위대하고도 특출한 자질이고 품모이다.

일찌기 해쑈는 룡남산마루에서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신 **김정일** 장군님.

그 맹세를 지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 어린 **《이민위천》**을 그대로 자신의 좌우명으로 지니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 로고가 어려있는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인민을 위한 사랑의 천만리길을 걸으시며 이 땅우에 아직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민의 락원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끝없이 이어만지는 그 사랑의 길에서 우리 장

군님 한해에 단 하루밖에 없는 자신의 생신날마저 평상시와 같은 수수한 잠바옷으로 인민을 위한 로고를 바쳐가고계시거니.

생각해보면 생일날에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인 생활풍속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위인들이나 당, 국가 령도자들에게 있어서도 례외로 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는것을 하나의 락으로 여기는것 이 례상사이다.

하지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도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즐겁게 보내셔야 할 우리 장군님이시건만, 생신날 하루만이라도 그이께서 편히 쉬시옵기를 인민은 바라고 또 바라건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생신날을 혁명의 평범한 하루로 맞고보내시며 더욱 정력적인 로고를 바쳐가고계시거니.

우리 돌이켜보자.

지금으로부터 16년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그날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그해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그이를 우러러 다함없는 경모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있었다.

하지만 이날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사업속에 맞으시였다.

간밤을 꼬박 새우시며 사업하신 속에서 2월 16일 생신날 아침을 맞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곳으로 가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시였다.

그때 승용차에 오르시려는 그이께 문을 열어드리던 한 일군은 그만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말을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찌나 목이 쉬였는지 그 짧은 인사말을 하시는데도 매우 고통스러워하시였던것이다.

일군은 그만 목이 짝 메여올랐다.

생신날마저도 온 밤을 꼬박 새우시며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속에서 맞으셨으니 왜 그러하지 않으랴.

일군은 격한 심정으로 말씀드렸다.

《너무 무리하십니다. 지난밤에도 꼬박 새우셨으니 목이 쉬지 않으실수 있습니까!》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히려 수령님께서 나의 목이 쉰것을 아시면 또 걱정하시겠는

네 동무가 나를 좀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오늘 수령님앞에서 될수록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령님께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보고드리는데 있어서는 철칙으로 되어야 하지만 나의 목이 쉬었다는것을 아시면 수령님께서 마음쓰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도 내가 밤을 새우며 일해서 목이 쉬었다는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동서고금 그 어느 위인의 생신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신 자리에서 자신의 피로를 감추시기 위하여 수령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곳에 서시여 될수록 말씀하기를 삼가하시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모든것을 다 헤아려보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목이 몹시 쉬었다고, 목이 선걸 보니 또 밤을 새운것 같다고 하시며 못내 걱정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심려가 이렇듯 깊으시였건만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의사당을 나서시는 길로 곧장 가신곳은 과연 어디였던가.

그것은 침실이 아니라 **김일성**경기장 건설장이였다.

일년 삼백예순다섯날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싶으시여 생신날마저도 인민을 찾아가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사람들이여,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생신날들을 늘 이렇게 맞고보내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민의 복무자이시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 생전에 장군님께서 밤을 새우며 일하지 마시기를 그토록 바라고바라시였건만 우리 장군님 계시는 당중앙창가에는 생신날마저도 불이 꺼진적 없거니, 수십년의 2월 16일이 바로 그렇게 흘러갔다.

정녕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생신날은 보통날과 다름없는 혁명과 투쟁의 하루, 위대한 사색과 정력적인 활동의 하루, 인민위해 바치시는 위대한 사랑과 은정의 하루이다.

뜻깊은 생신날들마다에 우리 장군님 수놓으신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 우리 천만권의 책으로인들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탄생일이 다가오면 언제나 먼저 인민들을 생각하시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자신의 탄생일에 그 어떤 기념행사를 하는것도

엄격히 막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비준하신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할데 대한 정령도 오래동안 물어두시며 오로지 수령님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이 세상 만물에 소생의 빛과 열을 주는 태양과도 같이 탄생하시여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 참으로 그이는 우리 인민의 태양, 온 인류의 태양, 우리 행성의 태양이시다.

우리는 해마다 2월이 오면 백두광명성 솟아오른 정일봉을 생각한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안고 우리 민족의 무거운 운명과 전세계 인류의 무궁한 미래를 안고 조선의 하늘가, 세계의 창공에 거연히 솟아있는 정일봉.

백두산마루에 솟아있는 정일봉,

사상과 철학에서 최고높이, 령도력에서 최고높이, 인덕과 덕망에서도 최고높이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신념과 의지의 최고화신이시고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 어려있는 조선의 제일봉, 세계의 제일봉-정일봉.

백두산의 높이는 조선의 높이이다. 자연계에서의 백두산의 높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정일봉이 솟아 백두산의 높이, 조선의 높이는 얼마나 더 높아졌는가.

백두광명성 솟아오른 정일봉의 2월,

그 2월이 있어 만경대의 해돋이는 정일봉의 해돋이로 이어져 영원한 빛을 뿌리고 우리 조국은 언제나 따스한 봄날이거니.

오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봄날을 가져다준 정일봉에서 더욱 부강번영할 내 나라, 내조국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미래를 락관하며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해마다 2월이 오면 더욱 간절해지는 우리의 소원, 하건만 그 언제 한번 이루어져본적 없는 우리의 소원,

올해에도 우리는 그 간절한 소원을 삼가 2월에 엮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생신날만이라도 부디 편히 쉬어주시시오.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인민의 소원입니다, 간절한 념원입니다.

본사기자 최용호

# 나는 금지높은 세대

김병두

나는 조선사람  
영웅도 아니고  
소문난 사람도 아닌  
그저 보통사람이다

세월은 흘러흘러  
이제는 내 나이 70고령  
암흑과 광명의 두 시대를 보내며  
한생을 살만큼 살아왔다

나는 바로 이 땅에서  
조국에 개선했던 수령님 우러러  
나라찾은 기쁨의 눈물  
처음으로 터친 세대  
젊으신 수령님 초상화를  
새로 지은 내 집 하얀 벽에 높이 모시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도 제일먼저 부른 세대

수령님 안아오신 조국광복은  
우리 글 익히던 칠판앞에  
베짱배가 나를 내세워주었고  
교대고동 울리는 공장정문의 숙보관에  
나의 사진을 반듯이 붙여주었나니  
첫 생활비로  
어머니에게 옷감을 사드리던  
그런 기쁨의 날과 날을 이어  
오늘에도 치달아오른 인간행복의 분수령우에서  
나의 삶이 새겨진 그 년대들을 더듬어보노라

하늘땅에 불이 달린 시련의 나날  
수령님 전선길에 서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승리의 언덕에 높이 선  
피흘린 영웅세대의 그 한사람으로 될수 있었으랴  
우리 수령님  
용해장의 재더미를 헤쳐가지 않으셨다면  
밤을 바치며 락원을 일떠세운  
위훈에 찬 그 세대의 한사람으로 될수 있었으랴

빛나는 위훈으로 이름을 떨친적 없어도  
은혜로운 이 땅에서  
나의 재간껏 지혜와 노력을 바치며  
그저 성실히 살아왔을뿐  
허나 그것으로써도  
나의 생을 자부할수 있나니

추억하노라  
로동자문화회관을 들었다놓던 북소리  
제 피를 바치려 달려가던 병원의 긴 복도를  
다시 안아보노라  
작업반 벽에 주련이 걸려있던 우승기들이며  
지금도 장농속에 간직하고있는  
천리마휘장이며 메달들을

수령님 주신 넋과 심장을 지녀  
남을 쳐다봄도 없이  
제힘으로 창조물을 일떠세우며  
빛나는 년대와 년대를 넘어온 세대  
사회주의보루를 다져가며  
조선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대와 력사 앞에 대답한 세대

그렇다 수령님 그 품속에  
운명의 조향륜을 내 손에 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고  
사람이 사는 인간의 참세상을 알았더라  
5천년의 년륜을 새긴 민족사에  
처음으로 조선사람 그 이름 만방에 빛내며  
처음으로 당당하게 가슴펴고 살았더라

황금이 옥좌에 앉은 세상에서야  
기약할수 없는 인생살이로  
사람들은 서글픈 한생을 마치건만  
나는 이 땅에 단 한번의 생으로 태어나  
천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삶의 존엄을

떨칠수 있었고 누러볼수 있었나니

나이들어 이제야 철이 든듯  
이삭이 설레는 들판을 보아도  
밝은 창문이 열리는 거리를 걸어도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려와  
절로 눈시울이 젖어오고  
곱절로 목이 메여와라

진정 **김일성** 동지 그이는  
내 조국의 만년초석을 놓아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인간세상을 개척할 사상과 방법의 철학을  
내놓으신  
천출위인을 떠나  
조선사람 그 이름을 말할수 있으랴  
조선사람 그 존엄을 시위할수 있으랴

땅이 무너지는듯싶었던 그 슬픔도  
수령님을 잃어 알게 된 우리 세대  
하늘에 닿는 수령복도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알게 된 우리 세대

나이가 많아  
머리에 흰서리 내려  
첫세대가 아니여라  
지난날 나라없던 암흑속에 살아보았기에  
대를 이어 누려가는 수령복이  
다음대에 넘겨줄 가장 귀중한 재부임을  
가슴깊이 절감한 우린 첫세대

영원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  
우리 세대의 거세찬 숨결은  
후대들의 가슴속에 맥맥히 굽이치리라  
천만년 미래의 하늘가에  
우리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우리 세대의 삶은 별처럼 빛나리라

세월은 흘러  
머리에 짙어지는 백발과 함께  
내 이제는 한생을 살만큼 살아왔다  
하나 이 땅 아닌 다른곳에서  
나의 생이 몇백년으로 다시 시작된대도  
수령님 품에서 맞고 보낸 행복했던 날과 달과는  
절대로 아니 바꿀  
아,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한  
궁지높은 세대다!

## 가사

# 영원한 충신의 모습

리정택

항일의 혈전만리 머나먼 길에  
조선의 사령부를 지키여오신  
빨찌산시절의 그 모습  
아 우리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건국의 초행길 머나먼 길에  
수령님 높이신 뜻 받들어오신

해방산기슭의 그 모습  
아 우리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해와 달 흘러서 세월은 가도  
언제나 마음속에 계시는  
영원한 충신의 그 모습  
아 우리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 혁명문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주시려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주체문학은 귀중한 사상적무기로, 힘있는 투쟁의 노래로 되고있다.

그토록 우리의 주체문학의 대화원이 날이 갈수록 만발하는것은 바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뿌리를 박고 풍만한 자양분을 받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사상의 심오성과 예술형상의 완벽성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시원으로 되며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내어나가도록 크나큰 로고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발기하시고 그 실천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그 실천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4.15문학창작단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주체61년 12월 15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 심의본을 친히 읽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어려운 일인데 4.15문학창작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옹계 파악하고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장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형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만일 소설의 특성을 옹계 살리면서 옮기지 않는다면 원작의 심오한 사상이 예술적으로 옹계 해명될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설에서만아니라 영화나 가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은 소설로서 읽을 맛이 있고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에 옮기는데서 창작가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밖에도 소설심의본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가시며 그 수정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일부 장면들을 좀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영화나 가극에서 감동을 준 장면들이 소설에서도 감동을 주게 할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토벌》을 당한 다음 별제마을을 찾아갈 때 내가에서 원남이가 갑순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나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올 때 발구를 타고오는 장면, 갑순이가 죽은 을남이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 같은데서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소설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만 하여도 가극에서는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와 같은 노래가 심금을 울려주니 감동이 크지만 소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더우기 이런 장면들이 이미 대중에게 강한 인상으로 고착되었기때문에 소설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감동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에서는 소설의 특성에 맞게 더 전개할것은 전개하면서 뒤생활을 잘 파악 하겠다고 가르쳐주심으로써 소설에서도 감동을 줄수 있게 형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뒤생활을 깊이 팔수 있고 끝없이 전개해나갈수 있는 여기에 소설의 특성이 있는것이며 사실과 사건을 립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는 바로 여기에 소설의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작가들은 이것을 놓치고 영화나 가극에서 받았던 화폭들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머물러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의 특성에 맞게 더 전개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부의 2편 첫부분은 더 전개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1부의 1편과 2편사이가 영화에서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자막 하나로 비약시켰는데 장편소설에서도 역시 그렇게 비약시켜놓으니 너무 영화적구성을 따른 감이 있고

시대적감정이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는 2편 첫머리에 시대적변천과 항일무장투쟁의 발전을 개괄해주든지 어머니의 생활과 사상감정의 변화 같은것을 그려주든지 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다 아는 이야기지만 소설로서 새롭게 읽을 맛이 있고 감동을 줄수 있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것은 소설창작에서 작가들이 창작가로서의 자세와 립장을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준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심의본에서 왜놈들의 손에 남편을 잃고 별제마을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리세계를 생활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한것을 헤아려보시고 생활과 밀착되지 않은 부분을 고칠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범벅을 먹는 원남과 갑순의 성격 습관상 차이를 강조해주려던 나머지 작가가 자기 말을 많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범벅을 먹는 남매의 모습, 행동 그리고 그때의 어머니의 체험세계같은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해야 한다고 하시며 문학작품이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생활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죽음과 같은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밖에도 소설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어머니의 형상을 깊이 파고들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어 정확하지 못한 표현과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깨우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우리 혁명문학의 전통을 더욱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크나큰 로고가 헤아려져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새로운 흥분과 창작적열정에 휩싸인 작가들은 한장면한장면 수정해나갔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수정작업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마침내 순박하면서도 강의한 주인공어머니의 성격과 사상적성장과정을 진실하게 그리게 되었으며 소설의 특성에 맞게 원작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빛나게 형상하는데 성공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2년 2월 17일 새롭게 수정한 장편소설 《피바다》를 보시고 잘 고쳤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위업이 성과적으로 이룩됨으로써 혁명문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가게 되었다.

## 금강문 열어놓고

오피천

천하명산 금강길에 오르신다고

장군님 오신다고

금강문 열어놓고 금강산이 기다렸네

런주담 팔담은 옥구슬 굴리고

옥류동 천선대는 무지개 펼치고

하건만

비로봉이 구름띠로 젖은 얼굴 닦으며 알리는

소식

월비산발전소 건설장 찾아 장군님 지나셨다고

구룡연이 서운한 가슴 들먹이며 전해주는 소식

이른새벽 아슬한 언제우에 장군님 오르셨다고

백이라 백년을 오는 손님 맞아주고

천이라 천년을 오는 세월 반겨주며

절경의 첫문으로 서있는 그 자랑

휴식의 한때를 즐기실 장군님 그려

안타까이 기다리고기다린 금강문아

너는 미처 몰랐구나

살기좋은 락원을 끝없이 펼치시며

장군님 가시는 길 그 끝에 금강문이 있는줄

그날 그 시각 내 나라에

또하나 금강의 갈림길이 열린줄을!



## 가사

# 어머님 계시는 마음의 고향집

민향숙

그리움 넘쳐나는 오산덕기슭에  
백살구 송이송이 꽃구름 곱게 뿜네  
사령부 불빛지켜 어머님 그리신 봄날  
밀림의 사향이 흐르는 정다운 고향집이여  
  
달려가 안기고싶은 이 마음 달래주는가  
꽃잎은 포근히 내리며 그 사연 속삭이네

해방된 달밤에 친위전사 어머님 모습  
오늘도 뜨거이 안고있는 승엄한 고향집이여  
  
충성을 다하시며 못오신 우리 어머님  
못떠나 다시보니 꽃속에 웃고계신듯  
장군님 받드는 전사의 끝없는 행복  
말없이 새기여주는 마음의 고향집이여

## 기적

박철

망망대해-

또 하루가 파도에 실려갔다  
표류 46일

망망대해-

쌀도 먹는 물도 떨어졌다  
기아 46일

수평선에 또 하루 새날이 밝았다  
성에불린 선실에서 선장은 눈을 떴다  
조타실벽에 칼끝으로 그어놓은 금을 세이며  
날자를 꼽아보던 선장  
소스라쳐 몸을 일으켰다

이제는 죽음이 더 편안한듯  
기척없이 누워있는 어로공들  
그들 하나하나 안타까이 잡아흔들며  
선장은 무슨 말인가 귀가에 속삭였다

순간 기적은 일어났다  
한사람 또 한사람  
거인같이 일어선다  
서로서로 어깨를 겨루고  
먼 하늘 우리른다

그 무엇이었던가  
천길죽음의 나락에 드리웠던  
그 무서운 닻을  
그들 스스로 끌어올리게 한것은  
  
그것은  
밥도 물도 아니었다  
아니였다, 그것은  
그들의 숨결이고 더운 피  
끝끝내 그들을 찾아 품에 안아준 조국이였다  
그날은 2월 16일!

## 운계령 할머니

박원성

이른아침 합각지붕을 엮은 산뜻한 기와집을 빙 둘러싼 운계령기슭의 우중충한 숲속에서는 벌써 잠을 깬 매미들이 겨금내기로 울어대고 청높은 새들이 그 매미소리를 누르며 지저귀고있었다.

부엌문을 열고 마당에 나선 오성녀는 한껏 푸근하고 애뜻한 정이 내배여 더없이 고요해보이는 두눈에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귀가 솔깃해서 잠시 머뭇거렸다.

단비에 씻기운듯 청신한 숲정수리를 포롱포롱 타고넘으며 쉬임없이 조잘거리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는 오늘따라 별스럽게 상쾌하고 정겨움을 자아내며 자기를 부르는상싶었다.

느닷없이 그의 마음은 운계령의 험준한 산밭을 향해 달려가고싶은 충동으로 북받치는것을 막을 길 없었다.

운계령너머 다박솔이 우거진 후미진 골안에는 군인들의 초소가 아담하게 자리잡고있었다. 오늘 그는 초소군인들을 만나러 가려고 바삐 서두르고있었다. 문득 푸르고 시원스럽게 열쳐진 운계령너머 파란 하늘에 군인들 한사람한사람의 얼굴들이 비끼었다.

키가 흰칠하고 잘생긴 호남아인데다가 훈련을 아주 맵시있게 조직하고 다그어대며 근위부대의 지휘관으로 자랑스럽게 이름을 떨치고있는 중대장으로부터 정세가 침예하던 지난 가을에 대학공부를 그만두고 초소로 탄원한 평양내기 전사에 이르기까지 다 안겨왔다. 그 전사도 이젠 군사에 정통하고도 남았을게다. 훈련도중에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부분대장은 상처가 깨끗이 아물었는지.

오성녀는 그들과 헤어진지 불과 한달가량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개월이 흘러간듯 그리움이 가슴속에 그들먹이 피어올랐다.

사실 그는 어제아침부터 군인들을 기다렸었다.

어제 그는 일흔둘이 되는 자기 생일을 맞이하였다. 생일날에 초소군인들이 오기로 약속되어있었다. 한달전에 중대장이 감시소로 가는 길에 집에 잠깐 들려 초소소식을 전해주고나서 오성녀 생일날에 전사들과 함께 꼭 오겠노라고 말했던것이다. 오성녀는 자기 생일을 잊지 않고 머리속에 기억해두었다가 축하해주려는 중대장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에 못내 감동되었다. 그는 목이 메여 오르는것을 가까스로 누르고 《그날 꼭 오게나. 기다리겠네.》라고 말하였었다.

오성녀는 간단하게 생일을 쇠고는 군인들과 함께 초소로 올라가려고 마음먹고있었다. 그러나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그들은 어제 오지 않았다.

혹시 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그는 문밖에 나와 저물어가는 령길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끝내 군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성녀는 오늘 혼자서라도 초소에 찾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별안간 뒤울안에서는 돼지울음소리가 울렸다. 오성녀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돼지물이 가득 담긴 바께쓰를 들고 굴뚝옆을 지나 뒤울안으로 향했다. 나무판대기로 탐탁하게 돌레를 막은 돼지우리안에는 살이 핑핑하게 오른 검은 어미돼지가 앞발을 나무벽에 뻗치고서서 성가시게 보채고있었다.

《이놈 보지… 저리 비켜야 물을 주지.》

오성녀는 구유통에 앞발을 내짚고 비비적거리리는 돼지를 구유통으로 한켠에 밀어내고 바께쓰를 기울였다. 떨어지는 물을 받아먹겠노라고 성급히 주둥이를 쳐들었던 돼지는 대가리에 온통 쌀겨를 들썽채 개켜서 몇번 킁킁 기침을 터뜨리다가 구유통에 주둥이를 틀어박았다. 군인들에게 가져갈 돼지다. 오성녀는 이 순간도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을 군대들을 위해 바칠가 하는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는 다시 앞마당으로 나와 퇴마루쪽으로 벽을 끼고 걸어갔다. 마루를 간 한쪽벽에는 호두알같이 딱딱하고 호홉지게 여물은 마늘들이 봉어꺾미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있었다. 땃접가랑 되었다. 오성녀는 마늘통을 손끝으로 꺾꺾 눌러보고 될수록 크고 탄탄한것들만 골라 따로 보자기에 싸안았다. 정성껏 말리운 산나물들은 여러개의 비닐봉지에 담고 깨끗하게 포장하였다. 들고가기 간편하게 짐을 꾸린 그는 물기가 없이 말끔히 짠 갈레로 마루를 구석구석 닦고나서 퇴돌을 마주하고 앉았다. 이제 큰길쪽에서 농장 자동차가 오는 기미만 보이면 곧장 대문밖으로 달려나갈 자세였다. 자동차는 관리위원장이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다. 오늘새벽에 소재지마을에서 올라온 운계령 작잠분조의 사육공처녀가 관리위원장의 기별을 가지고왔다. 그 소리를 전해들은 오성녀는 고맙기가 그지없었다.

늘은이념새가 나는 자기보다는 젊고 팔팔한 관리위원장을 앞세우는것이 격에 어울리고 맞아들이는 군인들의 기분도 한결 달라질것이 아니랴싶어서였다. 오성녀는 초소로 가자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런 간절한 생각이 없었던것은 아니었다.

관리위원장에게 초소로 같이 가자는 말이 목에 차올랐으나 원호물자를 별로 만족스럽게 마련하

지 못한 주제에 소문만 요란스럽게 내고 불쑥 말을 꺼냈다가 항상 일에 몰리어 바쁜 관리위원장의 사업을 갈피없이 휘저어놓을것만 같아 잠자코 있고말았다.

그런데 의외에도 관리위원장쪽에서 더 성수가 나서 뛰고있지 않는가.

오성녀는 아래사람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진정을 헤아려보고 현실적인 행동을 취해주는 관리위원장이 과시 한개 농장의 호주답다는 자랑과 함께 믿음이 부족 살아올랐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식이 관리위원장의 귀에 전해지기까지는 명금이의 공로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명금이는 당면 스물네살에 잡힌 작잠분조 처녀 분조장이다. 윤계령 작잠분조의 작잠판은 오성녀네집 뒤쪽으로 돌아 숲속으로 한참 올라가서 산 중턱에 있었다.

오성녀가 초소로 간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명금이뿐이었다. 그가 분명 어제 오성녀의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집에 왔던 관리위원장에게 귀뜸을 주었을것이다.

《땡 땡 ...》

이윽고 벽시계가 아홉점을 치고있다.

오성녀는 흠칫 놀라며 일어섰다. 그의 눈길은 산허리를 끼안고 굽이굽이 돌아 령밑으로 아득히 뻗은 큰길쪽으로 돌아갔다. 길은 조용했다.

《자동차가 벌써 올리 만무하지. 관리위원장이 시간을 한번 낸다는게 그리 쉬운가...》

오성녀는 집요하게 조바심치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이며 다시 차리에 앉았다.

윤계령초소를 찾아가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처음이 아니다. 오성녀는 자기 개인적으로도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가지고 윤계령초소에 여러번 찾아갔었고 두해전에는 인민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뿔혀 군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갔던적도 있었다.

윤계령을 넘어 남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곳에는 군사분계선이 지나갔다. 윤계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가렬한 격전장이였었다.

오성녀를 누이처럼 따르던 최석진이란 련락군관도 이곳에서 전사하였다. 오성녀의 남편은 윤계령과 이마를 맞대고있는 무명고지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얼마전에 우편통신원이 주고간 《로동신문》을 펼쳐들었던 오성녀는 깜짝 놀랐다.

신문 1면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전연에 자리잡고있는 그 무명고지를 지키고있는 인민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신데 대한 보도기사가 사진과 함께 한면 가득 실렸다.

오성녀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장군님께서 적들을 코앞에 둔 최전선을 찾으신다니... 원참, 일군들은 무엇을 하기에 그이의 앞길을 막지 못했담. 장군님께서 그렇게 위험한 곳을 찾아 윤계령을 넘으신것도 모르고있었으

니...)

오성녀는 갑자기 차디찬 얼음덩이가 가슴 한끝을 스치고 지나간듯 섬찟해서 몸을 부르르 떨다가 돌보기를 귀에 걸었다. 신문은 눈앞으로 바투 그당겨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입술엔 알릴듯말듯한 경련이 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무명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영웅전사들의 넋이 깃들고 그들의 숨결이 맥박치고있는 잊지 못할 땅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영웅전사들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따라배워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무명고지 전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장군님의 근엄하시고 거룩하시고 자애에 넘치신 모습을 뵈옵는 순간 오성녀는 흐려지는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꼭 자기 남편이 살아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것만 같았다. 저도 모르게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아보려 애쓰던 오성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여보 령감, 한순간만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주구려. 희세의 령장을 옛 싸움터에 모시었는데 그렇게도 태평스러울수가 있소...)

오성녀는 웃고름으로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을 닦았다.

그날 그는 잠들지 못했다. 전세대 사람들이 섰던 자리에 후세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신 장군님의 그 크나큰 사랑의 세계를 다 알기에는 자기의 심장이 너무나 작은것이 안타까웠다. 오성녀는 그후부터 자주 령길에 나와 서있곤하였다.

그는 거기에 서서 이름없는 영웅전사들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었다. 그들과 조용히 말도 해보곤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듯싶었다.

《사람은 은혜를 갚을줄 알아야 하며 그 믿음앞에서 충실할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때마다 오성녀는 머리를 끄덕이곤하였다. 그는 영웅전사들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새 세대 군인들에게 전해주는것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만이 자기가 먼저 간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주는것이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바칠수 있는 량심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성녀는 오늘 초소에 가면 지켜야 할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이때 그의 사색을 깨치며 전화종소리가 길게 울렸다. 전화는 방안 창문턱에 놓여있었다.

작잠분조와 련결된 전화였다. 수십년을 누에를 치며 살아온 오성녀가 년로보장자로 분조장을 인계해주고도 고치생산이 마음에 걸리어 하루에 한두번씩은 꼭꼭 작잠판에 나가는것을 보고 관리위원회에서 전화를 놓게 하였던것이다.

오성녀는 퇴마루앞에 신을 벗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내 오성녀다.》

《마침 계셨군요. 할머니, 저예요.》

명금이의 목소리였다. 무척 반색하는 기색이었으나 웬일인지 말끝은 흐려있었다.

오성녀는 눈치가 무딘척하며 환하게 웃었다.

《안다. 알아. 아무리 귀가 어둡기로써니 네 목소리를 가려듣지 못하겠니. 그래 본조원들도 다 잘 있느냐?》

《예, 모두 잘 있어요.》

《누에들은 별일 없겠지?》

《예.》

오성녀는 침착하게 부드러운 어조로 오금을 박았다.

《이제 한잠을 더 자고나면 고치들이 살구처럼 주렁주렁 열리겠는데 누에관리를 잘해라. 다 여물은 누에들이어서 새들이 죽기내기로 달려들게 다.

너도 알다싶이 누에는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라고는 보호색을 띤 몸색갈밖에 없잖니. 그저 사람만을 믿고 살지...》

《알았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마지막부탁으로 알고... 꼭...》

명금이의 물먹은 목소리는 토막토막 끊기우더니 흐느낌속에 삼켜여졌다. 오성녀는 깜짝 놀라 다그쳐물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마지막이라는 소리는 또 뭐구?》

《할머니, 우린 지금 할머니의 건강이 예전같지 않다는것을 잘 알아요. 그러구 몹시 외로와한다는것도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여 노여움도 많았을거예요. 저도 말뿐이지 언제 한번 할머니에게 제손으로 따끈한 밥 한그릇 해드리지 못한 불효자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소재지마을로 떠나시기전에 저에게 하고싶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싶어서 이렇게 할머니를 부른거예요. 할머니.》

명금이의 연연한 정이 사무친 애절한 부름은 오성녀의 가슴속을 찌르듯이 파고들었다. 오성녀는 솟구치는 오열을 삼키며 고개를 외로 틀고있을 명금이를 눈앞에서 보는데도 저도 모르게 눈곱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두손으로 수화기를 꼭 움켜쥐었다.

《내가 도대체 어디루 간다는거냐? 난 지금 자동차를 기다리고있단다.》

《할머니는 이제 자동차가 오면 이사집을 실을게 아니예요. 그러니 오늘의 이 전화가 마지막이 아니고 뭐겠어요.》

《뭐라구?! 그러니 자동차가 오는것은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란말이야?》

오성녀는 삽시에 울화가 치밀어 이렇게 웨쳤으나 그 말은 입속에서만 맴돌뿐이었다. 가슴이 허물어져내리는듯하여 수화기를 쥔 그의 손은 맥없

이 아래로 떨어졌다. 오늘저녁이면 정녕 50여년간 애뜻한 정을 붙이며 살아온 운계령에서 멀리 떠나 관리위원장네 집에 불박혀 아이들의 말동무를 해주는 한가한 사람으로 된단말인가... 그는 갑자기 현훈증이 밀려와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의지하며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고 그대로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실상 그는 이런 소리를 오늘 처음 듣는것은 아니었다. 년로보장자로 되었을 때에도 그 썩전에도 관리위원장은 오성녀를 찾아와 아들을 대신해주겠으니 자기 집에 내려가 살라고 조르곤하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운계령기슭에 있는 마을이라야 집이 도합 네채뿐이다. 그마저 오성녀네집과 나란히 처마를 맞댄 분조합숙은 봄누에와 가을누에를 치는 두 계절이면 본조원들이 현장에 나가살기때문에 그가 그집까지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명금이라도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자주 집에 내려와 말동무를 해주곤하였다. 명금이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일점 혈육도 없는 오성녀를 자기가 꼭 모시겠노라고 하였다. 그는 운계령초소 중대장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성녀는 뜨거운 눈물을 머금곤하였다.

그런데 오늘 관리위원장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사를 집을 실으러 오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오성녀는 열려진 창너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한생이 어린 운계령산줄기의 산발들이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운계령은 크고작은 산발들을 수없이 거느리고 하늘을 향해 치달아오른 령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파로운 령이었다.

이곳에서 읍에 한번 다녀오자면 150리를 내려가야 하였다. 해방전에는 오솔길조차 나지 않은 원시림이였었다. 워낙 산세가 험하고 눈사태가 자주 일어나 짐승들마저 무리로 죽어나가는 까닭에 사람들은 발을 붙이기를 꺼리였었다.

오성녀가 머슴군총각 덕수의 손에 이끌려 지주 집에서 용약 뛰쳐나와 운계령에 처음으로 잡은 집은 오소리굴같은 자그마한 동굴이었다. 그들은 짐승들처럼 숨어살면서 산기슭에 화전을 일우고 감자와 조를 심었다. 겨울에는 산짐승사냥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였다.

해방된해 가을이었다.

소금을 바꾸려고 읍에 내려갔던 오성녀는 사람들에게서 그제야 해방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성녀는 고향을 찾아갔다. 그의 고향은 읍변두리에 자리잡은 제사공장과 마주선 농촌마을이었다. 부모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지주놈의 눈에 띄울가봐 언제나 피해다녀야 했고 찾아갈래야 갈수도 없던 고향이었다.

소꿉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갑이들과 마을어른들이 달려나와 반갑게 그를 예워쌌다. 오성녀는 이집저집 불려다니며 며칠을 지냈다. 오성녀가

마을을 떠날 때 좌상로인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인차 이사를 오라고 당부하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오성녀는 기분이 들떠서 남편에게 고향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가 사람 그리워 못견디겠으니 운계령에서 내려가자고 말할 때에는 눈두덩이가 벌겋게 피어오르기도 하였다.

덕수는 고향으로 가자는 오성녀의 호소에 쾌히 응했다. 그들은 심어놓은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떠나기로 약속하였다.

오성녀는 개울가옆에 새로 지은 자그마한 집에서 곡식이 다 익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해 가을에도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였다.

남편 덕수는 고향에 내려간다 해도 제 땅 한뼉이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공연히 이웃들에게 페나 끼치고 부담만 될것이라고 하면서 점차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가지고 내려가자고 하였다.

성녀는 당장 고향으로 내려가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남편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 그의 말대로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하는수없이 운계령에서 또다시 겨울을 보냈고 밭에 씨를 뿌렸다. 그들은 곡식을 가꾸며 올가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가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몸이 다부지고 날과람있게 생긴 한사람이 집마당에 서서 주인을 찾고있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방금 집으로 돌아서던 걸음에 낯선 젊은이를 만난 오성녀는 몹시 지쳐있는 그의 모습에 동정이 가서 먼저 말을 건네었다.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한 젊은이는 자기는 제사공장에서 고치를 끌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는 최석진이라고 소개하였다.

가득나무림지를 돌아보려고 운계령골안에 들어왔다가 길을 헛갈려 방황하던중 인가를 만났노라고 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반가와하였다.

최석진은 집에서 하루밤을 묵으며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야기해보니 아는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해방덕에 글을 배웠다는 그는 이야기가 통속적이고 사개가 맞물리는 소리여서 귀맛을 돋구었다.

세상이 회한하게 변해가는 이야기를 한참 들려준 다음에는 말머리를 돌려 제사공장으로 끌고갔는데 고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기계가 서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부터는 승기가 한풀 꺾여졌다.

온 나라 인민이 건국사업에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백성으로서 나라에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고있으니 이게 어디 인간도리가 됐느냐고 피로와 하는 그를 보는 오성녀의 가슴은 뭉클 달아올랐다.

최석진은 떠나기전에 마당에 나와서서 자기네 일을 좀 도와줄수 없느냐고 의논조로 붙였다. 그가 바라는 도움이란 누에를 길러 고치를 따들이는것이였다. 대가도 넉넉히 지불해주겠노라고 결들었다. 오성녀는 난처해졌다. 이제 몇달만 더 견디어내면 저주스럽게 여겨지는 운계령을 떠나겠는데 새 일감을 맡아할 겨를이 없었기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덕수가 그에게 다가가서 아직 한번도 누에를 길러본 경험이 없으니 결심을 내리기가 이르다면서 대답을 피했다. 최석진은 떠나갔다. 며칠후였다. 덕수는 읍에 다녀오겠다면서 아침 일찍 조반을 먹었다. 오성녀는 남편의 행장을 준비해주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고향에 가서 살수 있게 자리를 잡고 오라고 부탁하였다.

덕수는 저녁녘에야 돌아왔는데 의외에도 최석진을 달고왔다. 오성녀를 더욱 불안케 한것은 남편이 최석진이를 데리고 가득나무들이 우거진 운계령골안으로 올라간것이였다. 누에를 기르자는 것이 분명하였다.

저녁에 밥상을 물린 남편은 자그마한 성냥곽안에 가득 채운 누에알을 오성녀에게 내보이며 앞에서 누에가 깨나오고 일정하게 자랄 때까지 최석진이가 함께 있게 되였다고 알려주었다.

오성녀는 억이 막혀 말도 못하고있다가 덕수가 마당에 나왔을 때 조용히 만났다. 그는 누에를 기르다가 금년 가을에도 이사를 가지 못하는게 아닌가고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덕수는 빙그레 웃으며 고치도 가을에 따기때문에 마음을 놓으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덕수는 폐기발도 돌보면서 누에를 기르느라 눈코끝새없이 지냈다.

기다리던 가을이 왔다. 최석진이가 달구지를 타고 누에고치를 실으러 왔다. 오성녀는 고치가 담긴 자루를 달구지우에 실으며 최석진에게 운계령은 산짐승들때문에 살기가 무섭고 사람 그리워 못살겠다고 하면서 가는 길에 이사집을 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최석진은 그게 좋겠다고 하면서 짐을 꾸리라고 하였다.

오성녀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얼른 방안에 들어가 짐을 대충 꾸렸다. 누에고치를 다 실은 최석진은 어서 이사집을 실자고 하였다. 오성녀가 입던 옷과 네귀가 닳아진 담요를 꾸러들고 마당에 나서는데 남편이 최석진에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가시우. 우린 한해 더 있겠수다. 우리가 내려가면 분명 다른 사람이 올라와야 할텐데 그럴 필요가 있겠수.》

그 소리에 오성녀는 너무나도 기가 차서 싸안았던 보따리를 땅에 펴구며 신음소리를 삼켰다.

달구지가 떠나가자 오성녀네 집에는 적막이 깃들었다. 오성녀는 마당 한구석에 앉아 서럽게 울었다. 덕수는 그에게 다가가서 긴숨을 몰아쉬며



제사공장이 뿡뿡 돌아가는 날 윤계령에서 내려가  
자고 하였다. 그것이 나라를 일떠세우는데 자기  
들이 보탬을 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해 가을에 오성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오성녀는 윤계령을 내  
려가지 못하였다. 도리어 윤계령은 제사공장 작  
잡반이 들어와 판을 크게 벌려놓아 번창해졌다.  
비록 윤계령에서 내려가지는 못했으나 사람들과  
함께 지내니 외로운 마음이 좀 풀리는것만 같았  
다. 덕수는 반장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중 전쟁이 터졌다. 덕수는 군복을 입고  
집을 나서면서 누에를 죽이지 말고 잘 길러달라  
는 부탁을 남기었었다.

한해후에 윤계령너머 남쪽에 있는 무명고지가  
군사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로 점찍히우게 되면서  
부터 한적하던 윤계령기슭에도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윤계령에는 길이 닦아졌고 그 길로  
인민군대의 포차들과 후방차들이 쉬임없이 지나  
갔다. 탄약상자를 이고진 사람들이 그 길로 령을  
넘어 전선에 날라다주곤하였다.

수많은 인민군전사들이 오성녀의 집에서 묵어  
갔고 그는 그들의 시중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다.  
그 길에서 오성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자기  
남편이 바로 그 무명고지에서 싸우고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는 남편을 만나는 심정으로 자기  
집에 들리는 병사들을 대했고 남편이 돌아오  
게 될 날, 전승의 그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  
덕수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지척인 무명고지에  
자기의 생을 물었다.

자동차가 대문앞에 와닿았다. 자동차에서 내려  
수군거리는 관리위원장이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성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는 짐을 싸자고 독촉하  
겠지. 나를 실어가게 그리도 급한가.)

오성녀는 노여움이 욱 치밀어 창문을 등지고  
앉았다. 대문이 열리고 다급히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소리가 났다. 오성녀는 곧게 세운 두무릎을  
치마로 감싼채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어머니, 제십니까?》

관리위원장의 후덕스러운 목소리가 미처 끊어  
지기도전에 지게문이 밖에서부터 쑥 열리었다.

관리위원장이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섰다. 그뒤  
로 계획지도원과 장정 두사람이 따랐다.

관리위원장은 스스럼없이 오성녀의 옆에 앉으  
며 말했다.

《어머니, 나 물 한고뿌 먹읍시다. 난 윤계령 샘  
물보다도 어머니가 끓여주는 결명자차가 더 좋습  
니다.》

오성녀는 평소처럼 간격을 두지 않고 접어드는  
관리위원장의 푸접에 더 이상 앉아배길수가 없  
어 부엌으로 내려가 주전자를 들고 들어왔다. 고  
뿌에 김이 물물 나는 차를 따랐다.

주전자를 기울이는 오성녀의 침울한 기색을 놓  
치지 않고 바라보던 관리위원장이 근심에 잠겨  
물었다.

《어머니,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군요.》

오성녀는 주전자를 한쪽옆에 놓고 앉으며 목이  
깎 늘린 어조로 대답했다.

《속이 아파서 그러우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진료소에 알  
려줘야 할게 아닙니까?》

관리위원장은 겁질린 소리로 나무라며 오성녀  
의 손목을 끄당겨잡고 맥을 짚었다. 오성녀는 어  
슬픈 웃음을 내거었다.

《그만두시우.》

오성녀는 관리위원장의 손에서 팔을 빼며 방안  
에 빙 둘러앉은 사람들을 여겨보았다.

남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자기를 위해 일  
부러 시간을 내어 왔다는것을 생각하니 오성녀는  
친혈육인들 이보다 더 극성스러우랴 하는 생각  
에 코마루가 매워왔다.

명금이 가슴을 가쁘게 몰아쉬며 방안에 들어섰  
을 때에는 오성녀의 마음이 어느정도 풀어져서  
관리위원장에게 속을 터놓고있던중이었다.

《관리위원장, 내 다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내 걱정은 마시우. 여기 명금이랑 분조원들이  
다 있지 않수. 옛날에 비하면야 지금 생활도 호  
강이지우.》

《그야 옳지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종시 혼자  
살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도 해줘야지요.  
그리구 어머니를 소재지마을로 내려가도록 해달  
라는것은 군대동무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관리위원장은 몇마디 말로써 오성녀의 고집을  
눌러놓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운듯 고뿌에 담긴 물  
을 들이켰다. 이미 식어서 결명자차의 독특한 풍  
미는 사라져버렸으나 그것만으로도 답답한 속을  
추길수 있는것이 다행스러웠다.

잠시 말을 끊었던 관리위원장은 아까보다는 펍  
누그러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머칠전에 초소군인들이 먼곳으로 훈련을 갔습  
니다. 깊은 밤에 윤계령을 내려다보니 어머니를  
깨우지 못했으면서 중대장동무가 일부러 관리위  
원회에 들렀더군요. 그때 그는 어머니걱정을 얼  
마나했는지 모릅니다.》

《...》

오성녀는 가슴이 달아올랐다.

자기 생일날에 오지 못한 중대장의 마음이 헤  
아려졌다.

군인들은 나를 진정으로 자기 할머니로 믿고  
사랑을 쏟고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바친것이  
너무도 없잖는가. 내가 이제 관리위원장을 따라  
간다면 그들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할것이  
다.



친할머니처럼 따르던 내가 여기 없으면 윤계령을 지날 때마다 제집처럼 들리곤하던 병사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오성녀는 그것이 두려웠다. 더우기 윤계령에 깃든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병사들에게 전해줄 의무를 스스로 걸머진 사람이라고 돌이켜볼 때 망심이 허락치 않았다.

문득 군복을 입은 남편과 자기를 친누이처럼 따르던 최석진, 전쟁때 자기 집에 들렀다 승리하고 꼭 다시 들리겠노라고 약속하고 떠나간 수많은 전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약속대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귀중한 청춘시절과 선혈을 조국에 바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한생을 살아온 오성녀였다. 이제 와서 여기를 떠나자니 꼭 그들과의 약속을 어기는듯한 심정이었고 죄스러운감이 들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오성녀는 머리를 들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간 그는 옷장문을 열고 종이 한장을 꺼내들고 나왔다. 오래동안 밀폐된 동안에 넣어둔것으로 종이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풍겼고 색깔은 누렇게 변했다.

《이게 뭔데요?》

종이를 받아본 관리위원장은 의아해서 오성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읽어보시우. 읽어보면 다 알게 될거우다. 난 그 사람들을 기다리며 산다우.》

관리위원장은 오성녀의 말에 까닭모를 충격을 느끼며 종이우에 눈길을 주었다. 연필로 박아쓴 시원시원하게 흘러간 글자들이 불꽃처럼 선명하게 타오르고있었다.

확인서

품명 흰쌀 7키로그램

인원 15명

상기 일행은 행군도중 윤계령기슭에 사는 오성녀네 집에서 두끼분의 식사를 하고갔음을 확인함.

1951년 X월 X일

XX군부대 연락군관 소위 최석진

관리위원장은 다른 글이 더 써여있지 않는가 하여 뒤등을 만져보기도 하였다. 《확인서》는 계획지도원의 손을 거쳐 한바퀴 빙 돌며 명금이의 손에 쥐여졌다. 사람들의 눈빛이 유난스레 번쩍이었다. 오성녀는 감회에 잠겨 입을 열었다.

《전쟁전에 제사공장에 다니던 사람이우다. 이 윤계령에 가독누에를 치게 한 첫사람이지요. 그때부터 우리와 인연을 맺게 됐지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도 관리위원장처럼 달구지를 끌고와서 윤계령에서 내려가자고 했지우. 전쟁때에는 폭격

이 심하여 생명이 위험하다면서 나를 내려보내지 못해 꽤 못살게 굴었지요.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가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방안의 분위기는 사뭇 숙연해졌다. 오성녀의 나직한 목소리만이 담담히 울렸다.

《전쟁때에도 우리 집으로는 윤계령을 넘나드는 군대들이 많이 들리곤하였지요. 그때마다 나는 우리령감을 만난것처럼 반가왔습니다.

어느날 최석진이가 연락군관이 되어 15명의 소대장들을 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최석진은 군관들을 일일이 소개시키고 두끼분의 밥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말을 들으니 전선에 새로 보충되는 소대장들이라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독안의 쌀을 몽땅 털어 가마에 안쳤지우. 그 사람은 부엌봉당에 앉아 아궁에 불을 때주며 빈손으로 들어와 폐를 끼치게 됐다면 미안해하질 않겠소. 내참...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전쟁을 하는 대장부들이 아낙네들 사정만 생각하다나면 언제 큰일을 쳐보겠나 하고 나무람해줬지요.

그말에 최석진은 말없이 웃기만 합니다. 밥이 다되자 나는 방안에 상을 차리고 한쪽으로는 주먹밥을 빚어서 매 사람들의 배낭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쌀대신에 <확인서>를 해줬겠군요.》

계획지도원이 조급증을 참지 못하고 앞질러 말을 꺼냈다. 오성녀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으며 맞바로 계획지도원을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최석진은 내 손에 <확인서>를 쥐여주며 군인민위원회를 찾아가라고 하질 않겠수. 해당하는 량의 난알을 줄거라면서 말이지요.

어망결에 <확인서>를 받아들었던 나는 그 말에 펄쩍 놀라 그 사람의 손에 종이를 뿌려던졌수다. 덕을 입는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군대덕을 입지 군대가 우리 덕을 보겠나. 그런데도 그 사람은 우리집이라고 식량이 넉넉하겠느냐고 하면서 기어코 <확인서>를 쥐여주려고 애씁니다. 나는 우리령감한테서 값을 받아내는것 같은게 낯이 막 뜨거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자 최석진은 집에서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마당에 주저앉더군요. 그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배낭을 벗어놓으며 버티고있을 잡도리를 하지 않겠소.

나는 그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지체하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겠는데 어쩌나 해서 말이지요.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수다. 물론 《확인서》를 받겠다는 대답을 하고말이지요. 그들은 꼭 다시 들리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갔수다. 그러나 나는 뜨겁게 고이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바라볼수가 없었습니다. 자

기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을 써야처럼 땅속에 묻으며 결사전을 벌리면서도 산골녀인의 성의를 갇겠노라고 원심을 쓰는 사람들에게 내 뭐라고 말한단말이우. 우리 군대는 이런 사람들이지오. 그래서 우린 전쟁에서두 이겼구 지금도 이기면서 사는게 아니우.》

오성녀는 걱정애 넘쳐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끊었다. 령길을 오르며 손저어주던 최석진의 모습이 눈뿌리 뜨겁게 떠올라 전달수가 없었다.

이윽고 관리위원장이 다감한 정이 실린 눈길로 오성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어머니 군대동무들이 희망하는대로 군인위원회에 찾아가지 않았겠군요?》

오성녀는 당황히 손을 가로저었다.

《아니우다. 그런게 아니지요.》

《할머니.》

이번에는 명금이가 오성녀의 팔을 꼭 끼며 이야기를 해줄것을 재촉했다.

《그 말을 하자니 낮이 뜨거워 차마 입이 열리지 않는구나.》

하고 오성녀는 명금이쪽을 돌아보며 잠시 생각을 더듬다가 말을 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최석진의 말을 듣고 군인위원회로 찾아갔지요.》

식량은 량정사업소에서 내준다고 하더군요. 내가 다시 량정사업소정문에 이르니 때마침 색깔은 군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강냉이마대를 열뒤포대가랑 쌓아놓고 차례를 기다렸다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나의 눈길은 자꾸만 한쪽팔이 없는 젊은이의 빈 팔소매자락에 쏠려지더라말이우다.

누군가 내옆에 다가오더니 남진의 길에서 팔을 잃은 영예군인이라고 전해준다. 나는 그때 그 젊은이가 얼마나 돋우보였던지 몰랐다.

내가 차례를 기다리고있는 사이 량정사업소 창고지붕에 높이 매달린 확성기에서는 전시가요가 울리더니 뒤이어 운계령을 린접한 무명고지전사들이 결사전을 앞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 올린 맹세문을 랑독한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았소. 나는 깜짝 놀라 확성기가 매달린 창고를 향해 달려갔다. 이윽고 방송원의 목소리가 격조높이 울리더군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적들의 거둬되는 공격을 막아내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무명고지를 사수하겠다고 말이우다.

나는 우리 령감의 목소리를 듣는것만 같아 무척 반가왔고 힘이 났수다. 포연서린 무명고지가 눈앞에 그려집디다. 다음 순간 나는 내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더군요.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온것이 얼마나 민망스러웠던지 난 도망치듯 그자리를 피했수다. 그런데 운계령에 다달으니 다른 아픔이 나를 기다리고있지

않았겠소. 적들의 맹폭격을 받아 운계령끝안이 짓이겨지고 나무들이 불타고있었수다. 우리 집은 불속에 잠겨있더군요. 집에 두고갔던 아들생각이 나서 나는 허둥거리며 언덕으로 달려갔지요.

집어구에 다달은 나는 돌서덜밭에 쓰러진 아들을 보게 되었수다. 기총탄에 가슴이 뚫린 아들을 껴안은 나는 울며불며 모지름을 썼으나 이미 숨결이 끊어진 그를 살려낼수가 없었지요.

다음날 최석진이가 우리 집에 들렀더군요.

그는 나더러 여기에 그냥 머물러있으면 잘못될 수 있으니 부락으로 내려가라고 권고합디다.

나는 머리를 저었수다. 내가 이 집을 떠난 다음 령감이 오면 어찌랴 하는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더군요. 령감이 불타버린 집을 보면 가슴이 무너질게 아니우. 길가는 군대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지요.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싶었수다. 이 나라 녀인들의 강직한 마음을 보여주어 남정들이 고지에서 더 잘 싸워 하루빨리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원했지요.

그리하여 나는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 자리잡고있는 야전군의소에서 며칠간을 묵었고 군인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은 집에서 살게 되었수다. 이 집터가 그때 최석진이랑 군인동무들이 잡아준거라우.

전쟁이 끝난지도 까마득히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우리 령감이랑 그 련락군관이 불쑥 집에 들어서는것만 같아 늘 대문을 열고 기다린다우.

그런데 관리위원장이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니 섭섭한 일이 아닌가. 내가 이제 여기를 떠면 무슨 명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단말이우.

나에게 살림걱정이 있나 무슨 걱정이 있겠나.

내게 락이 있다면 장군님을 보위하여 성벽이 되고있는 군대들을 잘 도와주는 일에 나도 한몫한다는 자랑뿐이라우.》

오성녀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렸다. 명금이는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굽을 찍으며 조용히 지게문을 열고 나갔다. 관리위원장은 지그시 두눈을 감고있었다.

그를 바라보던 오성녀는 전혀 판사람처럼 어조를 바꾸며 화제를 돌렸다.

《관리위원장, 이왕 자동차가 여기까지 올라온 바치고 내쳐 운계령을 넘지 않으려우?》

그의 말뜻을 알아챈 관리위원장이 맞받아 웃음을 날리었다.

《초소군인들을 찾아가는 문제는 다음번에 약속합시다. 리당에서도 계획하고있으니 그때 함께 떠납시다. 이제 가면 그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허허... 그렇지, 훈련을 나갔다고 했지.》

오성녀는 혼자소리로 외우며 기쁘게 웃었다. 방안에는 화기에 넘친 분위기가 차넘쳤다.

오성녀는 관리위원장이랑 사람들과 함께 인민

군부대에 찾아갈 의논을 하였다. 관리위원장은 언제 오성녀더러 내려가자던 사람 같지 않게 웃음을 띄우며 걸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원호물자는 우리 리에서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정정한 모습만 봐도 병사들은 기뻐할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몸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요즘 어머니 건강이...》

오성녀도 웃으며 말을 받았다.

《대사 이제 다 늙은게 건강하면 설마나 더 건강하겠나. 늙은이 몸이란게 그저 그렇지. 그러니 내 걱정은 말게.

인민군대를 돕는 일을 하는 거기에 내 락이 있고 건강이 있는거야.》

오성녀는 눈가에 실주름을 잡으며 웃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할머니, 군인동무들이 돌아오는것 같어요.》 하고 명금이가 방안에 환한 얼굴을 내밀고 소리쳤다.

방안은 가볍게 설레었다. 오성녀는 서둘러 신발을 더듬어 신으며 대문밖으로 나갔다. 길을 자욱히 메우며 평길을 뚫아오르고있는 차행렬이 오성녀의 눈에 보였다.

《정말 운계령초소군인들이 옳으냐?》

오성녀는 아무래도 미심쩍어 옆에 서있는 명금에게 따지고들었다.

《아무렴 제사람을 헛갈려보겠습니까?》

뒤에서 관리위원장이 걸을자 명금이는 수집은듯 고개를 숙이었다.

보위색풍을 친 앞선승용차 한대가 포차들을 멀리 떨구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있다. 승용차는 오성녀네 집앞에 이르러 천천히 멎어섰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뜻밖에도 중대장이었다. 그위로 부분대장이 따라서고 낮익은 전사들 세명이 내렸다.

《할머니.》

중대장이 한달음에 달려와 덮치듯이 오성녀의 손을 와락 더듬어쥐었다.

《기다렸네... 꼭 오리라고 믿었네. 그래, 두줄배기는 다리가 다 나왔나?》

오성녀는 옆에 선 부분대장에게 눈길을 돌렸다.

《자 보라요. 이 다리로 벼랑을 넘었거든요.》

부분대장은 친할머니앞에서 건강상태를 뽐내는 어린 소년처럼 발을 탕탕 구르기까지 하였다.

오성녀는 부분대장의 그런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중대장이 군인답게 솔직한 어조로 말했다.

《우린 사실 할머니가 그새 운계령에서 내려가지 않았겠나 해서 미타한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계셨군요.》

오성녀는 중대장의 뜻밖의 이야기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짓고있다가 껄껄 웃었다.

《내가 가면 어디로 가겠나. 난 자네들과 한시도 떨어질수 없는 사람이야.》

《할머니, 고맙습니다.》

중대장은 환기에 넘쳐 말하며 뒤로 한발자국 물러섰다. 전사들도 약속이나 한듯 중대장옆에 차렷자세로 섰다.

《우린 할머니의 생일에 와보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운계령초소병사들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군인들이 정중히 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하였다.

《이사람들아...》

오성녀는 황황히 두손을 내밀어 중대장의 손을 잡아내리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오성녀의 두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그득히 고여올랐다.

《고맙네. 고마우이 ...》

중대장은 들먹이는 오성녀의 두어깨를 부여잡으며 말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주는 데 비해서는 우리 성의가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이젠 그만하시고 저쪽으로 돌아서십시오. 우리 병사들이 할머니를 부르고있습니다.》

오성녀는 고개를 쳐들었다. 이슬이 고여오르는 중대장의 눈에 절절한 빛이 번뜩이었다. 오성녀는 그가 부축하는데로 돌아섰다.

령길을 따라 짓쳐달리던 포차들이 속도를 죽이고 경적을 울리고있다. 자동차마다 위장망이 켜여져있다. 적재함우에는 철갑모를 눌러쓴 병사들이 총대를 앞으로 끄당겨세우고 앉아있다.

병사들의 웃음어린 눈길들이 일제히 오성녀를 향하고있다.

《할머니-》

높고낮은 목소리들이 우렁차게 터져오른다. 뒤이어 총대처럼 억세고 굳센 손들이 솟아오른다.

그들은 손을 힘껏 흔들고있다.

다음차에도 그 다음차에도 반겨맞는 목소리들이 《할머니.》 하고 부른다. 그 부름은 오래동안 헤여졌던 손주들이 앞다투어 달려들며 그리움과 정에 사무쳐 터치는 그런 목메인 웨침이었다.

《오냐, 오냐.》

오성녀는 뜨거움을 삼키며 손을 흔들어주었다.

자동차는 멀리 숲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오성녀는 수십수백명의 손주들이 자기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것만 같아 크나큰 행복속에 휩싸였다. 중대장은 관리위원장과 명금이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오성녀와 작별을 하면서 부대장이 자기 차를 내어 집으로 보냈으면서 인사를 전해주었다. 중대장이 탄 야전승용차는 포차를 따

라 마지막으로 달렸다.

운계령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어머니 생일의 가장 큰 선물은 군인들의 인사이군요.》

관리위원장이 령길을 달리는 승용차를 바라보며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오성녀는 가슴을 짚젓히며 얼굴 한가득 웃음을 지었다.

《그렇지우. 저들이 다 친아들, 친손자들이 아니

겠나. 어느 누가 이런 환대를 생각이나 하겠나.

그래서 난 이 산속에서도 외롭지가 않다네.

저들의 끝끝한 모습을 보게나. 저 병사들은 꼭 선대병사들이 걸어온 위훈의 길을 빛내일거우다.》

오성녀는 떠나는 병사들에게 믿음에 찬 눈길을 보내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 내 어머니를 생각함은

황성하

내 때없이

김정숙어머님을 생각함은

나도 어머니처럼

너성인 까닭만은 아닙니다

기쁠 때면 기뻐서

어려울 때면 어려워서

마음속에 어머니를 그리워함은

어머님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그 사랑이 커서만도 아닙니다

처절한 광야의 눈보라 굵이굵이

수령님 모시고 어머니 걷던 길은

장군님 모시고 내 오늘 걸기에

한시도 못잊는 어머니입니다

걸으신 길 그러보는 마음입니다

그 길엔

총탄이 비발치는 대사하의 언덕도 있었습니다

메새들도 깃을 접는 엄동설한에

수령님의 젖은 군복 품에 안아 말리시던

눈물겨운 행군길도 있었습니다

고생은 사태처럼 들쭉쭉꿨건만

포연스민 어머니의 군모아래선

언제나 봄빛이 흘러넘쳤습니다

쓰러진 전우들을 안아일으키며

어머님 부르시던 은은한 노래소리...

내 감히 어머니앞에 설수 없습니다

때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나약한 한숨속에 주저앉고싶을 때면

어머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가슴속 시름은 녹아버리고

마음속엔 산악이 일어솟습니다

우리 《고난의 행군》길을 간대도

어머님 전우를 위해 탄우속을 달리며

산을 뚫아 식량을 마련하시던

그날처럼야 엄혹하겠습니까

어머님 헤치신 그 모진 파란만장

그보다야 그보다야 모질겠습니까

이 마음 저도 몰래 군세여집니다

수령님을 마음의 하늘처럼 모시고

수령님만을 믿고산 어머니의 신념

내 마음에 송죽같이 고이 심어집니다

어머님 입으셨던 군복 마음속에 입고

나는 따라섭니다 어머니 서시였던 그자리에

어머님의 그 마음 그 신념 안고가면

승리로 잇닿을 투쟁의 길에

내 걸음걸음 어머니를 생각함은

수령님을 받드시던 어머니처럼

장군님을 더 잘 받들 마음때문입니다

값높은 한생을 새기고픈 그때문입니다

## 친위전사의 참된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대한 빛나는 형상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설령의 붉은기》에 대하여-

조용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걱정과 환희 속에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새해의 충진군에 오른 우리 인민은 오늘도 충성의 한길에서 영생하시는 어머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생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셔야 우리 혁명이 승리할수 있고 빼앗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충성의 한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는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혁명활동업적을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아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충실성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설령의 붉은기》(최창학 작)는 그중의 한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였고 동지들을 사랑하였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6부 《설령의 붉은기》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혁명투쟁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하고있는 주체28(1939)년 여름부터 주체29(1940)년 6월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대부대선회작전을 전후한 이 시기로 말하면 우리 혁명이 가장 엄혹한 난국을 헤쳐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당시 조선과 만주를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밑에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의 길에 들어섰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쏘련을 먹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혁명을 교살하기 위하여 수십만에 달하는 방대한 무력으로 《토벌사령부》를 조직하고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명목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대한 토벌공세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참담한 민족적비운에 처하게 되었고 우리 혁명은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일제와 동맹을 맺은 파쇼독

일이 제2차세계대전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고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길로 줄달음치고있었고 이에 대처하여 쏘련은 사방으로 조여드는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속에서 혁명을 고수하기 위하여 《쏘독불가침조약》을 맺은데 이어 일본과도 그러한 담판을 진행하고있었다.

이렇게 되자 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혁명을 포기하고 적들의 주구로까지 전락되였다.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하루빨리 최후발악하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있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을 불러일으켜 싸우면 능히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주체적신념을 지니시고 적들을 맞받아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릴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소설은 이 역사적시기에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시고 혁명의 사령부를 견결히 옹위해나가는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투쟁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설령의 붉은기》는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시고 장군님의 안녕과 명령지시관철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신념화된 충실성을 보여주는데 형상의 각광을 집중하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의 사상정신적품모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그것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수령의 품을 떠난 혁명가의 삶이란 존재할수 없으며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이 곧 혁명에 충실한것으로 되기때문이다.

조선혁명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셔야 우리 혁명이 승리하고 조선민족도 구원될수 있다는것은 김정숙동지의 가슴속깊이에 뿌리내린 철석의 신념이였다.

이 신념은 김정숙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불바다 만리를 헤쳐오시는 과정에 절절한 체험으로 간직한 한생의 진리였고 깨끗한 량심과 의리



로 인생관화한 총성의 정화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따뜻한 은정속에서 혁명을 알고 투사로 성장하신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김일성** 장군님은 자신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스승일뿐아니라 자신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의탁할 유일한 마음의 기둥이시고 위대한 아버지이시였다.

때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안녕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생각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명령지시 관철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모르시였다.

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600벌의 군복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였다.

시간은 촉박하고 임무는 아름답게 신입대원인 문신옥의 실수로 그만 귀중한 재봉기 한대가 파사졌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옥매와 신옥이와 함께 적구에 내려가시여 재봉기와 행전을 만드는데 쓸 광목천 다섯필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시였다. 밀영에 거의 이르러 갑자기 적들과 조우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일행중 제일 무거운 짐을 지시고 수십리길을 걸어오시느라 누구보다 지칠대로 지친 몸이시였지만 단신으로 적들을 따돌리시였을뿐아니라 그밤으로 당장 재봉대의 위치를 옮기자고 하신다.

그러나 최회숙을 비롯한 재봉대원들은 선뜻 응할수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도무지 움직일 형편이 못된다는것을 그들은 누구나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숙동지께서는 물론 적들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드리고 명령을 집행하는데서는 천번중 한번의 실수도 없어야 된다고 늘 말하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요행수를 바라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상처입은 몸에도 불구하고 술선 앞장에 서시여 재봉대를 안전한곳으로 피신시키신다.

사령부의 안녕과 명령지시 관철에서는 단 한번의 실수나 추호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친위전사 김정숙동지의 드림없는 신조이고 의지였다.

이러한 김정숙동지이시였기에 7년세월 그처럼 소식을 몰라 안타까와하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조카애가 백초구에 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600벌의 군복을 다 만들기전에는 재봉대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시는것이며 사사로운 일로 오중흙동지와 경위대원들이 잠시라도 사령부결을 떠나게 한 자신을 끝없이 질책하시며 장군님의 신변을 위해 그들모두를 당장 돌려보낼것을 강경히 제기하시는것이다. 그리고 대사차치기전투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여 은밀

히 기여드는 적병놈들을 소탕함으로써 장군님의 신변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시는데있다.

소설에 그려진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전사의 립장과 자세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있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신념화된 충실성은 특히 3호밀영을 건설하는 나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대부대선회작전준비의 일환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행군로의 중요지점들에 소부대를 파견하시여 밀영도 건설하고 식량도 마련하는 등 사령부와 주력부대를 맞이할수 있는 준비를 미리 갖추도록 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과업을 받고 주력부대의 참모장 림수산도 북부조선의 연사지구일대인 3호밀영으로 가게 되였다.

그러나 림수산은 몇차례의 식량공작에서 실패하고 적들의 신문에서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를 알게 되자 제 정신을 잃고 동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흔들린 신념은 혁명에 권태감을 가지던 그의 넋을 송두리채 앗아갔으며 결국은 그로 하여금 장군님의 명령지시를 어느것 하나 집행할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때 3호밀영에 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정세가 그 아무리 엄혹하다 할지라도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승리는 필연적이며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오직 승리의 길뿐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사령부의 명령을 관철하는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러나 림수산은 몇차례의 식량공작에서 실패하고 적들의 신문에서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를 알게 되자 제 정신을 잃고 동요하기 시작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험한 적구로 또다시 내려가시여 지하혁명조직의 방조밀에 식량도 구하시고 사령부와 주력부대를 맞이하기 위한 밀영건설도 다그치시면서 이신작작의 모범으로 박상진소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을 이끌어주시고 림수산을 깨우치시였다.

그리고 림수산의 자유주의적이며 무경각한 행동으로 3호밀영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에는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림수산과 열띤 론쟁도 벌리고 운신하기 어려운 앓는 몸으로 사령부를 찾아 설한풍을 뚫고 나가시였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기의 죄과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권총까지 뽑아들고 앞길을 가로막던 림수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림수산동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세가 달라진다고 혁명의 원칙을 바꾸다니? 사령부가 대부대선회작전을 그만둔단말입니까? 우리의 혁



명원칙은 우리 장군님의 사상입니다. 우리 장군님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정세가 변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혁명을 했습니까. 우리는 혁명을 시작할 때부터 장군님 사상대로 우리 힘으로 무장을 잡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장군님의 전략과 전술로 싸워이겼고 또 이기고있어요. <우리는 장군님을 믿고 혁명을 한다.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은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린 철석같은 신념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백번을 죽은들이 신념을 버릴수 있겠습니까!》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장군님께서 세셔야 우리의 혁명이 있고 우리모두의 생명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 바로 여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빛나는 구감이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성심의 심원한 세계가 있으며 영원하고 억센 뿌리가 있다.

하기에 림수산은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 길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혁명적신념, 불굴의 정신력앞에서 정신적패배감에 휩싸여 허덕이는것이다.

이처럼 가장 엄혹한 정세하에서도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확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보위해가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구체적인 력사적사실로 생동하게 재현하고 깊이있게 밝혀낸데 이 소설의 력사적가치가 있으며 그 철학적심오성이 있다.

소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애를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동토대도 무르녹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그 어떤 사심이나 가식도 없이 자신을 다 바치시는 무한한 헌신성은 수령님의 참된 친위전사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이루는 근본바탕이며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는 어머니의 참다운 인간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시고 사령관동지의 마음속상처를 가셔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에서 잘 알수 있다.

총소리 한방 울리지 않고 체포된 리금준의 리해할수 없는 행동은 일부 사람들속에 분분한 의견을 일으켰다.

한것은 그가 지난 겨울 청봉밀영의 학습강사로 있을 때 혁명의 일시적인 시련기앞에서 동요하며 배신자 엄가놈의 반혁명적행위에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지 못하고 추종함으로써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파오를 범한적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후

리금준은 자기의 파오를 성실하게 반성하고 고침으로써 마침내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연사지구의 정치공작원으로 파견되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가 체포되자 그때의 파오를 끄집어내며 그의 지조와 절개에 의혹을 표시하였던것이다. 그중에는 림수산도 있었다. 그는 리금준이 체포된 소식을 듣자 그의 행동을 대뜸 투항변절로 낙인하며 사령부의 위치를 옮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전우를 잃고 가슴아파하시는 장군님의 마음속아픔을 먼저 헤아려보시었다.

혁명은 동지를 믿고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며 혁명동지 한사람을 위해서라면 전염병도, 수천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던 우리 장군님이 아니신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것처럼 믿던 전사가 의심을 받는것이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시여 속을 태우시는 장군님의 절절한 말썬에 그 위험한 연사지구로 자신께서 직접 내려가시겠다고 제의하신다.

그리고 한몫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밤에도 수십리 령길을 왕복해가시며 끝내 리금준의 깨끗한 량심과 혁명적절개를 증명하시고 혁명조직을 복구하여 그가 못다한 임무도 완수하심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신다.

무릇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을 믿지 않고서는 그에게 정을 주어 사랑할수도, 그를 위해 헌신할수도 없으며 혁명을 위해 한생을 바쳐갈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의지도 키워줄수 없다.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를 함께해온 혁명동지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기에, 동지에 대한 믿음과 의리에 이처럼 충실하시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의심받는 동지의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보증하고 증명하시는것이다.

웅근 한개편에 걸쳐 펼쳐진 이 생활화폭은 비록 단순한것 같지만 동지에 대한 믿음과 의리에 투철하시고 나아가서는 사령관동지의 마음속 깊은곳까지 헤아려 기어이 심려를 덜어드리시는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한없이 고결한 인간미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인간적품모는 의사들도 꺼려하는 열병환자(장철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고의 밀림속에 스스로 찾아가 간호해주시며 편사활동안 온 산판의 눈속을 뒤흔치고 25리 밖에까지 나가 기어이 산나물(닥지썩)을 뜯어오시는데서와 그 누구도 믿지 않던 송진섭을 조국광복회 연사지구위원회의 핵심성원으로 내세워주시는데서 그리고 《강자앞에서는 설혹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제힘에 비례하여 살아야 한다.》던

문재천을 애국애민의 정신으로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는데서도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특히 김정숙동지의 성격적면모를 보여주는데서 문신옥의 형상은 자못 의의깊다.

부자집에 장가든 오빠로 하여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해온 문신옥은 나이팅게일을 숭배하며 막연하게 선의를 지향하는 순진한 처녀였다.

그는 자기를 친일적인 은행업자의 집에 들여보내려는 오빠의 성화와 울케의 구박에 참을수 없어 모대기던중 때마침 만난 유격대소대장 박상진(그들은 유격대에 입대하기전에 서로 알고있었다.)을 따라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유격대에 들어온다.

신옥은 유격대의 생활이 생각했던것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것이였지만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인간적면모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특히 삼하령수림속의 비밀련락장소에서 처음 만나뵈왔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남다른것이였다.

한결음만 달리 깊으면 전혀 다른 세계를 걸어갈수 있으면만 큰 유혹을 물리치고 산으로 들어온 신옥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가장 의로운 길을 걷도록 각별히 마음을 쓰시였다.

하여 재봉대의 작식일을 자진하여 맡고 누구도 모르게 군복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신옥이의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그가 주눅이들거나 시련앞에 주저앉지 않도록 따스한 손잡아 이끌어주시기도 하고 지하공작임무와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받드는 길에서 전사는 어떻게 싸워야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깨우쳐주시기도 한다.

그처럼 자신을 혹사하시면서도 언제 한번 힘들거나 맥을 놓고 주저앉지 않으시는 그이의 모습앞에서 신옥은 정말 립수산의 말처럼 혁명가들은 피도 생각도 보통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수한 체질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라고 하여 남들보다 덜 힘들거나 덜 피곤한것은 결코 아니였다. 오히려 몇배나 더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곱절로 부담이 많으셨고 누구보다 지칠대로 지치시였다.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시였으면 행군길에 빠진 나지막한 웅덩이에서조차 스스로 나오지 못하시고 신옥이에게 도움을 청하시겠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오직 남달리 비상한 정신력, 《인간을 사랑하고 동지를 귀중히 여기며 장군님과 혁명에 충실한 그 정신력》으로 모든 시련과 난관을 곳곳이 이겨내시였던것이다.

문신옥은 김정숙동지의 그처럼 뜨겁고 열렬한 인간애와 무한한 헌신성, 한없이 고매한 사상정

신세계에서 참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끝없이 매혹된다. 그리하여 늘 가슴에 품고 다니던 나이팅게일의 전기책도 아낌없이 불살라 버리고 김정숙동지만을 생활의 귀감으로 삼고 따르리라 굳게 결심하는것이다.

그 과정에 신옥은 혁명이란 무엇이고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으면 대사하치기전투에서는 김정숙동지의 모범을 따라적들의 불의적인 기습으로부터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억센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소설은 이처럼 혁명을 알고 그 리치를 깨치기전에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인간적품모에 먼저 매혹되어 그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나는 문신옥의 형상을 통해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신념화된 충실성을 뚜렷이 부각하고 고결한 인간적품모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우리 인민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위대한 충성의 구감이시였다.

장편소설 《설령의 붉은기》는 다음으로 확고한 혁명적신념이 부족하고 대원들과 차이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인간은 혁명의 엄혹한 시련앞에서 동요하게 되며 종당에는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지고만다는 인생의 철리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김정숙동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립수산의 성격형상에서 생동하게 밝혀지고있다.

늘 표가 나는 옷차림으로 대원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립수산. 혁명가는 피도 생각도 다 특수한 인간이어야 한다면 자기를 보통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비범한 존재로 간주하는 립수산.

중학시절부터 풍운의 뜻을 안고 혁명에 나섰으며 그처럼 열렬히 공산주의혁명을 부르짖은 립수산이였건만 적들의 발악적인 최후공세로 혁명이 장기화되자 그에 권태감을 가지고 점차 안일한 생활을 추구한다.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3호밀영에 나온 립수산은 정세가 급변하자 《지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사령부의 지시를 신축성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십년이 걸릴지 백년이 걸릴지 모를것이 혁명》인데 《숨도 좀 돌리》자고 안온한 생활을 한다. 그는 대원들이 고삭은 지붕아래서 멀건 수수죽물을 끓일 때 호화로운 모포와 꽃방석을 놓은 구들목에서 밀영에 우연히 끼여들어온 하인옥으로부터 팔알이 다문다문 박힌 이밥과 색다른 식찬, 지어 술까지 대접받으며 생활한다.

어렵고 곤난한 때일수록 대원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생활하는것은 생사를 함께 나는 혁명동지들의 고상한 품성이며 의리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먹는것부터 차이나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시각부터 동지들과 한편이 될수 없다. 다시말하여 날아오는 총탄도 함께 막으며 한전호에서 싸우는 혁명동지가 될수 없다.

이것은 생활의 진리이고 력사의 교훈이다.

대원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 동지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정신이 부족한 림수산은 대원들과 차이나는 식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차 그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혁명에 권태감을 가지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혁명가의 의리마저 저버리고 적들의 주구로 전락되고만다.

그 어떤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 그는 급변하는 정세와 놈들의 대병력 앞에 쉽게 동요하는것이며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던 나머지 변절의 추악한 나락에까지 굴러떨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소설은 림수산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혁명가의 참다운 한생을 빛내이고 혁명군대의 진정한 지휘일군이 될수 있다는 생활의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림수산의 성격형상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장편소설 《설령의 붉은기》는 예술적형상의 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대부대선회작전을 전후한 시기의 력사적현실을 순차적인 구성수법으로 펼쳐보이면서도 작품의 형상적요구에 맞게 인물선과 인간관계, 사건선들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조직하였다.

소설에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주선으로 하여 문신옥과 서영순, 리금준과 박상진, 송진섭과 문재천 등 다양한 인물선들이 설정되어있지만 그 모든 인물형상들은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인간적 품모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을 보여주는데 철저히 이바지하고있다.

여기서 문신옥은 작품의 전반적인 인물관계와 사건관계의 중심에 서서 모든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부각해주고있으며 이야기줄거리의 전개와 구성의 립체성과 흥미를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문신옥의 형상으로 하여 소설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더욱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었고 작품의 견인력과 정서적감흥을 한층 높였다.

소설은 김정숙동지와 림수산의 성격적대조와 갈등을 기본주축으로 이야기를 들어나가면서도 처음부터 그에 초점을 둔것이 아니라 2편까지는 생활의 매 계기점마다에서 발현되는 김정숙동지와 림수산의 성격적차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수법

을 쓰고 3편에 와서야 비로소 극적갈등을 본격적으로 야기시켜 심화발전되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리금준의 체포와 3호밀영사건을 두개의 큰 봉우리로 하고 여기에 수많은 크고작은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집중화함으로써 작품의 흐름을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게 하고 구성의 깊이와 진실성을 훌륭히 담보하였다.

이와 함께 리금준의 체포로 하여 마음쓰시는 사령관동지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인 묘사라든가 혁명이 간고해질수록 전사들을 더욱 위해주시는 장군님의 거룩한 인간애와 크나큰 믿음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심리묘사 등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숭고한 의리를 보여주는데 력점을 찍어 인상깊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을 뚜렷이 부각해주는 깊이있고 분석적인 세부묘사들은 그 기를 진 화폭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금준등》에 관한 세부만 놓고보자.

남다른 손재간으로 미묘한 《공예품》을 수많은 만들어 대원들을 기쁘게 하고 부대의 살림을 윤력하게 만들던 리금준은 그만 청봉밀영에서 엄중한 파오를 범하고 강직되었다. 그때 그는 자기가 파오를 범한것은 사상수양을 게을리한탓이라고 하면서 기관총탄피를 두드려 만든 반사경이 달린 등잔앞에서 밤늦도록 장군님의 로작을 학습하곤 하였다.

그리고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어는 행군의 실참에도 잠만 있으면 등잔에 달린 반사경의 동판을 깨끗이 닦곤하였다.

늘 반짝이며 빛을 뿌리는 《금준등》, 그것은 마음속의 그을음을 깨끗이 가셔내고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사상만을 믿고 따르려는 리금준의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영원히 비쳐주는 마음의 등불, 신념의 등불이었다.

하나의 생활세부를 통해서도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뚜렷이 밝히고 작품의 철학적깊이와 생활의 진실성을 담보한 여기에 이 소설이 거둔 중요한 예술적성과가 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6부 《설령의 붉은기》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시고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업적과 고귀한 혁명적생애를 예술적화폭속에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하여 소설은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대를 이어 충효를 다해갈 우리 인민의 새해의 총진군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 감자꽃 필 무렵

김상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산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는데 감자밭엔 흰꽃이 만발했으니…》

소설가 김창식은 무연히 펼쳐진 천산덕의 감자꽃바다를 바라보며 흑수농장기사장 리광철에게 감탄조로 말했다.

리광철은 너부죽한 철색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머금고 감자밭을 바라보며 응대가 없었다. 영특하게 빛나는 그의 눈길에는 사색이 비꼈다. 소설작품을 쓰겠다고 찾아온 작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생각중인듯싶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 빛나는 태양, 산줄기마다에 선홍색으로 물드는 단풍, 감자밭의 푸르싱싱한 잎새들과 핀 꽃바다, 개곡을 씻으며 사رح치는 개울물… 펼쳐진 자연풍경은 그 빛갈들의 선명하고 다양한 색조로 하여 그림처럼 아름답다웠다.

《감자농사가 참 잘됐군요. 마가울까지 이렇게 싹이 푸르고 두벌꽃이 만발한건 처음 봅니다.》하고 김창식은 나직이 말을 이었다. 《처서비는 재물비라고 감자는 처서비를 이겨내지 못해서 역병에 걸려 싹이 일찍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리광철은 놀라운듯 두눈을 치뜨며 김창식을 바라보았다.

《작가선생은 감자농사에도 밝으십니다. 감자농사를 출창하는 사람들처럼 말씀하는군요.》하는 리광철의 말에

《감자농사를 짓는 흑수농장 천산덕에 올 때야 그쯤한것두 몰라서야 되겠습니까?》하고 말하며 김창식은 레사로운듯 껄껄 웃었다.

향기로운 돌베냄새를 담은 선들바람이 불어왔다. 두사람은 까만 열매들이 무르익어 해빛에 진주알처럼 반짝이는 발머리의 구름나무숲을 지나 산전막에 이르렀다.

기사장 리광철은 소설가를 막안으로 안내하고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런지 그럼 들어주시시오.》

## 1

《분조장동무, 큰일났어요. 천산덕감자종자가 다 썩었어요!》

분조원들과 함께 들것으로 속성퇴비돌가마를 들어내고있던 나는 검수원 금복이가 숨이 턱에 닿아하는 말에 흠칫 굳어졌다. 어찌도 급히 뛰어왔는지 홍조로 불든 처녀의 얼굴은 땀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손맥이 탁 풀렸다. 들고가던 들것이 저절로 땅에 떨어졌다. 보름전만 해도 아무일

없다던 천산덕움의 감자종자가 아닌가.

금복이가 성급히 말을 이었다.

《어서 가봐요. 분조장, 밭목이 폭폭 빠질지경이예요. 썩기 시작할 때 퍼내서 골랐어야 하는건데… 때가 늦었어요. 감자가 얼었던게 녹으니까 그렇게 된거지요.》

나는 가타부타 말없이 천산덕포전으로 향하였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전에는 믿어질것 같지 않았다. 분조의 감자밭들중에서 노란자위라고 할수있는 천산덕포전의 새 품종 감자종자가 썩어서 못쓰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엄중한 사고가 어디 있겠는가. 작물배치를 할 때 새 품종인 《S》호 감자종자를 분조마을가까이에 보관했다가 가까운 포전에 심자는 작업반장의 의견을 접수하지 않고 감자종자는 해밭고가 높은곳에서 재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일 멀고 지대가 높은 천산덕이 적지라는 주장을 세워 끝내 천산덕움에 보관하도록 했는데… 작업반장이 이 일을 알면 뭐라고 말할것인가. 올해에는 새 품종 감자농사를 잘해서 내년에는 온 작업반에 새 품종을 도입하겠다고 자동차, 트랙트르를 끌고 60리나 되는 읍에까지 가서 진거름과 분토를 50차나 실어왔는데 어쩌면 일이 이렇게도 꼬이다니…

리당비서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해하겠는가. 새 품종 《S》호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고있던 리당비서였는데… 《S》호는 우리 농장 기후 풍토조건에 잘 맞지 않는 품종이라고 몇몇 기술지도원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 확신있게 말하던 한동락리당비서의 음성이 귀가에 울려오는듯만싶었다.

《<S> 호보다 더 수확이 높고 생육기일도 긴 <T>호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판 농장들에 심어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S>호부터 심어보고 점차 <T>호를 가져다심도록 하여봅시다. …》하고 리당비서는 《S》호를 주장하였다.

천산덕으로 숨가빠 달려가는 경향없는 속에서 나는 갖가지 번거로운 생각으로 마음을 괴롭혔다.

금복의 말이 틀릴리 없었다. 옷부분만 썩고 아래부분은 썩지 않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허물어졌다. 비지땀을 철철 흘리며 감자움에 서로 교대로 들어가 삼태기로 담고 또 담아내도 역시 썩은 감자알이 터지고 짓이겨져 성한것도 썩은 물에 흠아 종자로는 못쓸 형편이었다. 이제는 이 감자움의 전량을 사료로나 넘겼지 종자로는 못



쓴다는것이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었다. 버들개지가 붓끝처럼 부풀어오른 개울가의 버들숲에서 이름 모를 메새 한마리가 《삐쭈르르 삐쭈르르… 삐쭈르르 삐쭈르르》 하고 나를 조롱하듯 울어댔다. 그 새는 마치도 《분조농사 모르는… 머저리, 머저리야…》 하고 우짖는듯 나의 귀에는 들려왔다. 《얼렸던게 분명한데 왜 우리가 미처 몰랐을가요. 인차 퍼내서 고르고 말리워 넣었더라면 일없겠던걸 이젠 어쩌면 좋아요.》

나는 기가 질린 금복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용기도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거름을 장만하는데만 정신팔려 감자종자관리를 무책임하게 해온 죄책감으로 하여 나의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봄날에 이 많은 감자종자를 어디에 가서 해결받을수 있단말인가.

《금복이, 얼른 가서 작업반장한테 사실대로 알려라구, 이걸 덮어놓고 내 인차 따라갈테니…》

분조농사를 위하여 빨리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자각이 앞선듯 금복은 가법게 몸을 일으켜 마을 쪽으로 종종걸음쳤다.

퍼내놓은 감자를 동그랗게 모아놓고 마른 새초단들을 가져다 덮고나서 흙을 묻으려 삽을 박는데 작업반장 최림성의 탁한 음성이 등뒤에서 울리었다.

《가만, 어디 좀 보지요. 광철동무.》

반장의 뒤에 선 금복이를 보고 나는 영문을 알아차렸다. 분조에 왔다가 분조원들의 말을 듣고 달려오던 반장을 금복이가 도중에서 만나 함께 왔으리라는것을…

덮은 새초를 헤쳐놓자 최림성반장은 얼거나 썩지는 않았으나 고름같은 걸쭉한 오염물에 매닥질되어 어지러워진 감자 한알을 집어 들고 유심히 관찰하는것이였다.

《벌써 병이 들었군. 종자로는 쓸것 같지 않은데… 분조장동무생각엔 어땡소?》

《종자로 쓰기는 틀렸습니다.》

나는 겨우 이렇게 말하고는 얼어붙은듯 입을 다물었다. 작업반장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랑패는 없었을것이 아닌가.

작업반장은 아무말도 안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나의 가슴을 찢었다.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는 최림성반장이였으나 어두운 그의 눈빛에 심한 자책의 빛이 어려있음을 나는 보았다.

《풀질임구덩이에 옷설미를 해서 새로 만든 움이지?!》 하고 최림성은 나에게 뚱겨주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더 말하지 않는 그의 속대사를 읽을수 있었다.

《광철이 이사람, 자넨 왜 돌로 벽을 쌓은 풀질임움이여서 다른 움들보다 랭기를 받아 감자가 얼수 있다는걸 생각 못했다. 서리받이 락엽만 두

툼하게 덮었더라도 이런 실수가 없었을게 아닌가.》 하고 그의 눈길은 말하고있었지만 그는 종시 입을 열지 않았다.

작업반초급일군협의회의때 《ㅅ》호품종만은 분조마을가까이에 보관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던 작업반장의 말이 고막을 치는듯싶어 나는 낮이 뜨거워졌다.

《오늘저녁 리당에서 농사차비총화때문에 작업반장들 협의회의가 있는데 사실대로 반영하겠소.》

어느덧 분조마을에 당도하자 최림성은 조금 밝아진 안색으로 말했다.

나는 회색숨옷을 입은 최림성반장의 뒤모습이 산굽인돌이로 사라질 때까지 못박힌듯 그자리에 서있었다. 숨막힌듯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였다.

## 2

다음날 아침 관리위원회에서 회계과장 서병률이 반장과 함께 분조에 내려왔다. 키도 크지 않고 몸집도 체소한데다 성격마저 너그럽지 못하고 뻔죽하고 모가나서 사람들에게 좋다는 소리를 못듣는 회계과장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의 야박스러운 말이 어찌도 아프게 가슴을 굽는지 참을수 없을 지경이였다.

《분조장, 우리가 늘 말해주지 않았소. 분조를 비우고 나다니지 달라고… 메돼지를 잡으러 갔다가 짐돼지를 놓치는격이라고 말ियो. 농사군이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데 종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왔으니 이젠 뭘로 농사를 짓는단말ियो. 남의 말도 들을건 들어야지. 하늘스되발통같은 분조장고집이 어떤 결과를 빚어놓았나 보란말ियो.》

방금 감자움에서 나온 최림성이 듣다못해서 병률의 말을 밀막다싶이 말했다.

《회계과장, 너무 그러지 마우. 가파나 속상해하는 분조장을 위로는 못해줄망정… 거름을 많이 실어들인건 잘한 일인데 그걸 타발할건 뭘요.》

그러자 서병률은 더욱 신경이 곤두선 날카로운 음성으로 내쏘았다.

《아따, 반장은 참 인정이 많아 좋겠소. 문제가 얼마나 엄중하게 서는줄은 모르구… 종자 열톤이 작은 량ियो?! 당장 법앞에 나서야 할 판인데 정말 무사태평하구만…》

분조원들이 들어올리는 감자삼태기를 받아주며 최림성이 유유히 대꾸했다.

《일하는 사람이 파오도 범하는 법ियो. 회계과장이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을테니 마음놓소.》

반장의 탁한 음성은 나직이 울렸으나 서병률의 발언을 위압하는 힘이 있었다. 최림성의 엄엄한 눈길에는 《우리 분조장이 분토를 싣느라고 추위에 떨며 고생스럽게 다닐 때 회계과장은 편히 지내 고도 무슨 큰소리료?!》라는듯한 칼날같은 질책의 빛이 어려있었다.

나는 서병률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군자동차사업소의 자동차들을 리용하여 본토를 실어오도록 군행정경제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주었으므로 운임문제를 토론했다. 부기장한테 갔던 때의 일이 피륙 떠올랐다.

서병률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기문건에 수자들을 기록하면서 마뜩지 않게 말했다.

《분조장은 남달리 별뚝스럽게 구누만… 우리 프락토르들이 실어와도 될텐데 남의 차까지 쓰면서… 농장에 무슨 돈이 많아서 거름심는데까지 돈을 물겠소. 분조에서 자체로 벌어서 물테면 무오.》

나는 각쟁이처럼 구는 부기장이 얄미워서 부아통이 터져올랐지만 꼭 참았다.

《부기장동무, 차사업소신탄화목림지가 우리 농장복합골안이 아닙니까. 빈차로 들어오기보다 본토를 실어다주고 갈 때 화목을 심겠다는데… 그거야 서로 좋은 일이지요. 운임도 절반만 무슨셈이구요.》 하고 나는 사정껏 말했다.

그런데도 서병률은 더욱 평평한 표정이 되며 《난 모르겠소. 여태 그런 운임을 지불해본적은 없으니까. 관리위원장한테 제기하오.》 하고 딱 잘라 말하였다.

나는 부기장 서병률에 대하여서는 손바닥들고 최림성반장에게 사실대로 반영하였던 것이다.

최림성이 거름실이운임문제를 풀자고 서병률을 찾아왔다가 대관 다투었다는 말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이 문제로 하여 서병률은 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한테 호되게 비판받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풀면 될 일이지 부기장이 뭐길래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는가.》 고 툭툭히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 일이 있는 다음부터 서병률은 나에게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별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도관리위원회에 반영하여 비판받게 만들었고 이따금 분조에 내려왔다가도 포치되는 사업내용이나 전달하고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고 공무니를 사리곤하였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나는 자신의 사업방법과 작풍문제가 걸려서 서병률의 감정을 사게 되지 않았는가고 자신을 반성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부기장과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는듯만 싶어 최림성반장에게 안타까운 나의 심정을 내비치자 그는

《일하자는 사람한테는 반대파도 생기는 법이요.

그까짓 개의치 말고 그럴수록 분조장은 더 주대 있게 일을 내밀라구.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면 두려울게 없소.》 하고 대범스럽게 웃는 것이었다.

오늘 종자감자를 일꾼 이 시각, 서병률부기장의 발언을 어찌 지난 시기의 감정적대립의 연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마디의 말도 없이 더욱 엄엄한 기상으로 본조원들과 함께 감자만 퍼내고있는 최림성을 지켜보고있던 서병률은 겨우 자신을 자제하는듯 목소리를 조금 낮춰 말하는 것이었다.

《그럼 반장이 이 책임을 다 안아말아보우. 우린 모르겠수다. 감자종자에비가 있는데는 없는거구, 비옥분조사료를 종자로 못쓰는거구… 어디서 나서 이 넓은 밭의 종자를 해결하겠소.》

최림성은 물론 그 누구도 서병률의 말에 응대하지 않았다. 모두가 성난듯한 얼굴로 입을 꼭 다물고 일들만 수직수직 하고있었다. 서병률이라도 쭈그리고 앉아 성한 감자알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따분하고 긴 침묵이 계속될수록 나는 마음이 더욱 무겁기만 했다. 감자종자를 일꾼 자신의 잘못때문에 본래부터 좋지 않았던 립성반장과 병률부기장 사이가 더욱 나빠지는듯만 싶어 자책감이 컸다. 한철 참 일하고난 서병률은 일이 있어 이젠 그만 가봐야겠다며 일어섰다. 반장은 그가 가겠다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내가 따라 일어서며 몇발자국 옮겨놓자 서병률은 본조원들이 들을세라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분조장동무 다섯시까지 리당으로 오우. 리당 비서동무가 기별합디다.》

서병률은 최림성반장과 다투고난 불쾌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듯 개운치 못한 안색으로 나의 인사를 받으며 떠나갔다.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서니 겁에 질린듯한 얼굴로 안해가 말했다.

《여보, 당신 무사할가요?! 부기장이 오전에 와서 반장과 다투기까지 했다면서요?!》

나는 안해를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 할말을 찾지 못하였다. 안해는 너무도 걱정스러워서 점심밥도 먹지 않았다. 나역시 밥맛이 없었지만 안해가 보는 앞에서 안먹을수도 없고 하여 억지로 밥을 먹었다. 그러나 안해는 먼저 먹었으며 종시 밥술을 들지 않았다. 그는 수심비긴 얼굴로 애원하듯이 말했다.

《여보, 부기장한테 사정해봐요, 좀 도와달라구… 부기장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풀자꾸나 하면 작업반마다에서 종자감자 한두툰씩 조절 못하겠어요.》

안해는 나의 얼굴표정에서 무엇인가 읽은듯 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기껏 이삼십원씩 물면 되는 거름실이운임조차 못주겠다고 해서 반장과 다툰적이 있는 각쟁이부기장한테서 무슨 동정을 바란단말인가. 소릴 뽑아 제구멍에 맞출만큼 용수없는 사람한테서 과연 무얼 바랄수가 있단말인가. 이러한 심리가 나의 얼굴에 그대로 비친듯 안해는 더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안해의 마음을 안정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나는 대범하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소. 사내라면 제 잘못을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책임을 모면할 생각부터 하면 그야말로 비겁한 인간이요. 별일 없을테니 마음 놓소.》

그래도 안해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은 가셔지지 않았다.

《전 어쩐지 겁이 나요. 당신이 잘못될가봐… 부기장이 했다는 말이란 생각하면…》

나는 안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여보, 너무 근심마오. 농사짓자고 애쓰다가 지른 실수인데 무슨 크게 문제될게 있겠소.》

하지만 나의 말에는 안해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아무런 담보도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애기 얼리듯 안해의 손에 손갈을 쥐여주어 겨우 점심밥을 먹도록 하였다. 오후 다섯시에 리당비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안해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근심이 많은 그를 더 괴롭힐 것만 같아서였다.

### 3

리당사무실에서는 전화를 거는 리당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기척을 울리려던 나는 무춤 굳어졌다.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니 못박힌듯 그대로 서서 듣는 수밖에 없었다.

《지난 겨울 눈이 적게 와서 땅이 깊이 언 사정파도 관계됩니다. 예, 우리가 각성이 무디고 대책을 잘 세우지 못한 탓입니다. 예,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요즈음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꼭 고치겠습니다. …예… 감자종자문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수는 없으나 리당비서가 분명 나의 문제를 가지고 상급에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가슴이 섬적해짐을 느꼈다. 나의 잘못으로 하여 리당비서에게 얼마나 큰 화를 끼치고있는가. 숨이 차오르고 관자노리의 피줄이 툭툭 튀는 듯했다. 들어서는 안될 말을 엿듣고 있다는 자책감때문에 문앞에서 물러서려 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한동락리당비서의 목소리는 이미 끝나가고있었던 것이다.

《예, 예, 인차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군경영위원회에도 제기하고…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절박 수화기를 놓는 소리가 들린 다음에도 나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야 손기척을 울리었다.

《예, 들어오시오.》

발음이 좀 굳은듯한 리당비서의 음성이 울리기 바쁘게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동락리당비서는 여느때없이 근엄한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다. 본래 무뚝한 성격인데다 여느때없이 심각하고도 엄숙한 그의 표정은 나의 마

음을 더 줄아들게 하였다.

《어디 말해보오, 어떻게 하다가 그 술한 종자 감자를 일궈서 못쓰게 만들었는가를 말이요.》

리당비서의 음성은 나직했으나 서리가 풍기었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듯하여 선뜻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왜 말이 없소? 분조를 비우고 나다니는것때문에 우리한테 충고를 들은것만도 몇번이요?! 동무는 일품이나 제킨다고 좀 내세워줬더니 확실히 들렸소. 교만해지구… 동지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것두 교만한 표현이요.》

불을 뿜는듯한 리당비서의 노기를 띤 음성과 칼끝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온몸으로 감득하며 나는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을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리당비서의 신랄한 추궁은 계속되었다.

《동무의 말은 들어보나마나요. 적은 량도 아니고 종자를 열톤이나 썩여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수 있단 말이요. 파오의 엄중성으로 본다면 동무는 분조장으로 일할 자격조차 없소.》

나는 그 어떤 추궁도 달게 받을 결심을 안고 들어왔건만 알수 없는 예리한 아픔이 심장을 찌르는듯 하였다. 리당비서까지도 온 겨울 추위에 떨며 감자농사를 잘하겠다고 분토와 진거름을 읍에서부터 실어들인 나의 수고를 못알아주는것이 아닌가. 이러한 서운한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며 몇몇치 못한 반발심으로 나의 심혼을 뒤흔들어놓았다. 이제는 벌써 부끄럽게도 리당비서의 비판이 정당한것으로 나의 귀에 안겨오지 않았다.

그 어떤 기대와 희망을 품고 불안한 마음을 누갓히며 리당비서한테 찾아왔는데 성이 난 그의 얼굴을 보느라니 마지막 한줄기의 기대마저도 끊어져버리는듯한 허무감을 느끼었다. 나는 손땀이 탁 풀리며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고싶은 피곤함과 허탈감을 느끼었다.

얼구는듯한 리당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이 울리고있었다.

《광철동무, 어디 말해보오, 어떻게 하겠소. 무엇보다 동무는 조직과 대중의 신임을 회복하겠소?》

리당비서의 물음에 더는 대답을 회피할수 없게 된 나는 저도 모르게 불쑥 말해버렸다.

《비서동지, 전 이제 더는 분조장을 못하겠습니다. 판고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시키는대로 일하면서… 성실한 로동으로 파오를 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허리를 꼴꼴이 펴고 리당비서를 마주보던 나는 입을 벌리지 못했다. 극도의 실망과 분노, 측은한 동정과 연민의 정이 엇갈린 리당비서의 눈빛과 표정의 변화를 가려보았기때문이었다.

나는 여태 그러한 리당비서의 눈빛과 표정을

본 일이 없었다. 피륙 정신을 차린 나는 자신이 방금 얼마나 의리부당한 말을 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쏟아놓은 물을 퍼담을 수 없듯이 뽐아놓은 말을 걷어들이수는 없는것이다.

한동락리당비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안을 거니는 그의 무거운 발자국소리가 나의 가슴을 옥죄어둘게 했다.

방금 전화를 걸던 리당비서의 겸손하고도 허심한 음성이 고막을 울리며 자신을 뼈아프게 질책했다.

(배은망덕한놈,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앞으로 꼭 고치겠다고 웃일군에게 전화를 걸던 리당비서의 허심한 모습을 보고도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어서 용서를 빌어라. 이 비렬한 녀석아.) 하고 나의 리성은 말하고있었으나 이미 쏟아놓은 물사발이여서 리당비서가 나의 말을 받아줄리 없었다.

한동락리당비서는 무거운 안색으로 오래도록 방안을 거닐었다. 십분, 이십분, 삼십분... 이렇게 한시간도 켜 더 지나갔다. 나 역시 선자리에 얼어붙은듯 고개를 푹 숙이고 서있었다.

《비서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배은망덕한 쓸개빠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조장사업을 더 잘하는것으로써 파오를 씻고 조직과 집단의 신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가슴속에서 솟구쳐올라 입안을 뱅뱅 맴도는것이였으나 중시 압박으로는 튀어나가지 않았다. 삽시에 달라진 본색을 드러낸다면 더욱 믿지 못할 뻔뻔스러운 인간이 아니겠는가.

이윽도록 한본새로 방안을 거닐던 리당비서가 드디어 결심을 내린듯 나에게로 돌아서며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돌아가오. 광철동무, 그리고 래일저녁에 리당으로 다시 오시오. 우린 동무문제를 리당위원회에서 보아야 할것 같소.》

나는 아무말도 못하고 리당비서에게 인사하고 나서 돌아섰다.

내가 리당사무실에서 나올 때의 시간은 벌써 밤 열시가 넘었다. 별이 총총하였다. 별빛총총한 밤하늘에 방안을 거닐던 리당비서의 실망과 측은한 동정과련민의 정이 엷취인 강파른 얼굴이 어려왔다. 나의 마음은 집에서 떠날 때보다 비할바없이

무거웠다. 뼈아픈 죄책감에 머리까지 지근지근 찌시었다.

자는줄만 알았던 안해가 벌떡 일어나며 다우쳐 묻는다.

《어딜 가셨다가 이제야 오세요?》

수심비긴 그 표정, 그 음성이었다. 나는 연약한 안해의 마음속에 그들을 던져줄것만 같아서 리당비서가 불려서 갔다가 왔다는 말만은 할수가 없었다.

《감자종자를 좀 해결받을가해서 갔댔소. 관리위원회에...》

《부기장한테요?》

《음...》 하고 나는 엉겁결에 수궁하였다.

그제야 안해는 마음이 놓이는듯 저녁상을 차리느라고 서둘렀다.

## 4

사흘이 지난 어느날, 나는 머리가 뒤송송하여 분조원들과 어울리고싶지도 않아서 혼자 분조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리당협의회의때 농장초급일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비판주던 한동락리당비서의 음성이 지금도 고막을 울리는듯싶었다.

《이것은 비단 리광철동무 한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부 초급일군들속에서는 패배주의적경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 기분주의적경향도 많습니다. 일이 잘된다고 하면 사기가 난다면서 일하고, 무엇이 좀 잘못돼서 비판이나 받으면 우울해지고,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심지어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당의 품에서 초급간부로 자란 동무들이 당에서 안타까와하는 농사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누가 풀수 있단 말입니까?》

동무들은 당에서 가장 믿어주는 농촌핵심들, 초급간부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광철동무, 어제 내앞에서는 잘못했지만 여기 모인 동무들앞에서 말해보시오. 어떻게 종자혁명무 하구 분조농사를 잘해서 당의 신임에 보답하겠는가 하는것을 말ियो.》

내가 동지들앞에서 무슨 말을 했던가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있다.

혼자생각에 파묻히여 일손을 놀리는데 불현듯 최림성반장의 탁한 음성이 높히 울렸다.

《분조장이 여기 있는걸 찾았구만. 자 그 일은 그만하고 당장 출장 떠날 차비를 하우.》

나는 영문을 알아차릴수가 없어 멍청하니 그를 마주볼뿐이였다.

《채종농장에 새 품종 감자종자를 싣러 우리 차석대, 군에서 두대가 래일 떠나는데 동무가 책임지고 가기로 관리위원회에서 지시가 있었소. 그동안 분조사업은 내가 직접 말아보기로 했소.》

나는 너무도 뜻밖의 일을 당하여 몸둘바를 모를 지경이였다. 감자종자문제때문에 하루를 백날 맞잡이로 보내며 가슴을 조여왔는데 어찌면 일이 이렇게도 쉽사리 풀린단말인가. 나는 너무도 꿈만같은 일이어서 얼어붙은듯 그자리에 섰채로 작업반장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최림성이 사연을 설명했다. 군경영위원회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군종자관리소와 감자채종농장의 교섭이 이루어져 채종농장에서 감자종자 새 품종 《7》호 10톤을 우리가 넘겨받게 되었다는것, 그대신 군배합사료공장에서 강냉이를 국가

비율수량으로 싣고 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아서 눈만 껌뻍거리고 있었다. 일부 기술지도원들이 《ㅅ》호의 일련의 약점들을 말하면서 그보다는 생육기일도 길고 부패률도 적으며 맛있고 전분함량도 높은 함육계통의 늦품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계기를 하여왔을 때 그들의 의견을 접수하면서도 우리가 당장은 《ㅅ》호부터 먼저 도입해야 할 절박성을 설득력있게 말해주던 한동락리당비서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키웠다. 그때 리당비서는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야 할 품종은 채종농장에서 얼마전부터 재배하고있는 새 늦품종 《ㄱ》호라고 명확히 말했었다. 《ㄱ》호는 《ㅅ》호보다 맛도 좋고 전분함량도 높으며 수확고도 훨씬 높을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장점은 역병에 강한것으로써 처서장마비에도 끄떡없고 마가울까지 썩이 싱싱하고 두벌세벌꽃까지 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농장들에서 증생종으로써 일찍 캐여 남새대용으로 쓸수도 있는데다 수확고가 매우 높은 《ㅅ》호를 선차적으로 심는 것이 좋다고 했었다.

그러면 그때 한동락비서는 군종자관리소의 일군들을 통하여 《ㄱ》호의 내막을 알고 우리 초급일군들에게 말해주었던 말인가?

풀기 힘든 수수께끼인양 나의 머리속에서 이런 생각이 맴도는데 최립성은 말을 이었다.

《리당에서랑 관리위원회에서랑 토론이 많았어요. 광철동무가 감자종자를 개량하겠다고 애쓰는데 잘 도와줘야겠다면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ㅅ>호보다 더 좋은 <ㄱ>호를 가져다가 우리 농장뿐 아니라 온 군에 퍼뜨리자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오.》

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문득 가슴을 치는 한가지 생각은 이렇게 빨리 천산덕의 감자종자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리당비서의 숨은 노력이 안반침된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군경영위원회와 합의를 하여 시급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상급일군에게 전화를 걸던 한동락비서의 허심한 음성이 문득 들려오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분조장사업을 못하겠다고 제기했을 때 리당비서의 얼굴에서 표정과 눈빛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던가. 극도의 실망과 동정과련민의 정이 뒤섞인 표정과 눈빛으로 몇 시간 동안이나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며 방안을 거닐던 한동락비서의 침울한 얼굴이 눈앞에 어려와서 나의 가슴은 저릿하였다. 리당협의회의 때 신랄하게 나를 비판해놓고는 동지들 앞에서 떳떳하게 결심을 말해보라고 부추겨주던 리당비서, 종자혁명도 하고 분조농사도 잘하겠노라고 결심을 명백하게 터놓으라고 나를 고무해주던 리당비서의 눈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빛났었다. 천

산덕에 새 품종 감자종자를 넣어줄 확고한 담보가 없이 그날 리당비서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ㄱ》호를 가져오게 한 주인은 리당비서이다. 리당비서가 나서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빨리 문제가 풀릴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드릴 수 없는 확신이 생기게 되자 것처럼 웅심깊은 리당비서의 비판을 삭이지 못해서 배은망덕하게 군 자신이 더욱 미워졌다.

길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리당에 들렀더니 리당비서가 나를 반겨맞으며 몇가지 농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마지막 당부로 그는 부기장을 꼭 만나고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광철동무, 이번에 부기장동무 수고가 컸소. 동무네가 실어보낸 사료감자를 종축반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어 부기장동무가 직접 작업반비육분조마다에 싣고다녔다오. 그리고 감모량까지 다 계산해서 비육분조사료전감자들을 받아 배합사료공장에 다섯차나 실어내갔단지 않소. 병률부기장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배합사료장냉이를 대곡으로 받게 된거요.》

거름 한차 실어들이는데 이삼십원밖에 안되는 운임조차 주지 않으려고 깍쟁이를 부리던 서병률 부기장이 어쩌면 이렇게 탄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리당비서의 말에 깜짝 놀라며 내가 사람을 잘못 알고 대해왔던가 하는 의혹을 감출 수 없어 하였다.

나의 심리를 간파했음인지 리당비서는 더욱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일렀다.

《지난날엔 광철동무가 부기장동무를 좋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번엔 부기장이 분조장동물 적극 도와줬다는 걸 잊지 마오. 웅철던 마음을 풀어야 하오. 꼭 만나고 떠나시오.》

연구실 앞마당의 화단에 꽃씨를 뿌리고있는 관리원을 도와 거름을 늘어가고있는 부기장을 발견한 나는 곧장 그리로 뛰어갔다. 그는 내가 인사말을 건네기도 전에 먼저 벉글벉글 웃으며 말했다.

《분조장이 수고하게 됐구만. 그렇게 큰 화주가 되어보긴 처음이 아닌가?》

나는 그의 통말에는 개의치 않고 정색하여 말했다.

《부기장동무,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비서동지한테서 얘길 들었습니다. 비육분조들에서 감자를 다섯차나 싣고 배합사료공장에 갔다왔다는 거랑...》

서병률이 껄껄 웃으며 나의 말을 밀막았다.

《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뽀뽀해서 썼나 했구만. 분조장, 이 사람, 말도 말라구. 난 이번에 혹은 뚝 뻗데. 일하겠대구 아글타글하는 사람들을

잘 돕지 않고 농장재산이나 돈이 나가는것만 아까워서 각쟁이를 부리던 나쁜 버릇, 그 고질적이던 혹을 말아야. 그 혹을 떼자니 얼마나 힘들었는줄 아나? 자네같으면 아마 울었을거야. 수술칼의 그 예리한 아픔때문에... 하하하... 내앞에서 다신 그런 말 하지 말라구.

자넨 참 복받은 사람이야. 좋은 당일군을 만나서 이번에도 오히려 화가 복이 됐거든.》

형언키 어려운 뜨거운 감동의 파도가 나의 가슴속에서 물결쳤다. 따뜻한 아지랑이의 물결이 온몸을 휩쌌다.

나를 떠나보내며 기뻐 어쩔줄 모르던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 잊지 말구 삽시다. 당조직의 이 믿음을... 내가 갔다와서는 모두 말해주겠소. 우리 리당비서동지가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그러자 행복에 겨워 속삭이는 안해의 얼굴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알겠어요. 명길이야 아버지, 전 벌써 짐작했었어요. 리당비서동지가 나서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감자종자 새 품종을 결코 받게 될수 없으리라는 것을...》

남편이 저질러놓은 일이 너무도 엄중해서 근심걱정을 하느라고 이즈음 밥도 잘 안먹고 불편의 살이 다 빠질 정도로 여위였었는데 환희에 넘쳐 웃으며 눈물이 글썽해하는 안해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서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치밀하게 짜고든 감자종자수송이었으므로 연유를 넣고나서 대곡을 싣고 채종농장에 가서 《ㄱ》호 열톤을 받아올 때까지 모든 일이 착착 맞물려 일은 참 잘되어갔다.

종자를 가져다 잘 가꾸어보라고 손저어 바래주는 친절한 채종농장사람들과 작별하고나서 채종농장당위원회에 들렀더니 몸집이 다부지고 얼굴이 검실검실한데다 성격도 활달하기 그지없는 채종농장당비서가 나의 두손을 굳게 잡아주며 말했다.

《동무네 천산덕에서도 <ㄱ>호는 잘될거요. 종자, 두엄, 비배관리가 세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다수확은 문제없소.》

당비서는 오렌지기마냥 허물없이 나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일행이 기다리고있는 급박한 정황임을 간파하고 서둘러 작별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동무네 당비서가 무척 애착을 가지는 새 품종인데... 분조장동무의 손에 달려 잘되고 못되고가 결정되는게 아니요. 동무는 참 좋은 당비서와 일하고있더구만. 가을에 <ㄱ>호가 잘됐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천산덕에 가보겠소.》

채종농장당비서의 바래움을 받으며 운전칸에 올라 떠나면서도 나의 귀결에는 그의 열정적인 음성인 울리는듯만싶었다.

(한동락당비서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구나. 친구

나 동창생일런지도 모르지.) 나는 이렇게 단정하였다. 그제야 한동락비서가 감자종자들에 대하여 것처럼 깊은 파악을 가지고 우리 초급일군들이 끌어주고있는 비결이 어느정도 리해되였다.

천산덕포전에 《ㄱ》호를 가득가득 실은 차들이 들어서던 날 분조는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안해는 분조의 녀인들을 휘둥하여 운전사들을 대접하느라고 떡도 빚고 국수도 눌렀다.

종자담도 서슴없이 내놓으며 잡자고 하는 안해가 대견해서 나는 껄껄 웃으며 룡말까지 했다.

《당신이 이젠 적극분자가 됐소. 분조일에 쓰겠다면 앞으론 돼지라도 선뜻 내놓겠는걸. 허허허.》

우리 농장뿐아니라 군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천산덕의 감자농사여서 분조원들모두가 이전에 볼수 없던 깐지고 알뜰한 일삼씨로 철을 앞당겨 씨불임을 하고 김을 매고 덧비료를 쳤다.

안해가 녀인들과 함께 천산덕감자밭에 복지비료를 주고온 날 저녁이였다.

《여보, <ㄱ>호품종은 싹이 나올 때부터 벌써 달라요. 잎이 넓구 실한게... 보기만해도 막 육식나구 잘 가꿔야겠다구 맘먹게 되는군요. 금복이랑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올해 감자대풍은 문제없다구 말예요.》

철을 앞당겨 농사를 짓느라고 피곤에 몰릴대로 몰린 안해면만 피발이 선 두눈에는 환희로운 미소가 반짝이고있었다.

어느덧 알비료주기도 끝나고 감자꽃이 피기 시작했다. 모든 농사일일이 쭉쭉 펴여가던 어느날, 안해가 근심어린 얼굴로 나에게 달려왔다.

《여보, 큰일났어요!》

숨가빠 말하는 안해의 음성은 떨렸다. 감자종자때문에 마음쓰던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안해의 수심어린 모습이였다. 나는 마음을 조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천산덕감자밭에 벌써 메돼지가 들었었어요. 비료가 떨어져서 맨 우에 몇고랑 못꿨던걸 마저 주느라구 갔었는데 두고랑이나 푸쳐놓았어요.》

예상못한바는 아니였다. 메돼지가 감자알에 맞들이기전에 막을 치고 경비원을 배치했어야 하였다. 나는 자신에게서 또하나의 빈구석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후회란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

《여보, 제가 천산덕을 맡아 경비서겠어요.》 하는 안해의 말에 나는 혼자생각에서 깨어났다.

《뭘요? 당신 그제 정신이 있는 말이요? 밤중에 어떻게 혼자 가있겠다구...》

《명길이가 있잖아요. 데리고 가서 함께 있지요. 금복이랑 처녀들두 서는데 저라구 왜 못서겠어요. 집살림은 어머님한테 맡기구요.》

《어디 좀 토론해보지요.》 하고 나는 레사로운듯 말했지만 안해의 웅심깊은 속마음이 헤아려져 그에 대한 억제할길 없는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얼마나 달라진 안해의 모습인가.



어느날 오후, 한철참이 지나서 한동락리당비서가 분조에 왔다. 그는 분조원들과 함께 땀흘리며 배추모음기기를 끌내고나서 분조의 밭들을 돌아보라며 나를 이끌었다. 그는 마을가까이의 포전들을 세심히 살피며 감자, 강냉이, 콩 등 곡식들의 작황을 가늠하고나서 《천산덕엔 저녁식사나 하고 가봐야지.》 하고 말하며 우리 집쪽으로 먼저 밭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저녁을 짓느라고 수고한다며 인사를 하고난 리당비서가 물었다.

《이집 머느린 어딜 갔습니까?》

《예, 천산덕에 경비본다구 갔쇠다.》

어머니가 차린 저녁상을 들여왔다. 밤이었다. 반찬이란 고작해서 감자지지개, 양배추볶음, 절임명태 등이 전부였다.

밥을 몇술 뜨는동안은 하고난 리당비서가 물었다.

《아주머닐 누구와 함께 보냈소?》

《혼자 보냈습니다.》

《산속경비막에 혼자 보냈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답니다. 아들과 같이 있으니깐요.》

《아들이 몇살이기에?》

《여섯살입니다.》

《여섯살... 음...》 하고 리당비서는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여섯살이면 다 자랐지요. 우린 그 나이에 미국놈 폭격 뚫구 후퇴를 했구 전쟁두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리당비서는 어느새 모자를 벗겨쓰고 일어서며 말했다.

《자, 그럼 경비막들을 돌아보고 천산덕에도 가봅시다. 올핸 도토리나 돌배 같은 산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산짐승들이 전부 농작물에 덮썩우는군. 땀흘려 지은걸 여물기도전에 그놈들한테 뺏겨서야 되겠소.》

포전에 이르렀다. 별빛 총총한 속에서도 벌써 사그러들기 시작한 감자포기들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처럼 향기롭던 감자꽃냄새도 풍기지 않았다.

《이 밭에 우리가 이미 심던 <ㅎ>호를 심었지?》

《예.》

《<ㄱ>호와 대비하면 작황이 어떻소?》

《비료와 두엄도 똑같이 넣고 똑같은 품을 먹여가렸는데 <ㅎ>호는 <ㄱ>호에 비하여 수확고가 절반으로 떨어질것 같습니다. 더구나 역병에 견딜힘이 약해서 장마철이 지나서부터는 싹이 사그러들고 꽃도 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서비에 녹았던말이지. 처서비는 재물비라더니...》

《그런데 <ㄱ>호는 점점 더 푸르싱싱해집니다. 꽃도 더 많이 피구...》

《그래. 그것 참 좋은 일ियो. 그래서 우리가 중

자개량을 하는것 아니요. 됐소. 광철동무, 이젠 마음놓ियो.》

기쁨에 넘친 리당비서의 모습은 나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근엄한 얼굴로 바뀌며 지난 일들을 련상시켰다... 그때 리당비서가 나를 믿어주고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기쁨과 보람을 상상조차 할수 있겠는가.

문득 언제인가 새 품종 《ㅅ》호를 도입할 때 포전길을 함께 걸으면서 들려주던 리당비서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가 감자 새 품종을 도입하자는건 어버이 수령님 뜻 받들어 농사를 더 잘 짓자는것이요. 광철동무한테 전국농업대회때 알게 된 사실을 전하겠소. 어버이수령님께서 감자종자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농장들을 찾으시여 종자혁명을 하도록 이끌어주시었소. 수령님께서 어느 한 농장에 나가셨을때 일ियो. 시험본조의 감자를 손수 캐해보신 그이께서는 감자가 참 잘들었다고 만족해하시며 감자종자를 육종한 그 농장 육종가를 친히 만나 주셨다오. 그 육종가란 오직 감자농사를 잘 지어서 수령님께 기쁨드리겠다는 마음으로 50줄을 넘기도록 근기있게 감자종자를 연구하고 육종해온 평범한 농장원이었소. 어버이수령님께서 <교5>호와 <교6>호를 만들어낸 육종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동무야말로 진짜 감자박사요. 동무가 만들어낸 감자가 이렇게 잘 들었으니 량강도는 감자가 밭곡식의 왕이라는걸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었소. 고맙소. 감자박사동무.》 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육종가의 감격과 행복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었겠소. 어버이수령님 교시를 받고 농장원이 대변에 <감자박사>가 됐소. 광철동무도 그 <감자박사>처럼 우리 농장 기후풍토에 맞는 종자를 만들어낼수 있지 않소.》

그때 리당비서의 이야기는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었다. 그 농장 《감자박사》처럼 육종은 못할지언정 남들이 심고있는 새 품종이야 왜 도입하지 못하랴. 이러한 충동이 새 품종 《ㅅ》호를 도입하도록 나를 추동하였던것이다.

불빛이 보이였다.

《저기가 경비막이요?》

《그렇습니다.》

《꽤 멀구만...》

부엌문은 열려있었다. 구들에 앉아 중태노곤을 꾀고있는 안해의 모습이 희미한 등불에 드러났다. 인기척을 느낀 안해는 내가 오는줄만 알고 심상히 여기며 열심히 노곤을 비비면서 밖을 내다본다.

우리는 부엌에 들어섰다. 손님이 온것을 깨닫자 안해는 당황해하며 일손을 놓고 일어섰다.

《리당비서동지와 경비막을 돌아보는중이요.》

안해는 옷깃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숙였다.



《이런 산속에… 혼자서 무섭지 않은가요?》  
리당비서는 허물없이 구들에 올라섰다.

《어서 앉으세요. 방이 어지러워서.》 널려진 노끈과 피오래기들을 거두며 안해는 어쩔줄 몰라했다.

《남자들도 혼자선 꺼릴텐데… 용하오.》 리당비서의 두번째 인사말에 안해는 어쭙게 대답했다.

《일 없어요. 이애가 같이 있으니 위안이 됩니다.》

안해는 아래목에서 자고있는 아들에에게 눈길을 준다. 리당비서는 잠시 말없이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바닥에는 색바랜 구름노전이 깔리고 귀틀벽에는 노끈통구리들과 한벌의 작업복이 걸려있고, 부엌에는 가마가 한개, 물바게뜨와 바가지 한개, 식기 한개가 눈에 띄일뿐이었다.

안해는 부엌에 내려가서 수박색보자기를 썬 나무가마뚜껑을 들고 올라와 우리앞에 놓으며 《이거라도 좀…》 하고 보자기를 벗겼다. 감자지짐이었다. 그런데 원, 그릇이 없어서 가마뚜껑에 담아올건 뭐람, 나는 너무도 난처하여 찬장대용인 시렁널을 살폈다. 나의 속심을 눈치챈 리당비서가 말했다.

《누게살이에 무슨 그릇이 있겠소. 그런데 웬지짐을 이렇게… 오, 주인이 오길 기다렸구만… 하하하… 그럼 난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됐구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어서 드세요.》 하고 안해가 수줍게 웃으며 권했다.

《자, 그럼 아주머니도 같이 드시다.》

리당비서는 반달형으로 포개여놓은 큼직한 지짐점을 저가락에 꿰며 안해에게도 권하였다.

《전 많이 먹었어요. 너무 늦어서 이제 못오시나 했었는데… 캄캄한데 같이 오셨군요.》

안해는 노끈을 꼬기 시작했다.

《왜 안잡수세요?》

《별맛이어서 많이 먹었수다… 나두 좀 파불가.》

한동락비서는 만류할새도 없이 어느새 피노끈을 스즈스적 비어나갔다. 능숙한 솜씨였다. 버짙으로 꼬는 새끼와는 달라서 피오리가 서로 감기여 꼬기가 썩 말쑥데 버짙새끼꼬듯 슬슬 비어나가는 품이 많이 꼬아본 솜씨가 분명했다.

《피노끈꼬는 솜씨 보니 리당비서동진 본시 산골사람 같습니다.》하고 내가 말하자 그는 《그럼, 나두 대홍산골내기외다. 체대되어 고향에 와서는 류벌공이 되어 폐목도 타구 다녔구… 물동공사두 해보구…》하고 말하고는 더욱 열심히 비어나갔다.

나는 밖에 나와서 한참동안 땡땡… 요란스럽게 종을 치며 《우여… 우여…》고함을 지르고나서 다시 방에 들어왔다. 리당비서는 안해와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이런데서 혼자 외롭겠는데… 생각이 많아지

요? 이렇게 가을걷이준비로 노끈까지 꼬느라니 오죽하겠소.》

리당비서는 미소를 머금고 안해를 바라보았다. 안해는 피오리를 꼬기 쉽게 잘게 찢어서 그에게 섬기었다. 리당비서가 대답을 기다리고있는데도 수줍게 웃을뿐 통 말이 없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안해는 얼굴이 감빛이 되며 힘들게 말을 꺼냈다.

《비서동지, 전 사실 천산덕감자종잘 몽땅 못쓰게 만들어와서 올해농사를 망칠가봐 잠두 못자구 밥두 못먹었됐어요. 그런데 <7>호 새품종 열톤을 몽땅 천산덕에 심도록 해주셨으니… 그 고마운걸 생각하면… 비서동지, 그래서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알릴락말락 고개를 끄덕이는 불빛비낀 리당비서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리어있었다.

《비서동지, 이제 밤이 깊었는데 돌아갑시다.》

나는 시계를 쳐다보고 이렇게 권했다.

《돌아가다니? 우리 여기서 자지요.》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계실텐데요.》

《여기서 자구 새벽에 감자밭들을 돌아봅시다.》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한동락비서의 눈길에는 《젊은 안해를 산속에 홀로 두고 가긴 어딜 간단말이요?》라는듯한 질책의 빛이 담겨있었다.

나는 별수 없이 베개가 필만한것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한동락비서는 부뚜막과 구들사이에 놓인 봇나무통을 가리키며 《난 이런걸 베고 자는데 습관된 사람ियो.》 하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아이, 어찌나… 그럼 이거라도…》 하고 안해는 명길이를 덮어주었던 조그만 포단을 포개여 권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리당비서는 그것마저 사양했다.

《우린 군대때두 경비근무에 습관된 사람ियो. 통나무베개는 참말 고급ियो.》하고 말하던 그는 추억한 눈빛이 되며 한동안 동안을 두었다가 썩진중한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광철동무, 우리가 어떻게 한시인들 편히 쉬거나 잘수가 있겠소.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눈비를 맞으시며 포전길을 걸으시는데… 밭고랑을 베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를 잘 지어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리겠다는 충성의 일념을 꽃피우는것은 우리 농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아니요!》

리당비서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잠들수 없었다.

감자채종농장에 갈 때 경영위원회에 들렀더니 기사장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광철동무, 잊지 말라구, 동무가 범한 파오는 사실이야 엄중하지, 하지만 한동락리당비서가 모든 책임을 걸머지고 나섰으니 무사했거든. 동무가 만약 당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채종농장에 새 품종을 가지려가기는커녕 분조농사두 하지부지해져서 분조장직무도 지탱할수 없게 됐을거요.

그러니 당조직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일을 더 잘하오. 다시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하고…》

코를 끌며 자고있는 한동락비서의 모습을 보느라니 나의 가슴은 저릿해졌다. 얼마나 피곤에 몰렸으면 통나무베개를 베고도 저렇게 푹아떨어지겠는가.

안해도 역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듯 열심히 노곤만 꼬고있었다. 나는 밖에 나와 또한번 종소리를 뽕뽕… 울리고나서 들어와 안해의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다.

## 5

어느날, 부식토를 실으려고 천산덕포전의 맨 아래쪽 밭머리에 소밭구를 벗겨놓고 평가서를 정리하고있는데 이쪽으로 다가오는 두사람의 모습이 물황철나무들사이로 바라보였다. 한동락비서는 첫눈에 알아보았는데 회색 여름모자를 쓰고 잠바옷을 입은 사람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나에게로 다가오던 한동락리당비서가 《광철동무, 누가 왔나 보우.》 하고 분조에 온 손님을 소개해서야 나는 그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순간 나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 채종농장 비서동지시군요. 룡담인가 했더니 정말 이렇게 찾아올줄은… 반갑습니다.》

나는 당비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분조장동무가 농사를 잘 지어 <1>호작황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해서 구경을 왔소. 리당비서동무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바람에. 허허…》

채종농장당비서는 유쾌하게 껄껄 웃어제끼며 담배부터 한대씩 피우자고 권하는것이였다.

나는 채종농장당비서가 목재종합공장에 연구실을 꾸리는데 사용할 합판을 실어가려고 차를 끌고왔다가 우리 농장에 들렀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한고랑도 빠진곳 없이 잘되어 푸르싱싱한 싹이 무성하고 흰꽃이 만발한 감자꽃바다를 한동안이나 둘러보고난 채종농장당비서가 말했다.

《리당비서동무, 우리 감자보다 더 잘된것 같습니다. 질투가 날 지경인데요. 허허허… 어쩌면 이렇게 잘 가졌는지 비서동문 참말 아래사람 복이 있습니다. 광철동무같은 분조장을 가지고있으니…》

한동락리당비서는 빙그레 웃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는 어느새 허리를 굽히고 감자 한포기를 파보기 시작했다. 한포기에서 주먹보다 훨씬 큰것이 네알, 계란보다 클사한것이 두알, 밤알만한것이 두알, 도합 여덟알이 나왔다.

《광철동무, 예상보다 더 켈것 같구만.》

리당비서는 기뻐하였다.

《허허, 정말 대단한 수확이구만, 이 정도면 정보당 서론톤씩은 문제 없겠습니다. 싹이 싱싱한걸 보면 아직 더 크겠는데…》 채종농장당비서도 매우 기뻐하면서 덧붙였다. 《우리한테서 온 <1>호가 이렇게 잘됐으니 저도 기쁩니다. 세간난 아들이 근심걱정없이 사는것을 보는것처럼 기쁘단말입니다. <1>호가 우리 농장에서 세간났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허허허…》

채종농장당비서는 말해놓고보니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음인지 멧적은듯 웃었다.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비서동무, 우리 농장 천산덕에 뿌리내린 채종농장의 세간난 아들이 이제 왕성하게 번성할것입니다.》

큰소리로 유쾌하게 껄껄 웃으며 서로 마주보는 두 일군의 친근한 모습을 보느라니 나는 뭐라고 표현할수 없는 뜨거운 가슴속 격정을 느꼈다. 그들의 말투로 보아 채종농장을 떠나올 때 두사람의 사이가 동창생이거나 친구일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었다는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농장에 도입할 새 품종 감자종자들때문에 알게 된 사이가 분명하다는것을 그들의 대화가 실증해주었다.

《리당비서동무, 저것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산천엔 단풍이 들어도 <1>호는 싱싱한 채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품종이 우량종인가구 수확고도 높단말입니다.》

두 당일군은 단풍일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산밭들과 흰꽃이 핀 푸른 감자밭을 서로 대조라드하는듯 번갈아보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서동무 말씀따라나 그래서 더구나 제가 <1>호 품종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것입니다. 몇가지를 제외하고야 서리가 올 때까지 피는 꽃이 별로 없지요. 찬서리를 이겨내는 꽃이야말로 얼마나 강의한 의지의 상징입니까!》

활달한 웃음만이 넘실거리던 채종농장당비서의 얼굴에 진중하고도 엄숙한 빛이 어렸다.

《흑수농장리당비서동무가 저에게 참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땅을 따르는 신념과 량심을 지켜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뚫고나갈 강의한 의지를 갖추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서리를 이겨내는 꽃- 그래서 비서동무가 <1>호품종에 것처럼 애착을 가졌됐군요.》

한동락비서 역시 진중한 낯빛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채종농장비서동무가 어쩌면 그렇게 제 심정까지 알아주시는지 고맙습니다. 사실 혁명을 위해서 한생을 꽃피운다는것은 강한 의지를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지요. 더우기 인민들과 언제나 고락을 같이 해야 하는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

서 강한 의지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락리당비서가 캐보았던 감자알들을 파묻고 있는사이 채종농장당비서는 함께 밭을 좀 돌아보고 나를 이끌었다. 나에게 요긴한 이야기를 들려줄것이 있어 그러는줄로 감촉한 나는 슬며시 그를 따라섰다.

말소리를 분간하여 들을수 없을만한 거리로 한동락비서와의 사이가 떨어지게 되자 드디어 그는 말하였다.

《분조장동무, 동문 참 좋은 당일군과 함께 일하고있다는걸 잊지 마오. 지난봄 우리 채종농장에서 종자문제가 여간만 긴장하지 않았겠소. 그런걸 동무네 당비서가 나를 찾아와서 너무도 간절하게 제기하기에 우리는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판곳에 줄것을 좀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장해주자고 합의가 이루어져 별별 방법을 다 찾아내서 그 열돈을 채워냈던거요.》

나는 저도 모르게 무릎 걸음을 멈추었다. 뜨거운 격류가 심장을 광광 두드리는듯싶었다.

리당비서가 직접 채종농장에 갔던것을 나는 왜 여태 모르고있었던가.

(에잇, 청맹파니같으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산덕의 분조장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여태까지 경영위원회나 종자관리소에서 어느 지도원이 채종농장에 찾아가 교섭하고 왔겠거니 어리석게 생각하고있었으니...)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뜨거운 눈물이 어리어 방울방울 불을 타고 흘러내림을 나는 의식하지 못하였다. 나는 채종농장당비서의 갈린듯한 음성을 꿈결에서마냥 듣고있었다.

《감자종자 열돈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운명 문제라고 하면서... 그 열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리당비서를 할 자격이 없으니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얼마나 간곡하게 나를 설복하는지... 처음에는 못주겠다고 딱 잘라뱉었는데 리당비서동무의 애길 듣고는 지배인동무를 설복해서 둘이 함께 뛰어다니며 집집마다의 <7>호까지 모아들여 풀었던것이요.》

나는 그를 따라섰다. 눈언저리가 불길해지고 얼굴에 온통 얼룩이 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끄러울것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보다 높은 경지에서 변심없이 땅을 받들어가고 있는 우리 리당비서-한동락비서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가슴뿌듯하게 차올랐다. 그는 또 다른곳에서 감자포기를 파보느라고 허리를 굽히고있었다. 맑게 개인 하늘에서 밝은 태양이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었다.

×

《기사장동무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감자꽃바다

가 더 마음에 들고 황홀해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절경입니까.》

김창식은 이렇게 말하며 다시금 무연히 펼쳐진 감자밭쪽으로 눈길을 주는것이였다.

《전 사실 이렇게 감자꽃 필 무렵이면 한동락비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몽클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젠 나이도 들고 농장기사장사업까지 말아보느라니 저를 키워준 당일군을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우기 그때 안해가 지켜서있던 이 경비막에 밤에 찾아와서 통나무베개를 달게 배고 자면서 들려주던 이야기가 드문히 생각나군하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해주시려 눈비를 맞으시며 포전길을 걸으신걸 생각해서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일깨워주던 리당비서의 얼굴이 이따금 눈앞에 방불하게 떠오르군합니다.》

《기사장동무의 애길 듣고 저도 사실 충격이 큼니다. 기사장동무가 훌륭한 당일군을 알게 해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하고 말하던 김창식은 한참 동안을 두었다가야 물었다.

《최림성반장동무와 서병률부기장동무는 지금 무슨 일들을 봅니까?》

《최림성동무는 부위원장으로 일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보실수도 있을겁니다. 서병률동무는 여전히 부기장사업을 맡아보구요.》

김창식은 즐겁게 우짖는 이름모를 산새소리와 산천의 그윽한 향기에 취한듯 두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며 심호흡을 하고나서 말했다.

《리당비서동문 어디 출장갔습니까? 올 때 들렀더니 부비서동무가 저를 맞아주더군요.》

《군에 회의갔습니다... 참... 한동락비서동지는 이젠 우리 농장에 계시지 않습니다.》하는 리광철의 말에 김창식의 두눈에는 몹시 서운한 기색이 어리었다.

《그럼 어디 조동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운흥리 리당비서로 사업합니다. 얼마전에 기사장들 방식상학을 운흥리에서 해서 가봤는데 한동락비서동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자세로 일하고있더군요. 오히려 전보다 더 열정과 패기에 넘쳐 일을 내밀고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운흥농장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리당비서에 대한 평판이 참 좋더군요,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당의 구호대로 이신작직할뿐아니라 저를 키워주듯이 모든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충신들로 키우고있습니다.》

《리당비서동무를 만나지 못하는것이 섭섭하긴 해도 기사장동무한테서 좋은 애길 들었으니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김창식의 사색어린 눈가에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 삶의 푸른 언덕에서 부르는 심장의 노래

-송찬웅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에 대하여-

김의준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의 마지막장을 덮었다.

읽기를 마치었으나 아름다운 감흥은 그냥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고있다. 많은련상이 떠오른다. 생각이 깊어진다...

금수산기념궁전이 솟아빛나고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평양! 사상과 의지도 기상과 담력도 감정과 정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평양은 시인에게 있어서 운명도 미래도 희망도 다 없고사는 삶의 푸른 언덕이었다.

심장에서 울리는 목소리다.

공감이 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제는 시인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감을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심장을 불태우는가 하는데 있다.》**

삶의 푸른 언덕에서 정열에 북받쳐 노래부르는 백발을 인 시인의 모습이 어려온다. 앞가슴엔 포연내 아직도 풍기는 군공메달들, 땀에 젖은 공로메달들... 그리고 눈부신 《김일성상》 메달...

그처럼 어렵던 나날에 손에 총을 잡고 지켜냈고 흠집을 저나르며 높이였고 오늘은 붓을 들어 자랑하는 삶의 푸른 언덕이어서 걱정엔 넘쳐 웨치는 아들의 저 목소리 이리도 열정에 타고 눈물겹게 살뜰하고 사무치게 진정 어린것인가.

...평필을 고누어들었으나 손이 점점 무거워난다.

가벼이 내두르지 못할 평필일진대 차라리 시집의 첫장부터 또한번 음미해보는것이 좋을상싶다.

### 투철한 수령관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략관을 안겨주는 사상에술적감화력을 가지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한데 있다.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시가창작에서 기본인 기본이다.

우리 시가문학은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이다. 따라서 시가문학은 수령관과 밀착되어있으며 수령관을 떠나서 시가창작을 생각할수 없다.

시문학에서 수령관구현의 본질적내용은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것과 마찬가지로이다.》**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 집약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사상적무기로서의 시문학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은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며 혁명적수령관구현은 시가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의 최고표현이라 할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시를 창작하는가? 무엇때문에 시를 창작하는가? 이 물음에 우리 시가문학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시를 창작한다, 원쑵와의 판가리싸움에 나선 인민들에게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시를 창작한다, 사회주의승리의 신념과 생활의 량만을 주기 위하여 시를 창작한다고 대답할것이다.

시창작에서 혁명적수령관의 구현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에 대한 민감한 반영 등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시가작품의 사상에술적감화력을 높이는데서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문제가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에서 혁명적수령관의 구현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시대의 주도적감정으로 포착하고 깊이있게 형상한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깊이있게 노래하는것은 시가작품에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며 그 핵이라고 말할수 있다. 생활은 숭배심으로부터 결사옹위의 각오도 불요불굴의 의지도 나오며 충효의 자세도 세워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힘있게 구가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순결하고 절대적인 숭배심, 열렬한 흠모심과 충성심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시집에 들어있는 《수령님 따르는 마음》, 《아,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개선광장 푸른 언덕에서》, 《해방산 기슭의 작은 집》, 《10대정강의 노래》, 《시련의 령길에서》, 《인민의 행복》, 《향도의 빛발은 찬란합니다》, 《해쑹은 백두산아 영광 빛나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세》 등 많은 시가들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위인상에 매혹되어 심장으로 승



배하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검소하게 생활하신 해방산기슭의 나지막한 벽돌합숙집을 통하여 당 창건위업에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동 깊이 칭송한 서정시 《해방산 기슭의 작은 집》, 한점의 불꽃에서도 우주에 퍼질 불길을 보시고 한순간의 생각으로도 세기를 앞당겨오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속도전》의 불바람, 무조건성의 기상을 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과 그이에 대한 절대적승배심을 격조 높게 노래한 서정시 《아,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도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충성의 꽃으로 피어난 우리 인민이어서 행복한 나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오직 수령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절절한 승배심을 담은 가사 《수령님 따르는 마음》,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시고 이 땅에 경이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시어 인민의 세기적숙원을 꽃피워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을 담박하게 노래한 서정시 《인민의 행복》, 양양된 정서의 흐름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는 향도의 기수로, 공산주의꽃바다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해발로 높이 칭송하면서 장군님 모신 조신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찬양한 가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세》 등이 시집에 제시되어있는 모든 시가들에는 한결같이 우리 수령님이 체일이시고 우리 장군님이 체일이시라는 승배의 사상감정이 맑고 쟁쟁하게, 줄기차게 굽어치고 있다.

서정시 《시련의 령길에서》는 상대가 누군지 알아볼수 없는 어둠속에서 만나뵈은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간다고, 다른것은 몰라도 이 길이 전정에서 이기는 길이라는것만은 잘 안다고 대답올리며 곳곳이 북으로 달구지를 몰아가는 서정적주인공-농민로인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치 않는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승배심, 그에 뿌리둔 필승의 신념을 감명 깊게 노래하였다.

시집에 형성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승배심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의무적인 형상이 아니다.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할것을 맹세다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리면서 온 심혼과 육신을 다 바쳐오는 과정에 체득한 승배심으로 형성됨으로써 확고하고 진실한 도덕의리의 발현으로, 사심이나 허식이 없는 불변적인것으로 독자들에게 안겨온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에서 혁명적수령관의 구현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예민하게 감각하고 제때에 시화한데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는 곧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시인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에 최상최대로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높은 수준에서 노래할수 있다. 령도자의 의도를 모르고 써내는 시가는 시대를 선도할만한 투쟁의 가치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

시가창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에 민감하다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절실히 요구하고 바라시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그것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형상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시가창작에서 혁명적수령관구현의 기준은 명백하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민감하게 반영한 시가라면 혁명적수령관이 구현된 시가이다. 령도자와 한 혈맥으로 이어져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시인이며 령도자와 한뜻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의 시인인 것이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의 창작경험은 시인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얼마나 민감하게 포착하고 반영하는가 하는데 혁명적수령관구현의 중요비결이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시집에는 금반지에 보석격의 명가사가 수십편 들어있어 퍼그나 이채롭다. 하나같이 시문학의 품격을 갖춘 정교한 시들이다. 이 기사들은 구체적인 생동한 정서를 통하여 깊은 사상을 밝힘으로써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정시에 깊이 관심하시면 전후적인 서정시를 많이 써내고 생활적이며 혁명적인 가사를 많이 요구하실적이면 생활적이며 혁명적인 가사를 많이 써낸 창작자세, 창작기풍은 시인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떼어놓고 달리 설명할수 없다. 바로 이런 창작자세, 창작기풍도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에 구현된 혁명적수령관의 한측면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에 민감한 시인이야 혁명적수령관이 구현된 시가작품들을 써낼수 있는것이다.

시집의 가사 《10대정강의 노래》 창작성과가 이것을 말해준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시인이 심장으로 감수하고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명가사이다. 가사의 내용과 형식을 눈여겨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에 민감한 시인의 독특한 예술적감각과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의 귀가적품모를 적극 따라배운 시인의 옹은 창작자세



를 어렵지 않게 감득할 수 있다. 특히 공화국정부 정강에 담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리론적으로 파악하였을뿐아니라 미학적으로도 민감하게 파악한 시인의 심장은 정부정강을 국가활동의 완벽한 정치리념으로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행복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로 감각한것이다. 정부정강의 구절구절에서 우리 인민과 민족에게 무궁한 사회주의강국과 영원한 룡성번영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생활적으로 가슴저리도록 절감했음이 분명하다. 격동된 시인의 심장은 정부정강의 단순한 정독자, 확인자로서만 남아있을 수 없었을것이다.

이런 남다른 미학적파악으로부터 정부정강을 직접 시화하려는 풍만한 예술적환상이 계발되고 형상적인 착상이 떠올랐던것 이 아니겠는가.

결국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화하는 숭배심이 정부정강에 담긴 수령님의 의도를 미학적으로도 감수하게 하였으며 이 민감성이 《수령님의 위대한 10대정강은 우리 앞길 밝히는 휘황한 등대》라는 철학적이며 생활적인 사상을 특색있게 밝히게 하였던것이다.

시인들에게 이와 같은 개성적인 예술감각이 없으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아무리 리론적으로 심도있게 체득하고있다하여도 혁명적수령관을 작품에 구현하는데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기 일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어느만큼 민감하게 반영하는가에 의하여 우리 시대 시가의 생명력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그렇다고 하여 민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혁명적수령관이 구현된 시가 작품을 쓰게 되는것은 아니다. 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민감한 예술적감수력과 함께 자기의 령도자와 운명을 같이하려는 투철한 각오, 령도자의 의도와 요구를 자신의 사활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 기어이 관철해나가려는 비상한 헌신성과 열정이라는것을 가사 《10대정강의 노래》 창작성과는 확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여러차례의 세심한 지도를 받아 《10대정강의 노래》 가사가 창작완성되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와 같은 노래이라고 높은 평가를 주시였으며 문학사업이 전환의 길에 들어섰다고 기뻐하시였다. 우리 시가문학에서 당정책가사라는 새로운 시가형식이 생겨난것도 이때를 전후해서였다.

그후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90년대 적기가인 가사 《높이 들자 붉은기》를 시대의 명가사로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명가사는 아무의 심장에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박동높은 심장, 잠들 때에도, 잠깔 때에도 오직 장군님의 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동치는 심장에서만 명가사는 태어난다. 이런 심장을 지니였기에 시인은 가사 《눈송이 눈송이》, 《푸른 숲 설레여라》에서 하나의 자연현상을 놓고도 거기에 사회정치적문제를 부여하여 수령님의 은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 진실한 서정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을 안겨주는 사상예술적감화력을 가지게 된것은 다음으로 진실한 서정미를 구현한데 있다.

다 아는것처럼 서정성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다. 시가문학이 참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천만자투의 창검을 대신하는 투쟁의 무기로 되자면 진실한 서정성을 가져야 한다.

시가의 서정은 반드시 진실하여야 한다.

원래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아무리 시가에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능란하게 구현한다 하더라도 서정이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진실한 서정만이 시가에 넋을 부어주고 활력을 주며 풍만한 생활과 아름다운 지성을 주고 심오한 철학을 주게 된다.

시가의 서정이 진실하다는것은 시가가 꾸며지지 않았다는것이다. 시가 사는가 죽는가 하는 결정적요인이 바로 이 서정의 진실성에 크게 달려있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의 《장군님 맞는 날》, 《내 마음의 성새》, 《평양의 새 모습》, 《진대에서 자란 이빨아》, 《내 조국은 은혜로운 수령님 품이라오》, 《해썬은 백두산아 영광 빛나라》, 《일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 내 나라》, 《당의 품은 한없이 따사로워라》, 《그 품속에 당원으로 자랐습니다》, 《당의 뜻 꽃피워 기쁨드리리》 등 많은 시가들에는 그 어떤 현란한 시적표현이나 요란한 수사학적명구도 없고 오묘한 짜임새추구도 엿볼수 없다.

여기에는 다만 이 시대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매일 매시각 보고 듣고 느낄수 있는 생활정서가 담겨졌을뿐이다. 그런데도 이 소박한 시가들은 실감이 있고 친근감이 있으며 감화력도 크다. 읽고나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보람차게 살아온 온갖 감회가 되살아나 가슴이 후덥고 더 잘살아야겠다는 충동이

생긴다. 한것은 아마 시가의 서정이 진실하기 때문일것이다.

서정의 진실성은 시가에 노래된 생활감정이 우리모두의 생활감정과 같은가, 같다면 어느정도 같은가 하는것이다. 우리모두의 현실적생활감과 같으면 진실한것이고 다르면 진실하지 못한것이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의 서정은 시인이 생활에서 찾은 구체적정서를 불타는 심장으로 융해시키고 순결한 량심으로 려파시켜 분출시킨 협상인것으로 하여 진실하게 안겨온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의 서정이 진실한것은 무엇보다도 시대의 본질, 생활의 정수를 포착하여 형상한것과 관련된다. 시인은 온갖 가식과 위선을 배격하고 허례허식과 미화분식을 극력 경계하면서 순결한 시인적량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작품에 진실한 서정을 충만시켜나갔다.

전화의 나날 전호가에서 포연너머 평양하늘을 바라볼 때면 그리움이 사무쳐왔고 적후천리 태백산준령을 넘을 때에도 너를 그리면 걸음에 나래가 돋쳤으며 아득히 떨어진 조국땅 한끝에서도 너를 지켜 불길속을 달렸다고 진정에 넘쳐 노래하면서 오늘은 해와 별을 함께 모시여 마음의 영원한 성새로 솟아빛난다고 걱정을 더뜨린 서정시 《내 마음의 성새》는 평양과 융합된 우리 시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진실한 일반화로 하여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웅장화려하게 변모된 평양의 새 모습을 두고 장군님께서 세기에 남기신 지워지지 않는 령도자육으로 노래한 서정시 《평양의 새 모습》의 서정도 인민의 마음속 진정을 대변한것으로 안겨온다.

가사 《해쏜은 백두산아 영광 빛나라》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장엄한 백두산의 정서와의 조화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장군님 모시여 빛나는 조선의 영광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시대의 본질, 생활의 정수를 포착하여 형상한 이런 시들에는 독창적으로 찾아친 종자가 박혀있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풍만한 서정이 있어 능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준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의 서정이 진실한것은 또한 시인의 생활체험이 진지한것과 관련된다. 시인이 발견하여 새롭게 노래한것들은 생활속에 흔히 있는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수 있는 그런것들이다. 다만 시인은 생활이 환기시켜주는 충동을 진지하게 체험하면서 생활에 대하여 시대정신, 시대정서의 각도에서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고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이 체험했거나 알고있는 그 생활속에서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것을 느끼게 하고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가들에 담긴 생활은 얼핏 현상적으로 보면 평범한것 같다. 그러나 되새겨보면 생활의 깊은 뜻을 느끼게 된다.

특히 가사 《내 조국은 은혜로운 수령님 품이랴오》에 형상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은 누구나 흔히 체험하는 생활이다. 어린 시절 뛰놀 때는 조국의 정다움을 미처 몰랐다는것, 포화속을 헤치면서 조국의 소중함을 알았다는것, 번영하는 주체의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라는 그야말로 누구든 흔히 체험하는 생활밖에 빠져지게 펼쳐진 체험세계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읽고나면 친근감이 가며 많은련상이 떠오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그것은 귀중한 조국을 찾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대한 체험세계가 소박하면서도 현실 그대로 진실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조국, 귀중히 여기는 조국을 두고 미처 느끼지 못했거나 체험은 하였으나 미처 말로써 표현하지 못한것을 시인은 《내 조국은 은혜로운 수령님 품이랴오.》 하고 정답게 깨우쳐주는것이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가사를 읽으면서 두뇌를 살찌우게 되며 기쁨을 얻게 되는것이다.

가사 《일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 내 나라》, 《우리는 공장대학생》, 단시 《총창과 소고》 같은것도 누구나 몸가까이에서 목격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친숙한 생활이 밝은 정서속에 진실하게 담겨있다. 여기에는 생활도 있고 철학도 있으며 형상성도 있고 정치성도 있다. 한줄한줄이 능히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작곡가들의 욕심을 불러일으킬만큼 풍부한 서정성, 심오한 철학적성, 류창한 음악성을 내포하고있다. 도수높은 어휘나 기발한 표현도 없이 알기 쉬운 말로 썼지만 읽고나면 다시 음미해보게 되고 사색하게 된다. 시인이 표현으로 한몫 보려고 하지 않고 생동한 체험세계를 간결하면서 진실하게 펼쳐놓는데 력점을 찍음으로써 많은련상과 긴 여운을 조성시켰기때문이다.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에는 단시, 담시, 풍경시, 풍자시 등 다양한 형태의 시들이 많이 실려있다. 시들은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고 시대정신, 시대정서를 생동하게 구현함으로써 독자들의 사랑을 자아내고있다.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서정의 진실한 구현, 다양한 시형태의 적극적인 활용에서 이룩한 사상 예술적성으로 하여 시집 《내 삶의 푸른 언덕》은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완강한 투쟁정신, 혁명적 락관을 안겨주는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

## 병사의 숨결

리기창

## 1

간밤에 내린 비로 산비탈길은 몹시 질척거렸다.

산발너머로 줄줄이 뻗어간 통신선을 따라 신입 병사 최일남은 힘겨웁게 걷고있었다.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진흙이 군화에 끈질기게 엉켜붙었다.

아직 애터를 벗지 못한듯 숨털이 보시시한 그의 귀인성스러운 얼굴에는 구슬땀이 함뿍 맺혔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산뜻한 운동화에 흙 한점 묻혀보지 못한채 수도에서 일매진 포장도로를 따라 학교로 오고가던 그였다.

며칠전에 그가 배치된곳은 총대가 아니라 권선기를 메고 힘준한 산발과 강을 넘고 건느며 전화를 높이거나 날마다 순회검열하는 산중초소의 통신분대였다.

더우기 일남이의 첫인상에 체육선수를 연상시키듯 술진 눈썹이며 뚱뚱한 코며 두툼한 입술이며 복종을 요구하는 강한 명령조의 목소리며 어느모로 보나 팽팽하고 무뚝뚝하게 생긴 박성근분대장은 자기의 남다른 열망에 대해서는 알은체도 하지 않고 그저 병사생활에 익숙되지 못한 애승이 신입병사로 취급했다. 분대장은 자기한테만 유독 신병훈련을 더 시키는듯싶었다.

분대장의 명령대로 그는 분대가 담당한 수십리 구간의 통신선로를 검열하며 제정된 시간안에 급보로 돌아와야 했으며 통신선로주변의 지형이며 무사고통신보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연장애물이며 매개 전주대며 수많은 애자들의 재질과 형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 했다.

분대장의 요구성은 한치의 에누리도 허용하지 않았기때문에 일남에게 있어서 여간 힘겨운 걸음이 아니었다. 험한 산발과 아찔한 벼랑을 뚫으며 최남쿨에 걸려 곤두박질을 하고 사뭇치는 개울을 건느다가 물산에 밀려 물참뵈이 되기도 하면서 지친 걸음으로 돌아와 보고할 때마다 박성근분대장은 수고한다는 말도 없이 다시 확인해오라고 반복걸음을 시키기가 일쑤였다.

분대장의 목소리는 그의 생김새처럼 엄한 명령조로 일남에게 느껴지곤하였다.

《젠장, 날마다 이런 맹랑한 걸음만 걸어야 하나.》

오늘도 일남이는 볼부은 소리로 투덜대며 발바닥에 튀겨오른 물집에다 성냥따총을 놓고있었다.

그것도 입대하여 배운 처방이었다. 입술을 사

려물고 성냥가치대가리에 불을 대니 불꽃이 튀겼다.

오후에 직일병이 두툼한 편지를 가져다주었다.

편지를 받아들자 결봉을 보니 자기와 같이 입대하여 최전연초소에 배치된 동창생이 보내온 것이었다. 그는 속지를 뿔아들고 반색어린 눈길로 읽어보았다.

...며칠전 군사분계선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자기들을 향해 놈들이 총포탄을 퍼부어대는 악랄한 무장도발책동을 감행한데 대한 보복으로 적들의 화점들을 단매에 짓몽개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최전연초소까지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기들이 일당백의 총폭탄정신을 발휘했다고 분에 넘친 치하와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도록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었다는 것이었다.

동창생이 써보낸 자랑넘친 편지를 읽어본 일남이는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도 최전연초소에 배치되었다면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정신으로 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한바탕 안기고 그런 영광과 위훈을 떨쳤을것이 아닌가!)

일남이가 저도 모르게 손땀이 풀려 한숨을 내쉬는데 등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분대장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흠칫 놀란 일남이는 편지를 주머니에 급히 쑤셔놓고 벌떡 일어섰다.

《일남동무, 오늘은 10호지점과 11호지점 사이로 흐르는 송천강의 수심과 류속도를 측정하여 오시오. 그리고 새로 가설한 14호지점주변의 나무아지들이 비바람이 불면 통신선을 후려칠수 있을것 같은데 잘 살펴보고 피해가 없도록 한다음 돌아오시오.》

박성근분대장은 말마디마다 그루를 박으며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다.

《알았습니다!》

일남이는 아직 어딘가 모르게 익숙되지 못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하고나서 14호지점을 향하여 숨가빠 걸어갔다.

14호지점쪽으로 뻗어간 통신선은 새로 가설한 것이었다.

그 통신선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대부분의 대원들이 협동농장들에 동원된 사정으로 분대에 남아있는 대원들이 두뭇, 세뭇씩 맡아 늘였었다.

군모밀으로 흐르는 땀방울을 연신 닦으며 지척지척 걷고있는 일남의 뇌리에는 불현듯 동창생이

써보낸 편지가 다시금 떠올랐다.

(그 친구 입대하자바람으로 놈들을 죽치구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는데 나는 이제 무슨 꼴이람. 이런 일이나 해가지고서야 언제 남들처럼 장군님 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발휘할수 있단말인가. 도대체 그 친구한테 뭐라고 회답을 써보낸담. 헛참...)

명랑하게 웃을 때마다 불우물이 움푹 패우고 도톰한 입술밑으로 하얀 덧이가 빠금히 보이던 그의 귀인성스러운 얼굴에 요즘은 밝은 웃음기가 스쳐 가서진듯싶다. 썩-썩- 흐르는 물소리가 그를 상념에서 깨웠다. 험한 산밭을 숨가빠 넘어온 것으로하여 소금버께가 내뻗 군모채양을 추켜올리며 눈앞을 바라다보니 어느덧 송천강기슭에 이른것이였다. 지난밤에 퍼부은 비물에 불어났는지 외나무다리밑까지 차올라 출렁거리며 흐른다.

일남이는 군복을 벗고 뺨쓰바람으로 강물에 들어서서 분대장의 지시대로 수심과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통신병이 마치 측지수처럼 이런것까지 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혹시 립시로 놓았던 외나무다리대신 콩크리트다리라도 놓자는것인가?

이때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예리한 집게한테 옥죄인것처럼 뜨끔했다. 물속으로 자맥질해서 움켜쥔채 꺼내보니 큼직한 가재였다. 제법 집게발을 뺨치며 요동을 쓴다.

《가재잡이를 하나요?》

녀자의 쾩쾩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위생가방을 메고 외나무다리를 건너오던 몸매 날씬한 녀군의가 자기를 향해 묻는 소리였다.

그는 며칠전 녀군의가 통신분대에 찾아와 검진을 할 때 꽃났을 익혔었다.

《분대장동무더러 군의소에 와서 종합검진을 받으란다고 전해줘요.》

녀군의는 일남이에게 이렇게 당부하더니 외나무다리를 날파람있게 건너간다.

(분대장동무가 어디 앓는 모양인가?)

하긴 오늘 아침식사때도 분대장은 자기의 밥그릇에서 일남이한테 몇숟가락 덜어주었었다.

그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측량을 마쳐 끝낸후 14호지점을 향하여 걸음을 다그쳤다.

## 2

지난밤에 내린 비에 나무잎사귀들은 머리라도 말끔히 감은듯 연록색을 두드러지게 띠고 미풍에 가벼이 설레이었다.

신비로운 숲속의 자연미에 눈을 팔던 그는 너럭바위밑에서 솟아오르는 정갈한 웅달샘을 보자 달려가서 샘물우에 떠도는 풀잎을 입김으로 훌훌 불어던지며 타드는 목을 추기였다. 샘물맛이 얼마나 쫄하고 감미로운지 마치 향기로운 과일물을 마시는것 같았다.

그제야 그는 샘물가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다문다문 피어있는 이름모를 꽃들을 발견하였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꽃들을 병실창가에 갖다 꽃을 생각으로 그는 꽃 몇송이를 꺾어 배낭우에 찢어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14호지점에 이른 그는 숲속사이로 줄줄이 뻗어간 통신선을 이윽도록 살폈다. 그는 통신선과 얼마간 떨어져있는 아릅드리 로송나무아지의 방향각도와 길이를 눈짐작으로 가늠해보고 수첩에 적어넣었다. 지금 상태를 놓고보아서는 나무아지가 통신줄을 다칠것 같지 않았다.

(분대장동문 공연히 원심쓰는군. 생뎡만 빼면서 헛걸음만 하게...)

일남이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목수건으로 문지르며 코날개를 벌름거렸다. 사위를 둘러보았으나 더는 이상이 없었다. 그때 봉-봉-거리며 날아드는 벌떼소리가 귀뿌리를 스쳤다. 흠칫 몸을 떨며 눈길을 돌리니 벌들이 불청객을 노리듯 축수를 뺨치고 자기의 주위를 맴돌고있었다.

문득 그는 방금전 샘물가에서 꽃송이를 꺾어서 배낭우에 꽂아놓은것을 상기했다.

벌떼를 보는 순간 호기심에 부쩍 사로잡혔다.

그러지 않아도 그는 지난날 방학기간에 허친골 삼촌네 집에 갔을 때 사촌형제들과 함께 산열매를 따려고 산속을 헤매이던중 우연히 맞다는 벌떼를 뒤쫓아가 아릅드리고목의 구새통속에 가득찬 산꿀을 떠온적이 있었다. 오늘도 자기에게 그런 《형제》가 또다시 차례진것 같은 조짐에 가슴이 설레었다. 자기가 그때처럼 벌둥지를 털어가리고 가서 분대원들에게 맛보인다면 얼마나 기뻐할 하랴.

이런 생각이 갈마들자 일남이는 배낭주머니에 꽂았던 꽃송이들에 내려앉아 꽃가루를 묻힌채 숲속으로 유유히 날아가는 벌들을 따라서 재빨리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까 얼마쯤 따라가보니 담장풀과 이끼에 덮인 선바위틈새기로 벌들이 부지런히 드나드는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벌한테 쏘이지 않도록 군모덮개를 내리우고 목수건으로 눈일까지 감싼 다음 배낭에서 장갑까지 꺼내 긴채 선바위앞으로 살금살금 접근했다. 그런데 어느사이에 측기빠른 벌들이 낮선 《침입자》의 낌새를 감촉했는지 그를 향하여 맹렬히 날아들기 시작하였다.

입술을 감쳐물고 바위틈새기로 손을 깊숙이 들이밀자 물큰 하는 꿀벌집이 감촉되었다. 모지름을 쓰며 한웅큼 꺼내보니 송친처럼 누르스름한 산꿀이였다. 그는 벌떼가 앵-앵- 앵칼진 소리를 지르며 덮쳐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을 펴쳐든채 산꿀을 연신 꺼내담아 배낭에 몽그려넣어 걸머진 다음 부리나케 줄행랑을 놓았다. 벌들은 집요하게 그를 《추격》했다. 허둥지둥 달리던 일남이는 그만에야 오른쪽 눈언저리에 벌침을 따



끔하게 맞았다.

눈살을 찌프리며 반사적으로 손더듬을 해보니 벌써 눈두덩이 밤알처럼 볼록하게 부어올랐다.

별한테 쏘인 눈두덩이 무겁게 내리드리우며 뜨금뜨금 쭈시기 시작했으나 분대장이 준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뜻밖에 꿀까지 지고 돌아온다는 만족감으로 하여 상처의 아픔보다도 그의 마음은 기쁨에 설레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때 누군가가 먼발치에서 마주 걸어오고있었다. 늘씬한 체격에 절도있게 정보로 걷는듯한 걸음새를 보니 박성근분대장이 분명했다.

(나를 마중오는 길인가?!)

분대장을 알아본 순간 그는 하얀 덧이발이 드러나도록 반색을 지으며 반달음으로 달려가 힘차게 보고하였다.

《분대장동지, 전사 최일남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일남은 입대후 처음으로 자기가 오늘처럼 쟁쟁한 그리고 궁지에 넘친 목소리로 보고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고했소. 현대 눈두덩은 왜 부었소?》

별경게 부어오른 일남이의 눈두덩을 바라보던 분대장의 부리부리한 눈가에 대뜸 의혹의 빛이 어리었다.

《별한테 그만...》 하고 최일남은 어쭈게 웃으며 배낭을 벗어서 분대장앞에 풀어보이였다.

《별집을 털었소?》

《그렇습니다.》

그는 분대장에게 별떼를 만났던 경위를 신명나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꿀이 만병통치약이니 분대장동무가 복용하라고 권했다. 했으나 박성근분대장은 그것을 받을대신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나는 동무한테 그런 임무를 준적이 없소.》

《예? ...》

일순 최일남은 배낭을 든채 엉거주춤 굳어졌다.

《동무가 확인한 자료나 보시오!》

일남이가 수첩을 꺼내주자 분대장은 한동안 눈여겨보더니 따지듯 묻는것이였다.

《만일 태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어지는 경우 14호지점의 통신선이 동무 보기엔 그 나무아지들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을것 같던가?》

그런 경우까지 미처 가늠해보지 못했던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걸 헤아려볼 대신 똥판지같은 벌둥지에 눈길이 팔려 발길을 돌렸단말이요? 일남동문 우리 병사들이 지녀야 할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이 그 어떤 위급한 정황이 조성된 조건에서만 불시에 발휘될수 있는것으로 생각하오? 무슨 임

무를 수행하든지 병사는 매 걸음걸음마다 그런 정신을 안고 걸어야 해...》

분대장은 술뚜껑같은 손바닥으로 일남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깨워주는것이였다.

《분대장동지, 이제라도 다시 가서 그 나무아지들을 잘라버리고 오겠습니다.》

일남이가 숙였던 얼굴을 무겁게 쳐들며 이렇게 대답하자 분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병사가 별한테 쏘인 그런 얼굴모양으로 어딜 나다니겠다는건가?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기전에 어서 군의소에 가서 치료를 받소.》

《별한테 쏘인건 만병통치약이 된다는데 뭐랍니다.》

일남이는 반죽종게 너스레를 떨었다.

《뭐, 만병통치약?》

《그렇습니다. 갖가지 신경통이나 관절염, 혈압병같은데 우정 별침을 맞는다던데요.》

《잘은 아누만. 별독이나 균이 눈자위에 침범하면 소경이 되고싶어 그래? 군말하지 말구 가오.》

일남이는 더이상 뽕뽕뽕을 못하고 돌아서서 스적스적 걸어갔다.

《이건 두구 갈텐가?》

《분대장동지랑 잡수십시오.》

최일남은 돌아보지도 않은채 그냥 걸어갔다.

《그런 걱정 말구 군의소에서 고려약 만드는데 쓰게 갖다주오.》

분대장이 소리치며 뒤따라오더니 일남이의 어깨에 배낭을 덥석 걸쳐주었다.

《전 그래두 분대장동지를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최일남은 볼부은 소리로 떠들거리였다.

자기의 성의조차 박정하게 일축해버리는 분대장의 랭담한 태도에 설음이 북받쳐올랐던것이다.

《전투임무수행도중에 다시는 그따위 헛걸음질을 하지 마오!》

박성근분대장은 그의 말끝을 자르며 나직하나 강한 명령조가 어린 목소리로 경종을 울리듯 웅겼다.

입을 꼭 다문채 묵묵히 걸어가던 최일남은 문득 너군이가 부탁하던 말이 생각나서 분대장을 돌아보며 시뻘뻘한 얼굴로 손나팔을 해대고 소리치였다.

《너군의동지가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후에 간다구 전하오-》

분대장의 웅글은 대답소리가 뒤편한 산발에 산울림의 잔향을 불러 일으키였다.

### 3

송천강가에서 만났던 날씬한 몸매에 다림발이 선 깨끗한 위생복을 걸친 너군의 은하가 그를 맞아주었다. 은하는 이슬기 머금은 흑발기같은 감장눈을 깜빡거리며 일남이의 별경게 부어오른 눈



두덩을 보자 사뭇 놀라는것이였다.

《어마나, 가재잡이를 하다가 물린게 아니예요?》

《아니, 저… 벌한테 쏘인겁니다.》

최일남은 얼굴을 붉히며 더수기를 어루만졌다.

《저런, 벌침이 눈동자를 다치지 않은게 천만다행이군요.》

은하는 혀를 차며 동집계로 그의 눈두덩에 박혔던 벌침을 뽑아들었다. 바늘끝처럼 예리한 벌침은 아직도 살아움직이듯 파들거렸다. 떨리는 눈초리로 벌침을 본 최일남은 분대장의 말대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은하는 살균액을 약솜에 묻혀 상처에 바르고 반창고까지 붙여주면서 세수할 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상냥히 말하였다.

최일남은 아무 말없이 배낭에서 비옷에 싼 꼴을 꺼내놓았다.

《이건 뭐예요?》

은하의 흑발기같은 눈이 반짝이였다.

《치료값입니다.》

최일남은 능청스럽게 하얀 덧이를 드러내며 씨물씨물 웃었다.

《아이참, 벌한테 쏘이기까지 하면서 애써 <탈취>해온걸 우리한테 주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분대장동지에게 검진을 받으러 오란다고 전했더니 오히려 저더러 이걸 군의소에 갖다주라더군요.》

《아니, 분대장동무가요?》

은하는 사뭇 놀라면서 혼자소리처럼 나직이 뇌이였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런 몸으로 어쩌면…》

《분대장동지가 어디 상했겠습니까?》

돌연 의혹에 사로잡힌 일남이의 눈은 커졌다.

《참, 동문 요즘 입대했으니 모르겠군요…》

은하는 재빛구름이 밀려오면서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한 창가로 조용히 다가서더니 추억을 더듬듯 담담한 어조로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꽃샘을 하듯 비바람이 몹시 불어치던 날이였어요. 저는 이동치료를 나가던 길에 대학에 추천을 받아 입학시험을 치러 대학으로 가는 박성근 분대장동물 만나 함께 걷게 되였어요.》

《?! …》

최일남은 분대장이 대학추천을 받았었다는 말에 자못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헌데 분대장동문 역전으로 가는 지름길도 있지만 왜 그런지 새로 가설한 통신선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 걸으며 물었더니 초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정든 초소길을 다시 걷고싶어 우정 에돌아간다고…》

가슴이 뭉클해진 최일남은 새롭게 분대장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군의의 말에 귀를 기울이

였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듯이 분대장동문 애무의 정이 담백 어린 따뜻하고 정겨운 눈빛으로 길길이 뻗어간 통신선이며 전주대들을 살피며 걷다가도 풀닝쿨줄기가 전주대를 감아들며 뻗어오른것이 눈에 띄우면 걸음을 멈추고 애써 잘라버리곤하는것이였어요. 심지어 어느 산골마을 어린아이가 연피우기를 하다가 연줄이 끊어져 회오리바람을 타고 날아와 통신선에 걸린것을 보자 글썽 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발돋음을 해가며 연줄을 벗기느라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아이참, 그러다가 기차시간을…>

제가 보다못해 이렇게 귀뻘했더니 분대장동문 차시간을 놓치면 다음차를 타도 되지만 혹시 통신선이 접지되어 순간이나마 유도현상이 생기면 분초를 다투는 긴급지휘통신에 돌이킬수 없는 장애를 끼칠수 있다면서 끝내 연줄을 벗겨버리는것이였어요. 저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 동무의 뒤를 따라걸었어요. 세찬 비바람과 함께 번개까지 병곳거리기 시작하면서 통신선이 뿡-뿡- 울부짖구 산발의 나무술들이 태질을 하더군요. 한동안 비웃자락을 기폭처럼 펴리며 앞서걸던 분대장동무가 느닷없이 무춤 서는것이였어요.》

《또 무슨 장애요소라도 발견했던것인가요?》

일남이가 그의 말꼬리를 자르듯 앞질러 조급히 이렇게 묻자 은하는 가볍게 도리머리를 하였다.

《아니예요. 저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분대장동무의 시선을 따라 맞은편 고개길을 바라보았더니 글썽 뜻밖에도 여러대의 야전군용차들이 바람을 맞받아 산발협한 고개길로 줄지어 오르는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의 심장은 막 뛴뛰기 시작했어요. 왜 안그러겠나요. 그즈음 날마다 텔레비존화면을 통하여 최전연초소들과 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엄한 모습을 뵈옵군했으니 혹시 장군님께서 몸소 타고가시는 야전군용차가 아닐가 하는 예감에 휩싸였기때문이였어요. 분대장동무 역시 저와 같은 심정이였는지 우리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멀리서나마 야전군용차쪽을 향하여 경건한 자세로 경례를 올린채 서있었어요. 물론 뽕안 비발과 먼거리때문에 푹푹히 가려볼순 없었지만 글썽 저희들쪽을 향해 차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답례를 보내시는분이 어찌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인자하신 모습처럼 생각되더군요. 하기에 저희들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야전군용차들이 저 멀리 고개길너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못박힌듯 서있었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바람세찬 곳은날마저 험준한 산정길을 넘고넘으시며 오늘은 또다시 그 어느 군부대를 몸소 찾아가시는가 하고 생각하니 그만 목이 메어…》

은하는 말끝을 흐리며 물기도는 눈가에 손수건

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전연초소를 찾아주시었다더군요.》

《그러니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날 멀리서나마 뵈옵는 영광을 지냈겠습니다. 야, 정말… 그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일남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채 무릎까지 철석 치면서 다음말을 재촉하였다.

은하는 이슬이 맺힌 긴 속눈썹을 살췍이 내리 깔며 창턱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나서 저으기 갈린 음조로 말을 이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다시 얼마쯤 가다가 갈림길에서 분대장동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분대장동무, 대학입학시험에 꼭 합격되길 바래요.》 하고 제가 작별인사를 하자 분대장동무 저더러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병사들의 건강을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하더니 그냥 통신선로를 따라서 역전으로 향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동치료를 마치고 군의소에 돌아오니 글썽 평양으로 떠난줄로만 알았던 분대장동무가 의식을 잃은채 구급파에 실려와 산소흡입을 하고있질 않겠어요.》

《뭐라구요?》

최일남은 소스라치듯 몸을 떨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은하는 그때 일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 4

은하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박성근분대장은 여전히 통신선로를 따라 걷다가 문득 손목시계를 보았다.

다급해진 그는 와썹 놀라며 걸음발을 다그치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오늘 걷고있는 초소길이 마지막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여 가슴이 알찌근해지는 것이었다. 줄줄이 뻗어간 통신선들이 비바람에 뿜-뿜거리는 소리도 마치 초소를 떠나가는 자기를 배려주는 애듯한 작별의 음향처럼 느껴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먹장구름을 갈가리 찢듯 퍼런 번개불이 눈부신 광채를 뿌리더니 파르릉 버락치는 소리와 함께 비바람에 몸부림치던 한그루의 고목이 우직직거리며 통신선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의 눈에 띄었다.

(아니, 저런?! …)

고목이 넘어지면서 통신선들을 끊어놓을것 같은 광경이 눈앞에 그려지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저 통신선들을 통하여 언제 어느 시각에 각 부대들에 전달될지 어이 알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비호처럼 달려가 기울어지는 고목에 어깨를 들이댔다.

순간 육중한 고목이 어깨며 머리에 드센 타격을 가했다. 그의 머리에 상처가 생겼는지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뜨끈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했으나 그는 입술을 사려물며 고목의 중량을 버티고서서 참아냈다.

이때 비바람에 실려 멀리서 렬차의 기적소리가 간간이 울려오는 것 같았다. 그 기적소리는 자기더러 지체 말고 달려오라고 다급히 재촉하는 부름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그냥 떠나버린다면!! …)

그 순간 건군절에 인민대표단성원으로 부대에 왔던 영웅로병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끊어진 통신선을 한몸으로 이어 긴급통신을 보장할데 대한 전투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낸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전류가 찢릿찢릿 내 몸을 통과하면서 세찬 경련을 일으켰으나 나는 피가 지도록 입술을 사려물었지. 점점 몽롱해지는 의식속에서도 나의 심장을 거처 최고사령부의 작전적방침이 지체없이 전달되리라는 생각으로 하여 더없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다네…》

영웅의 목소리를 되새겨본 박성근분대장은 바로 이 순간에 자기의 한몸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자각하였다.

(오늘 여기는 비록 전화의 그날처럼 총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무사고통신보장으로 결사옹위하는 전초신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내 한몸 그대로 전주대가 된채 이자리에서 숨진다해도 잠시나마 통신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고목을 뻗친채 말뚝처럼 서있었다.

온몸이 땅속으로 잠겨드는듯 의식은 점점 몽롱해지는 것이었다. 하기에 그는 점차 가까이 울려오는 렬차의 기적소리도 하늘땅을 뒤흔드는 우뢰소리도 자기를 소리쳐부르며 달음쳐오는 전사들의 모습도 의식하지 못한채 돌처럼 굳어져있었다. …

군의의 말에 일남이는 가슴이 몽클해졌다.

군의는 물거어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통신선을 순회검열하던 분대원들이 그를 업고 군의소로 달려왔어요. 분대장동무 구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차리자 첫마디부터 통신선이 어떻게 났느냐고 묻질 않겠어요. 우리들이 분대장동무의 희생성으로 하여 잠시도 중단없이 통신을 보장할수 있었다고 대답했더니 그제야 그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오르더군요. 그런데 분대장동무 몸이 완치되기전에 군의소에서 슬그머니 빠져달아났답니다. 대학으로가 아니라 자기네 통신초소로 말이에요.》

일남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예 휩싸인채 목이 잠겨드는 어조로 물었다.

《입학시험날자가 지났기때문이였는가요?》

은하는 가볍게 도리머리를 하였다.

《물론 시험날자는 지났지만 추가시험을 칠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대장동무 생각은 달랐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대학에 떴듯이 갈수 있을만큼 우리 분대가 담당한 통신선로를 철저히 정비해놓지 못했다는것을 통감했습니다. 그 어떤 자연피해에도 끄떡없도록 대책을 세워놓았더라면 이번과 같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수 있었겠습니까. 하기에 저는 다시 대학에 간다 해도 더는 이번과 같은 자연피해요소가 없도록 미리 빈틈없는 대책을 취하게끔 자신뿐아니라 우리 분대원들을 더욱 믿음직한 병사로 준비시키겠습니다.>

분대장동무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부대에선 끝내 그의 제기에 동의하고말았답니다.》

은하가 말을 끝냈을 때 무엇인가 후더운것이 최일남의 목을 짖 메우는것 같았다.

그는 오늘에야 비로소 박성근분대장이 신입대원인 자기에게 수습리구간의 통신선로를 따라 반복걸음을 시키군하였던가를 가슴으로 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정말이지 나는 분대장동무와 같은 병사가 되자면 아직도 멀고멀었어. 내 발바닥에 튕겨오른 물집에다 성냥땃총을 날마다 놓는다고 해도 분대장동무가 걸어온 그 길을 도저히 따라잡진 못할거야. 오늘만해도 똥땀지같은 벌둥지에 유혹되다보니 이런 수치스러운 물골로 군의소에게까지 찾아오지 않았는가. 저 너군의도 속으로는 날 비웃을거야.)

이때 그의 머리속에 착잡하게 갈마드는 생각을 뒤흔들어놓기라도 하듯이 둔중한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일남이가 그소리에 창문밖으로 시선을 보내자 비구름이 밀려드는것이였다.

《분대장동무 타박상후과가 있으니 몸을 잘 돌봐야 해요. 그 꼴은 분대장동무한테 가져다가 꼭 복용시켜요.》

은하가 일남이의 어깨에 배낭을 다시 지워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남이는 경례를 하고 문밖으로 향했다.

《분대장동무한테 한번 꼭 오라고 다시 전해요.》

일남이의 등뒤에서 너군의의 다심하고 상냥스러운 목소리가 울려오는것이였다.

## 5

통신초소로 돌아오는 일남이의 귀전에 너군의가 들려주던 분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었다.

이제 분대장동무를 만나면 자기를 채찍질해달라고 진정을 담아 호소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최일남은 높뛰는 가슴의 세찬 파동에 박자라도

맞추듯 어깨를 들썩이며 씨엉씨엉 걸어갔다.

갑자기 비꼬치가 얼굴에 선뜩선뜩 떨어졌다.

산악지대인데다가 이상기후현상까지 겹쳐서인지 구름 한점 없이 푸르청청하던 하늘이 갑자기 먹장구름으로 덮이면서 무더기비가 쏟아져내리기 일췌였다. 최일남은 비발을 누비며 줄달음쳤다. 목에서 겨불내가 나도록 달려와 병실에 들어섰으나 어쩐지 분대장은 눈에 띄지 않았다.

《치료를 받고오는 길인가?》

몸집좋은 직일병이 반창고붙인 일남이의 눈두덩을 보더니 물었다.

《예. 그런데 분대장동무 어데 갔습니까?》

《훈장수여식에 참가하러구 련대에 올라갔네.》

《분대장동지가요?》

최일남은 눈을 빛내이며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뇌이였다. 그러자 몸집좋은 직일병은 병글거리며 자랑하였다.

《아무렴. 얼마전 분대장동무 무사고통신을 보장했는데 말이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감사와 함께 높은 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였다네.》

《아- 위대한 장군님께서요?!》

최일남은 저도 모르게 환성을 터뜨렸다. 자기가 받아안은 영광이나 다름없이 환희의 격정에 눈물까지 글썽해졌다.

직일병은 그제사 일남이의 눈두덩에 붙인 반창고를 보고 생각났는지 된장이 담긴 늪식기를 내놓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참, 분대장동무 일남동무가 오면 별한테 쓰인덴 된장떡이 특효라면서 오늘밤 취침할 때 꼭 붙이라고 돌소금을 가루내여 된장에다 이렇게 이겨놓고 갔다네.》

분대장의 다심한 사랑이 어린 된장떡을 굽어보는 일남이의 눈은 뿌릿하게 흐려지였다. 별한테 쓰이면서 애써 구해온 꿀까지 마다하면서 자기를 군의소로 떠밀어보내던 분대장이 어찌면 이처럼 남모르는 사랑을 전사에게 안겨주는것인가. 일남이는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바로 것처럼 뜨거운 심장을 간직한 분대장동지이기에 남다른 영웅적위훈을 떨쳐 오늘은 값높은 수훈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으리라.

다음순간 일남이의 눈앞에는 가슴팍에 빛나는 훈장을 달고 초소로 돌아오고있을지도 모르는 분대장의 모습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이제라도 축하의 꽃다발을 들고 분대장을 마중나가 한아름 안겨주리라 하는 충동에 사로잡힌 일남은 자기가 어제 통신선을 순회검열하고 돌아오던 길에 꺾어안고와서 병실창가에 꽂아놓았던 들국화를 뽑아들었다. 그런데 병실창문을 뒤흔들며 번개가 파르릉 울었다. 이어 세찬 비바람과 함께 먹구름이 그대로 무너져내리듯 무더기비가 쏟아

쳤다.

잎사귀마저 훑날려버리며 태질하는 정향나무를 보는 순간 그의 뇌리엔 14호지점 주변의 로송나무아지들이 섬광처럼 번뜩 스쳤다.

뒤이어 분대장의 목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듯 되 울리는 것이었다.

《만일 태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어치는 경우 14호지점의 통신선이 동무가 보기엔 이 나무아지들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을것 같소? 통신병이 그걸 헤아려볼 대신 똥땀지갈은 벌둥지에 눈길도 팔려 발길을 돌렸단말이요?》

짜르릉! 드센 우뢰소리와 함께 퍼런 번개불이 번뜩이며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치는것 같아 일남이는 손에 뽀아들었던 꽃뭉음을 저도 모르게 툴렁 떨어뜨렸다. 사나운 비바람에 14호지점의 로송나무아지가 통신선을 후려치는 광경이 눈에 다시금 밟혀왔었다.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눈에서는 불꽃같은것이 병곳 튀었다.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폭풍우로 하여 만일 그 로송나무아지가 통신선을 후려쳐 끊어놓기라도 한다면...)

불길한 예감에 몸을 부르르 떨며 그는 손도끼를 찾아들고 병실밖으로 나섰다.

《아직 눈두덩이 그래가지구 이런 날씨에 어딜 나가자구 그러나?》

직일병이 눈이 휘둥그래서 소리쳤다.

《통신선로를 돌아보구 올테니 분대장동지에게 보고해주십시오.》

일남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뽀얀 비발속으로 내달렸다. 뒤에서 직일병이 다시 찾는 소리가 날아왔으나 그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냥 줄달음쳤다.

하늘을 무겁게 뒤덮은 먹장구름이 통채로 떨어쳐내리기라도 하듯이 억수로 퍼붓는 무더기비는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었다. 숨막힐듯 대기를 압축하며 킁킁한 어둠의 장막까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전지불을 쳐들고 통신선들이 서로 접지되거나 끊어진곳이 없는가를 세심히 비쳐보며 반달음쳤다.

어느덧 송천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발목이 잡힌듯 무르쭈렸다. 자기가 오늘낮에 보았던 외나무다리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잔뜩 불어난 황토물이 물갈기를 일으키며 우-우 소용돌이쳐 내리는 것이었다. 산사태로 해서인지 뿌리채 뽑힌 잡관목들이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오기도 했다.

오늘 분대장의 임무를 받고 자기가 강물깊이와 류량속도를 확인한데 비추어보더라도 헤엄쳐서 건너기조차 매우 조련치 않을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14호지점까지 가보지 못한채 여기서 발길을 돌려야 한단말인가.

바로 이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우리의 통신선을 통하여 전달되고있는 중이라

면 어찌하랴.

일남이는 가슴이 쿵쿵 두방망이질을 해댔다. (박성근분대장이라면 이런 정황앞에서 나처럼 망설이며 바재이지 않았을것이다.)

일남이는 몸을 날려 사뭇치는 물속으로 첨병 뛰어들었다. 지난날 학교수영장에서나마 헤엄치기를 어지간히 익혔던 것이었으나 막상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치자니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어쩔사이없이 아래로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한손에 군복과 손도끼까지 싸든채 헤엄치는 탓에 몸의 중량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졌다. 그는 팔다리조차 제대로 움직일수 없이 맥이 빠졌다. 숨을 헉헉 들이실 때마다 코와 입으로 탁류가 흘러들며 호흡이 가빠졌다.

이때 강건너편에서 박성근분대장이 손을 흔들며 자기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이 안겨왔다.

《일남동무, 신심을 잃지 말구 좀더 힘을 내라구-》

눈길을 모아 다시 바라보니 그것은 환각이었다.

건너편 강기슭에 서있는 버드나무가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지금쯤 편대에 올라가 축하의 박수갈채속에 빛나는 훈장을 받아안고있을 분대장이 이곳에 와있을리는 없었다.

최일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과 용기가 불끈 솟아올랐다. 그는 소용돌이치는 강물의 거센흐름을 헤가르며 간신히 맞은편기슭에 이르렀다.

사위를 둘러보니 500여메터나 물살에 밀려내려왔었다. 그랬으나 입대하여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희열과 긍지로 하여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는 흠뻑 젖은 군복을 대충 짜서 걸쳐입고 걸음발을 떼었다. 아래도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이 땅밑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몇발자국 비척비척 건다가 그는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비바람은 여전히 찾아들줄 모르고 나무숲을 쓰러눌힐듯이 쉼-쉼- 휘몰아쳤다.

최일남은 그 소리에 번쩍 정신을 가다듬었다.

(잠시도 지체해선 안된다. 그 로송나무가지가 비바람에 통신선을 후려치기전에 기어이 목격지까지 가야 한다!)

마음의 탕개를 조이며 땅을 차고 벌떡 일어난 최일남은 지친 다리를 이끌듯 비척비척 다시 걸기시작하였다.

## 6

통신선로를 따라 울창한 숲속길에 들어서자 한치도 분간할수 없는 어둠의 장막이 그의 앞을 막았다.

우중충한 숲정수리에 시커먼 비구름이 무겁게 뒤엉켜돌았다.

어둑컴컴한 숲속 어디서인지 산짐승의 울음소



리가 야음을 흔들며 울려왔다.

금시라도 숲속에서 사나운 짐승이 왈각 덮쳐들 것만 같은 긴장감에 사로잡혀 손도끼를 움켜쥐고 걸던 일남이는 저쪽 앞에서 퍼런 불광이 번뜩이자 그만 머리칼이 쭉뚱해졌다.

일남이는 마치 육박전에 돌입하듯이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손도끼를 으스스리게 틀어쥐고 전지불을 확 비치면서 성큼성큼 맞받아나갔다. 그러자 전지불빛에 드러난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아름답진대나무뿐이었다.

그가 14호지점어귀에 이르렀을 때 비바람속에 무엇인가 나무아지가 부러지는 소리같은것이 들렸다. 혹시 비바람에 그 로송나무아지가 통신선을 후려치는것이 아닐까? 이런 당혹감에 휩싸인 그는 허겁지겁 그쪽으로 달려가다가 못박힌듯 굳어졌다. 한것은 오늘낮 자기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던끝에 벌떼를 만났던 바로 그 로송나무우에서 누군가가 통신선쪽으로 드리운 나무아지를 힘껏 잡아당겨서 씹넉쿨쿨기로 동여매고있는 모습이 전지불속에 어렴풋이 보였기때문이었다.

《누구요?》

힘껏 소리치며 달려가서 전지불로 비쳐보던 일남이의 눈은 화등잔처럼 커졌다.

온몸이 물주머니가 된채 나무아지를 당겨매고 있는것은 다름아닌 박성근분대장이 아닌가.

《분대장동지-》

일남이는 눈앞이 확 흐려져 목멘 소리로 웨쳤다.

《일남동무가 아닌가?!》

분대장이 일손을 멈추고 밑을 내려다보았다.

《훈장수여식에 참가했다더니 분대장동진...》

일남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로송나무꼭대기로 부리나케 올라갔다.

《미끄러운데 왜 올라오나?》

박성근분대장이 일남이의 손목을 잡아당겨주며 물었다.

《일남인 비바람에 통신선이 걱정돼서 이 밤중에 여기까지 왔나?》

《분대장동진 어찌면, 어찌면...》

어깨를 들먹이며 분대장의 품에 얼굴을 묻던 일남이는 그의 가슴속에서 번쩍 빛을 뿌리는 금빛훈장을 보자 눈을 습벅거렸다.

《분대장동지, 축하합니다. 오늘 군의소에 갔다가 다 들었습니다...》

《통신병이라면 누구나 다 응당 맡겨진 임무를 수행했을뿐인데 글썽 분에 넘치게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런 영광을 안겨주실줄이야...》

박성근분대장은 뜨거운 은정에 목이 메어서인지 말끝을 여물구지 못한채 뉘죽로 나무아지를 더 바싹 동여매는것이였다.

《분대장동지, 아예 찍어버립시다.》

일남이가 손도끼를 추켜들자 분대장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와두라구. 이렇게 매나두 더는 통신선쪽으로 나무아지가 뻗어가지 않을거요. 나무를 자꾸 찍어버리면 무더기비가 올 때마다 사태로 해서 통신선이나 전주대에 피해를 줄수 있소.》

분대장은 사려의 빛이 어린 정찬 눈길로 일남이를 바라보았다.

박성근분대장은 그의 뒤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나자 송수화기를 꺼내들더니 점점을 통신선에 걸고 교환대에도 통화검열신호를 보내는것이였다.

일남이는 선망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교환대에서 통신선로가 모두 정상이라는 응답신호가 나오자 분대장의 비물과 땀에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언지러지는것이였다.

《됐어. 이젠 돌아가자구.》

분대장이 전지불을 쳐들고 통신선로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갔다.

《군의동무가 꼭 오란다고 다시 말하던데요.》

일남이는 그의 뒤를 따라서며 언지시 말을 건넸다.

《그래?! 참 끝은 주었겠지?》

《분대장동무가 써야 한다면써 끝내 돌려주더군 요워.》

《그래서 통채로 그냥 가져왔단말이요? 은하동무랑 나한테 자기들의 피를 뽑아 수혈해주었겠네. 그리구두 오히려...》

분대장은 말꼬리를 삼키며 묵묵히 걸다가 혼자 소리처럼 뇌이였다.

《그 동무의 아버지 준엄한 전화의 날 끊어진 통신선을 자기의 한몸으로 이어 최고사령부의 숨결을 지켜싸운 영웅통신병이였지...》

《?! ...》

최일남은 드센 충격속에 입술을 떨었다.

파편에 팔마져 떨어져나간 몸으로 끊어진 통신선을 이었다는 그 영웅로병이 바로 녀군의의 아버지란말인가.

뜨거움을 삼키는 일남이의 눈앞에는 영웅로병의 모습과 함께 흑팔기같은 감장눈을 반짝이던 녀군의의 아련한 모습이 삼삼히 떠오르는것이였다.

끝없이 설레이는 그의 마음처럼 어느덧 비구름이 걷히면서 담청색 하늘가에 못별들이 총총히 돌아났다. 비개인뒤에 향유 그리하듯이 향긋하고 쓸쓸한 숲향기와 함께 습기를 머금은 녹녹한 대기가 안개발처럼 산정길을 감쌌다. 잠푹해진 밤의 정적을 가벼이 흔들며 산골짜기로 흐르는 물소리와 쌍을 찾는 산비둘기의 구구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려한 산발너머 하늘가에 살며시 얼굴을 내민, 유난스럽게 반짝이는 새별을 쳐다보며 걸던 분대장이 나직하나 물기에 젖은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험한 전선길을 이어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고계실 거요.

난 전연초소로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차를 멀리서 바라우면서 마음속으로 맹세했소. 우리 병사들을 찾아 떠나먼길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을 옹위하여 이 한몸 다 바치리라고말이요. 일남이, 우리 이 길에서 병사의 위훈을 떨치자구.》

최일남은 이 순간도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생각하며 언제나 장군님과 숨결을 같이하듯 걷고있는 분대장의 모습을 대하자 가슴노리가 몽클해졌다.

뒤이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벌한테 쓰이었던 눈두덩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러자 상처의 아픔보다도 마음속 자책감이 가슴을 저미며 뼈저리게 마쳐왔다.

(나는 신입병사의 첫걸음을 어떻게 걸었던가. 과연 나는 것처럼 뛴뛰는 병사의 숨결로 가슴을 불태웠던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금 더듬어본 그는 이제부터 분대장처럼 한발자국을 걸어도 언제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충성의 걸음으로 삼고 영원히 드림없이 복무의 나날을 주름잡아 걸으리라고 마음굳혀었다.

절도있게 정보로 걷고있는 분대장의 뒤를 따라 보조를 맞춰가던 최일남은 문득 전연에서 보내온 동창생의 편지가 상기되었다.

그는 더욱 활기차게 걸으며 마음속으로 웨쳤다.

(나도 떼떽하게 회답편지를 쓰리라. 비록 지금 인적없는 산중통신초소길을 걷고있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통일의 열병식광장에 높이 모시고 장군님을 우리러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할 영광의 그날에 잇닿아진 보람찬 초소길을 지켜간다고 긍지높이 전하리라!)

최일남은 사뭇 기쁨에 넘쳐 숨결높이 걸었다.

비물고인 진창길에 발목이 묻혀도 발걸음은 거뼉하게 느껴지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밤하늘에서는 색동이라도 커놓은것처럼 반짝이는 별무리들이 통신선로를 따라 걷고있는 박성근분대장과 최일남의 머리에 축복의 빛발을 뿌려주고있었다.

## 나는 자랐다

김충기

고난의 나날에

나는 자랐다

서른해 세월과도 비길수 없는

인생의 참나이를 나는 지냈다

준엄한 세월을 줄달음쳐 살며

나의 피는 엄동설한에도 펄펄 끓었고

백리물길굴을 열어간 군인들의 그 걸음으로

삶의 계단을 두셋씩 뛰어올랐노라

붉은기가 바로 나의 생명임을

목숨바쳐 지켜야 할 신념임을 알았노라

수령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깨달으며

어려운 때 내가 서야 할 위치는

결사옹위 제1선임을 자각했노라

한 공기 죽마저 전사들과 나누시며

《고난의 행군》길을 앞장서 걸으신 장군님

그이와 운명의 숨결을 같이하며

평범한 세월 한생에도 다 깨닫지 못할

삶의 진리를 나는 배웠거니

걸음걸음 다쳐온 신념이여

순간순간 빛내인 량심이여

심장에 너를 지너

내 단신으로 백만대적과도 맞설수 있고

준엄한 날이 오면 폭탄으로 터질수 있는

혁명의 아들로 자랐노라

아, 시련을 맞받아 이겨낸

승리자의 떼떽한 자격으로

오늘도 래일도 나는 말하리

나는 고난의 나날에 자랐다

그 나날에 나는 장군님의 전사로 성장하였다

# 마치를 높이 들고

김영락

나는 로동자  
빈말은 좋아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창조의 마치소리로  
조국과 말하며 사는 사람

땀흘린 오늘이 없이는  
행복한 래일이 없기에  
나는 창조의 마치소리 높이 울린다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는 조국앞에  
후더운 땀을 바친다

말로써야 그 무슨 애국을 톤할수 있으랴  
위대한 창조의 뜻으로  
나는 우리의 장군님과 통한다

간고한 시련이 막어나설수록  
신념의 마치를 더 높이 추켜드는  
아 나는 조선의 로동자  
  
이 마치를 높이 들고  
나는 행복을 창조한다  
인민이 기뻐하고 조국이 밝아지도록  
더 많은 재부를 쌓아올린다  
원썬와의 판가리 대결전에도 나선다

이는 조선로동계급의 의지  
폭풍속에서도  
격랑속에서도  
이 마치소리는 더 높이 울리리라  
자력갱생으로 우리는 승리하리라

# 우리의 련장은 가벼워서 좋다

림성희

우리 쌓은 십리제방 저 멀리 남겨두고  
새로운 건설장으로 또다시 행군해가는  
돌격대 나의 동무들아  
우리의 련장은 가벼워서 좋다

시원히 깎은 짧은 머리에  
단정히 차려입은 청춘의 제복  
푸른색 배낭엔 보풀진 일기장과 노래집  
우리의 련장은 간편해서 좋다

우리엔겐 없노라  
자신을 위해 따로 간수한 보짐이  
우리엔겐 없노라

자기만을 생각하며 따로 아껴든 사치품도  
  
허나 우리엔겐  
부장변영하는 조국의 미래를  
통채로 맡겨주신 장군님의 믿음이  
가슴벌게 안겨져있나니

련장은 가벼워도 어깨는 무겁다  
청춘은 개척자  
청춘은 돌격대  
시대를 떠메고가는 무거운 짐이  
청춘들아  
우리의 어깨우에 떠실려있다

## 아들애의 그림을 놓고

김정희

정일봉의 장엄한 해돋이로 밝아오고 소백수의 티없이 맑은 물로 정화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한없이 청신한 2월.

하늘에서는 태양이 광휘로운 빛을 뿌리고 대지에서는 벌써 훈훈한 봄기운이 어리는듯싶은 2월.

가로수들마다에는 서리꽃이 피어나고 아직도 기온은 쌀쌀하지만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흥모의 표정이 가득 실려 화기에 넘친다.

언제나 기쁨과 환희로 차넘치는 2월이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고 맞는 첫 2월이여선지 더욱더 생각깊은 올해의 2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충성의 노래모임》준비로 늦게까지 노래춤 연습을 하던 나는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인민학교 4학년생인 큰아들애가 병실거리며 뛰어나와 나를 반겨맞았다.

《어머니, 이제껏 춤을 추다 오시나요?》

《그래,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어머니도 춤을 춘다. 좋지?》

《좋아요.》

아들애는 나의 손을 잡고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며 나를 방으로 이끌었다.

아들애의 손에 끌려 방에 들어서던 나는 화판이며 색감, 붓 등이 어수선하게 널려져있는 방안을 보고 주춤하였다.

나의 의아한 눈길을 받은 아들애는 왜서인지 처녀애처럼 부끄럼을 타며 나를 방가운데 펼쳐져있는 화판앞으로 이끌었다.

《어머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학교 미술소조에서 작품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내편에 좀 그려봤는데 아직 채 되지 않았어요. 제목도 못달고...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아들애의 소행이 기특하여 나는 빨갛게 달아오른 애의 얼굴을 다독여주며 그림에 눈길을 주었다.

화면중심에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불타는 태

양이 광휘로운 빛을 뿌리며 거연히 솟아오른다. 아래편에는 태양의 빛발을 받아 피어난 천만가지 각양각색의 꽃들이 활짝 꽃망울을 터쳤다. 효성화와 목란꽃, 진달래와 해바라기, 해당화와 장미꽃...그야말로 태양을 우리러 꽃의 바다가 펼쳐졌다.

구도나 채색 모든 면에서 아직은 서툴고 미숙했으나 거기에 담겨져있는 소박한 뜻만은 가슴에 정하게 안겨왔다.

《너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렸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릴 생각을 다했니?》

나의 물음에 아들애는 축스러운듯 뒤통수를 긁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도 참, 아버지**김정일**원수님은 우리모두의 해님과 같으신분이라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김정일**원수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진행하는 작품전시회에 어떤 그림을 낼까 생각하다가 내 나름대로 꽃에 대한 상을 잡고 그려봤는데...

아직은 철부지 장난꾸러기소년으로만 생각했던 아들애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대답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나는 아들애의 그림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태양과 꽃.

꽃은 태양의 빛발을 받아 피어나 향기를 풍긴다.

태양은 자기의 빛과 열로써 이 땅에 천만꽃을 활짝 피운다.

세상천지를 환히 밝히는 광휘로운 빛, 세상만물을 차별없이 골고루 덥혀주는 따스한 열, 그 광휘로운 빛과 따스한 열은 태양의 속성이며 지구상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꽃은 졌다가도 다시 피지만 두번다시 없는것이 인간의 생이다. 단 한번밖에 없는 그 생을 인간답게 참답게 살아나가자면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태양의 품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태양의 품에서만 인간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빛내어나갈수

있고 참다운 인생길, 후회없는 인생행로를 걸어 나갈수가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태양과도 같이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서 참된 삶을 누리고있으며 자기 운명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로투사와 전화의 불바다를 건너온 전쟁로병들, 곡절많은 인생길에서 헤매이던 지식인들, 철부지 어린이로부터 백발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태를 묻고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

온 나라에 비애의 파도가 차넘치던 애도의 그 나날, 주체83년 7월 1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분계연선의 외진 산골마을의 산모와 세쌍둥이를 위해 직승기를 띄우도록 해주시였다. 그이의 한없이 위대한 사랑을 믿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을 때 우리 인민들은 장군님의 그 사랑이 고마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천상을 당한 한나라의 령도자가 이름없는 산모와 세쌍둥이를 위해 비행기까지 띄운 동서고금에 없는 사랑의 전설.

몸소 온 나라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호주가 되시여 이 나라 평범한 가정들에서 일어난 불상사도 헤아려주시고 만년장설도 단숨에 녹여버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의 천만자식들의 가슴속에 맺힌 자그마한 응어리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안타까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에 대한 한없이 순결하고 무한대하며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던 지난 3년동안 끊임없는 전선시찰로 몰아치는 역풍을 헤치시며 사회주의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였고 온 나라가 그이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하는 환호의 분위기에 잠겨있던 지난해 9월 23일에도 인민의 유원지로 새롭게 꾸려진 구월산으로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이어나가기 앉으셨던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 장군님은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신 스승이시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시는 아버지이시며 죽어서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는 은인이

시다. 장군님의 예지는 인생의 앞길을 밝혀주는 빛발이고 장군님의 령도는 우리 인생을 빛내주는 따사로운 손길이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누구나 달려가 안기고싶은 영원한 삶의 품, 한생을 맡기고 따를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다. 누구든지 천어버이품에 안긴것처럼 천만시름을 다 놓을수 있고 천백가지 소원, 잊을번한 잘못까지 다 아뢰이게 되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품이다.

언제인가 이른새벽 호수가에서 아침노을 붉게 타는 동녘하늘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태양에 비쳐 격찬하시면서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저 하늘의 태양이라고,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날은 언제나 환히 밝고 창창할것이라고...

그렇다.

정녕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온 나라 인민모두의 운명을 환히 밝혀주고 빛내주는 태양, 그 태양이 바로 우리 인민의 친근한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꽃은 태양의 빛발아래 피어나 태양을 따른다.

우리 인민은 **김정일**장군님을 자기 운명의 구세주로, 영원한 태양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께 자기의 모든 생사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한길을 걸어갈 불굴의 신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태양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해빛속에 살게 되는 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 **김일성**민족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창창할것이며 그 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그림이 어때요?》

나는 그림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림이 참 좋구나. 꼭 잘 완성하여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제출하도록 하자꾸나.》

《그렇게 하자요.》

나는 좋아라 매달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